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132-01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I

· 총 론
· 기본생활영역
· 신체운동발달영역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132-01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Ⅰ

· 총 론
· 기본생활영역
· 신체운동발달영역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연구책임자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의향 (한국보육진흥원 국장)
심미경 (인제대학교 교수)
유희정 (광주대학교 교수)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서원경 (서울청사한빛어린이집 원장)
안현숙 (안산삼성어린이집 원장)
정혜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수진 (한국보육진흥원 대리)
윤지연 (육아정책연구소 인턴)

김온기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상무)
강지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최혜영 (창원대학교 교수)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장혜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손승희 (대전청사새롬어린이집 원장)
유주연 (CJ키즈빌어린이집 원장)
민미희 (서경대학교 대우교수)
김영란 (한국보육진흥원 사원)

CONTENTS

제1부. 총 론 • 1

Ⅰ.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 목적 및 필요성 ····· 3
01. 개발의 필요성 ····· 3
02. 개발의 목적 ····· 4

Ⅱ.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 배경 ····· 5
01.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과정 ····· 5
02. 선행연구 분석 ····· 7

Ⅲ. 보육교사의 요구 분석 ····· 15
01. 문제행동 지도 실태 ····· 15
02. 보육교사의 요구 ····· 21

Ⅳ. 보육교사 지침서 구성 체계 ····· 31
01. 총론 및 각론 개요 ····· 31
02. 총론의 구성 ····· 31
03. 각론의 구성 ····· 32

제2부. 각 론 : 기본생활영역 • 37

Ⅰ.「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지도 ····· 39
01.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 39
02.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43
03. 기본생활영역 교사 지도 방안 ····· 44

Ⅱ.「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 47
01. 이유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47
02. 젖병을 떼지 못하는 경우 ····· 49
03. 공갈젖꼭지에 집착하는 경우 ····· 51
04. 편식: 고기만 먹고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54
05. 편식: 과자 등 군것질만 먹는 경우 ····· 57
06.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 ····· 59
07. 잘 먹지 않거나 먹기 싫으면 입에 물고 있는 경우 ····· 62
08.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 ····· 65
09. 스스로 먹지 않는 경우 ····· 67
10. 식사예절이 부족한 경우 ····· 69
11.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 71
12. 잠을 자는 동안 소변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 ····· 77
13. 소변을 참다가 자주 옷에 실수하는 경우 ····· 81
14. 어린이집에서 잠자기 어려워하는 경우 ····· 84
15. 씻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86
16.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91
17. 지나치게 청결한 경우 ····· 95
18. 계절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경우 ····· 97
19.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지 못하는 경우 ····· 101
20.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104
21.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 106
22.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109
23.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 114
24.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 115
25. 어린이집 버스에서 심하게 장난을 치거나 의자에 앉아 있지 않는 경우 ····· 119
26.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 122

제3부. 각 론 : 신체운동발달영역 • 127

Ⅰ.「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 ····· 129
01.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 129
02.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 목록 ····· 134
03. 신체운동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 135

Ⅱ.「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 137
01. 걷지 못하는 경우 ····· 137
02. 걸을 수 있는데 걷지 않고 항상 안아달라고 하는 경우 ····· 140
03. 엄지, 검지를 쓰지 않고 크레파스를 손 전체로 잡는 경우 ····· 144
04. 숟가락을 사용할 때 많이 흘리는 경우 ····· 146
05. 블록을 3개 이상 쌓지 못하는 경우 ····· 148
06. 다리 힘이 약하여 자전거 페달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 ····· 151
07. 점핑(jumping) 등과 같은 대근육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 ····· 154
08. 팔의 힘이 약해 공을 던지지 못하는 경우 ····· 157
09. 계단, 정글짐과 같은 기구에 오르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 ····· 160
10. 가위를 사용해 도형 오리기를 잘 못하는 경우 ····· 164
11. 동작이 너무 느린 경우 ····· 166
12. 걸음걸이나 뛰는 자세가 불안정하여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는 아이 ····· 168
13. 항상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 ····· 171
14. 움직이기를 싫어하거나 거의 움직임이 없는 아이 ····· 174
15. 쉬지 않고 심하게 많이 움직이는 아이 ····· 177
16. 눈을 찡그리거나 비비고,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아이 ····· 180
17. 코를 자주 파고 킁킁거리는 아이 ····· 182
18. 소리를 잘 못 듣는 아이 ····· 184
19. 입에서 구취가 나는 경우 ····· 186
20. 두통을 자주 호소하는 경우 ····· 187
21. 심한 변비 ····· 189
22. 잦은 소변(빈뇨) ····· 192
23. 비만인 경우 ····· 193
24. 체격이 심하게 왜소한 경우 ····· 197

제4부. 각 론 : 사회성발달영역 • 209

Ⅰ.「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 ····· 211
01.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 211
02.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218
03.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 지도 방안 ····· 219

Ⅱ.「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 227
01. 무는 경우 ····· 227
02. 교사를 밀쳐내는 경우 ····· 230
03. 할퀴는 경우 ····· 233
04. 놀잇감을 던지는 행동 ····· 236
05. 놀잇감을 뺏는 경우 ····· 237
06. 짜증내는 경우 ····· 240
07. 교사에게 매달리는 경우 ····· 243
08. 자기의 관심에만 몰두된 경우 ····· 246
09. 때리는 경우 ····· 248
10. 같이 안 논다고 말하는 경우 ····· 251
11.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경우 ····· 255
12. 떼쓰는 경우 ····· 257
13. 지기 싫어하는 경우 ····· 260
14. 친구를 귀찮게 하는 경우 ····· 263
15. 힘 조절을 못하는 경우 ····· 266
16.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 268
17. 선호하는 또래가 제한된 경우 ····· 270
18. 부끄러움이 많은 경우 ····· 272
19. 의존적인 경우 ····· 275
20.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경우 ····· 277
21. 또래를 따돌리는 경우 ····· 278
22.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282
23. 반항하는 경우 ····· 284
24. 고자질하는 경우 ····· 288
25. 거짓말 하는 경우 ····· 290
26.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 291

제5부. 각 론 : 정서발달영역 • 295

Ⅰ.「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 ····· 297
01.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 297
02.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표) ····· 304
03. 정서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 305

Ⅱ.「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 311
01. 양육자와 헤어져도 만나도 힘든 경우 ····· 311
02. 교사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경우 ····· 314
03. 아직 어려서 헤어지기가 어려운 경우 ····· 318
04. 아기 때부터 쓰던 물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 ····· 319
05.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해하는 경우 ····· 322
06. 무조건 울어 버리는 경우 ····· 324
07.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 326
08. 아직 어려서 화를 참을 수 없는 경우 ····· 329
09. 선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경우 ····· 332
10. 우연한 반복으로 인한 즐거움이나 위안 받고 싶은 욕구를 자위로 표출하는 경우 ····· 334
11. 이전 기관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경우 ····· 338
12. 울어서 얻고 싶은 것을 해결하는 경우 ····· 341
13. 잘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 ····· 344
14. 주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자신감을 잃는 경우 ····· 346
15.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일에 너무 부끄러운 경우 ····· 349
16. 특별한 사건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경우 ····· 352
17. 강박 성향을 가진 경우 ····· 353
18. 통제해야 안심이 되는 경우 ····· 356
19. 불안감과 긴장으로 틱(tic) 현상을 보이는 경우 ····· 358
20.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 360
21. 기분 변화가 심한 경우 ····· 363
22. 정서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은 경우 ····· 366
23. 분노폭발로 관심을 받고 싶은 경우 ····· 368
24. 잘못에 대해 제지 받은 경험이 없어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 ····· 370
25. 이후 상황이 두려워서 자기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372

26. 마음속에 가득 찬 화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375
27. 겁이 많아서 새로운 활동을 지나치게 거부하는 경우 ····· 376
28. 환경 변화로 인해 산만해진 경우 ····· 378
29. 심리적 문제 때문에 산만한 경우 ····· 380
30. 성관계 장면을 따라하거나 다른 성의 친구를 궁금해 하는 경우 ····· 382

제6부. 각 론 : 언어발달영역 • 389

Ⅰ.「언어발달영역」문제행동 지도 ····· 391
01.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 391
02. 언어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 395
03.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397

Ⅱ.「언어발달영역」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 399
01. 또래에 비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 399
02. 또래와 달리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 401
03. 또래에 비해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404
04. 또래와 달리 의사표현(표정·몸짓·언어)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 407
05. 또래와 달리 울음 또는 몸짓을 이용한 의사표현을 주로 하는 경우 ····· 411
06. 또래에 비해 자신이 만들어낸 어휘(음운적 신어) 사용이 빈번한 경우 ····· 414
07. 또래에 비해 주로 한 단어말로 의사표현 하는 경우 ····· 416
08. 또래와 달리 징징거리기나 소리지르는 말투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 419
09. 또래에 비해 대화 시 상대방을 응시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 421
10. 또래에 비해 그림책이나 인쇄글자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 ····· 423
11. 또래에 비해 쓰기도구 및 사용(끼적이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 ·· 426
12. 아기식 발음으로 말하거나 알아듣기 힘들 만큼 명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 428
13. 말할 때 말소리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 431
14. 지나친 군말사용이나 말더듬 현상으로 말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 ····· 433
15. 또래에 비해 대화 및 이야기 나누는 상황에서 맥락·지시·주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 436
16. 또래에 비해 주변 글자 및 책 읽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는 경우 ····· 438

17. 또래에 비해 문학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 440
18. 또래에 비해 사용 어휘수가 매우 적은 경우 ····· 442
19. 또래에 비해 언어적 의사표현이 매우 적은 경우 ····· 444
20.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 하지 않는 경우 ····· 446
21. 또래에 비해 말한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이해가 어려운 경우 ····· 449
22. 초보적 쓰기를 통한 표현 행동이 전혀 없는 경우 ····· 451
23.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하여 듣지 못하는 경우 ····· 453
24. 말하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말만 하려는 경향이 심한 경우 ····· 455
25. 유행어 및 비속어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 ····· 457
26. 불필요한 말대꾸를 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 459
27. 또래에 비해 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한 경우 ····· 462
28. 또래에 비해 쓰기를 위한 도구 사용에 관심이 없거나 도구 사용이 매우 미숙한 경우 ····· 464

제7부. 각 론 : 인지발달영역 • 473

Ⅰ.「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 ····· 475
01.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 475
02.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477
03. 인지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 479

Ⅱ.「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 481
01. 성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 ····· 481
02. 물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동 ····· 483
03. 낯선 사람에게 쉽게 안기고 따라가려는 경우 ····· 485
04. '까꿍'하면 고개를 돌리는 경우 ····· 487
05. 새로운 사물이나 놀잇감을 제시해도 관심 없거나 피하는 경우 ····· 489
06. 대상의 영속성이 생길 연령에서 놀잇감이 사라져도 찾지 않는 경우 ····· 491
07. 팔, 다리(또는 소리)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을 모방하지 않는 경우 ····· 493
08. 영아에게 물건이나 놀잇감을 손에 쥐어주기 전에는 탐색하지 않는 경우 ····· 495
09. 또래와 비교하여 지연모방이나 상징놀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 ····· 497
10. 교사나 또래의 놀이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 499
11. 끼적거리기 단계가 변화되지 않는 경우 ····· 500

12. 익숙한 모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 502
13. 일상생활용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504
14. 촉각으로 물건을 구분하여 알아맞히지 못하는 경우 ····· 507
15. 간단한 동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509
16. 소개된 활동의 순서를 몰라 망설이는 경우 ····· 511
17.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 513
18. 질문하는 맥락에 관계없이 대답하는 경우 ····· 516
19. 주의집중하지 못하고 행동이 산만한 경우 ····· 518
20. 동화를 들을 때 동화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 521
21. 간단한 지시를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 ····· 523
22. 역할놀이때 정해진 역할을 표현하지 못하고,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 525
23. 놀잇감을 정리할 때 뒤섞어서 정리하거나 다른 영역에 정리하는 경우 ····· 528
24. 자신의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주 바꿔가는 경우 ····· 530
25. 또래에 비하여 수세기를 못하는 경우 ····· 532
26. 자기의사표현을 하지 못하여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 534
27. 이야기의 내용을 순서대로 회상하지 못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 ····· 536

참고문헌 ····· 539

부 록 ····· 540
부록 1. 인지발달지표 ····· 540

제1부. 총 론

Ⅰ.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 목적 및 필요성

01 개발의 필요성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 신체적·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이는 문제행동(ADHD, 공격적 행동, 등원거부, 거짓말 등) 영유아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도하기 위한 가정, 보육교사 지원 정책이 미비함. 이에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이 필요함.
- 2013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100%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아동을 위한 전략으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 마련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지원'을 표방하고 있음.
  - 보육정책의 최우선은 영유아의 행복한 삶이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가장 밀접한 환경인 부모와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장기적이고 꾸준한 교육시스템을 국가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함.
- 최근 우리나라에서 취업모 증가,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와 같은 가족 변동 및 해체와 경쟁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상황들이 영유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좌절과 통제 경험이 이전보다 증가하면서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심각한 발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영유아의 문제행동은 개인 및 가족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비용을 유발함. 보건·교육·정신건강·사법체계 분야에 지불되는 비용과 이 과정에서의 생산성 감소, 아동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가 겪는 고통을 추계하면 높은 비용이 발생함(안동현, 2005).

영유아기 문제행동의 증가 현황

- 우리나라 아동기의 잠재적 공격행동 발현 성향은 매우 높은 편임.

- 배승민, 신동원, 이수정(2009)의 문헌에 의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초등학생 중 8-12%가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소아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장애 중 하나임.
-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ADHD, 즉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수는 0-4세는 34.4% 줄었으나 5-9세는 112.8% 증가하고 10-14세는 37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현재 4만개소가 넘는 어린이집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그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전체적인 발달 영역(언어, 인지, 사회, 정서, 신체 등) 또는 특정한 한 두 영역에서 정상적인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급증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가 특화 전환됨.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함. 2010년 전국적으로 56개 사업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었고 10,50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음(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자료 기준).
- 최근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대근육·소근육 운동, 언어발달,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정서·사회성발달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각 반의 보육교사는 반 전체 원아를 책임지면서 개별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문제행동을 지닌 영유아를 동시에 보육하기에는 어려움이 매우 크므로 이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가 필요함.

02 개발의 목적

❖ 어린이집 영유아의 부적응 행동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보육교사의 어려움 및 지원에 요구 조사 분석을 통해 보육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지침 제공하고자 함.

❖ 6개 영역별(기본생활영역, 신체운동발달영역, 사회성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를 제시하고 개별 사례에 따른 원인 분석, 지도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영아와 유아의 문제행동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

❖ 개발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보급을 위한 교사교육 계획안을 제시함.

Ⅱ.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 배경

01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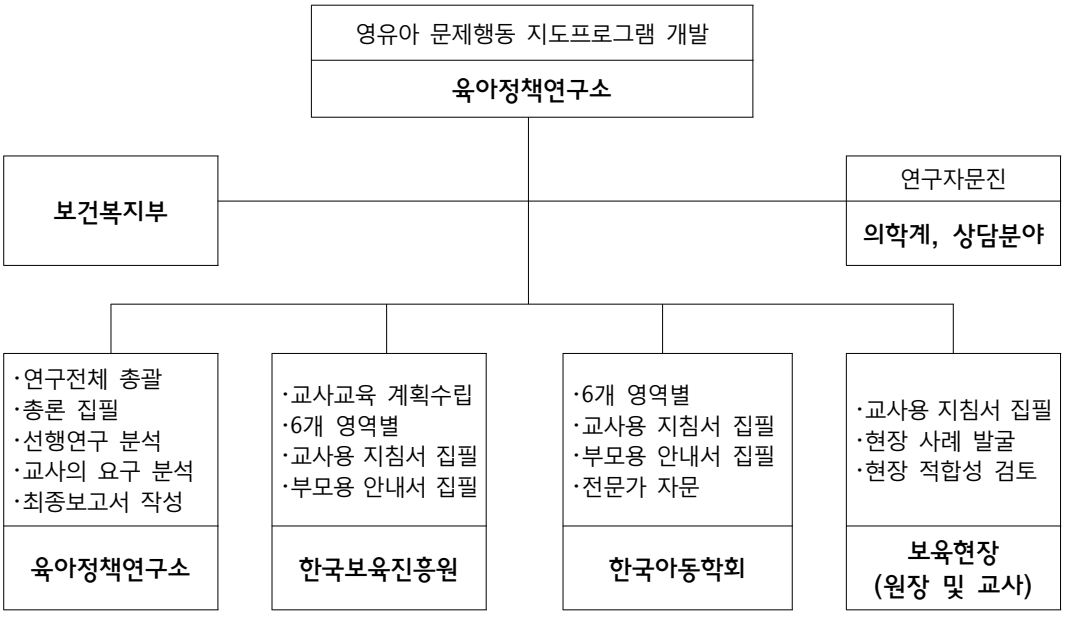
연구단계	주요 내용 및 활동
⇩	
연구계획 수립	연구목적 및 기본방향 설정 본 연구를 위한 문제행동의 조작적 정의
⇩	
문헌연구	문제행동 지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영역별 문제행동 현장 사례 발굴	6개 영역별 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문제행동 사례 발굴
⇩	
문제행동 지도 교사용 지침서 요구 조사 및 분석	어린이집 문제행동 지도 실태 분석 문제행동 지도 교사용 지침서 요구 파악
⇩	
문제행동 지도 교사용 지침서 집필	6개 영역별 문제행동 지도의 이해, 문제행동사례 지도에 관한 교사용 지침서 집필
⇩	
의학·상담·아동학분야 전문가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면검토 실시 - 전문분야에 따른 내용의 타당성 검토 - 어린이집 현장적합성 검토 - 수정보완의견 수렴

(그림 II-1-1 계속)

연구단계	주요 내용 및 활동
⇩	
교사용 지침서 및 최종 확정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	
교사교육 계획 수립	어린이집에서의 활용방안 도출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한 교육계획 수립
⇩	
총론 집필	개발된 교사용 지침서를 바탕으로 총론 구성
⇩	
최종보고서 완성	교사용 지침서 7종 총론(1), 6개 영역별 교사용 지침서(6)

[그림 II-1-1] 문제행동 지도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과정

사업수행체계



[그림 II-1-2] 사업수행체계

-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공동연구진으로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 담당하는 한국보육진흥원(보육인력국, 중앙보육정보센터)과 아동·부모상담 및 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한국아동학회, 상담소 등) 다수가 참여하여 추진함.

02 선행연구 분석

가. 문제행동의 개념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1989)는 유아의 문제행동이란 유아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서, 일반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보았음(황혜정, 2006 재인용).
  - 사회 및 정서 발달상에 나타나는 내재화된 또는 외현화된 역기능을 지칭
    - 일반 유아들도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역기능을 특정시기에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으나 문제행동을 가진 유아는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내며 이들은 부적절하고 공격적이며 기괴하거나 또는 위축된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학습 환경 사이에 장벽을 만들기도 함.
  - 문제행동은 크게 외현적인 문제행동과 내재적인 문제행동으로 구분됨.
    - 외현적인 문제행동이란 사회 및 정서발달상에 나타나는 역기능, 즉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공격성, 과잉운동,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등) 등 행동적인 문제행동을 말함(Achenbach & Edelbrock, 1983; Achenbach & McConaughy, 1987; 황혜정, 2006 재인용).

- 송의열과 이미자(2001)는 문제행동의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보이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운동기능적 발달 측면의 행동이 정상적인 아동들이 보이는 범주의 행동과는 달리 발달적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상의 비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에서 유발된 부적응 상태의 행동 양식이라고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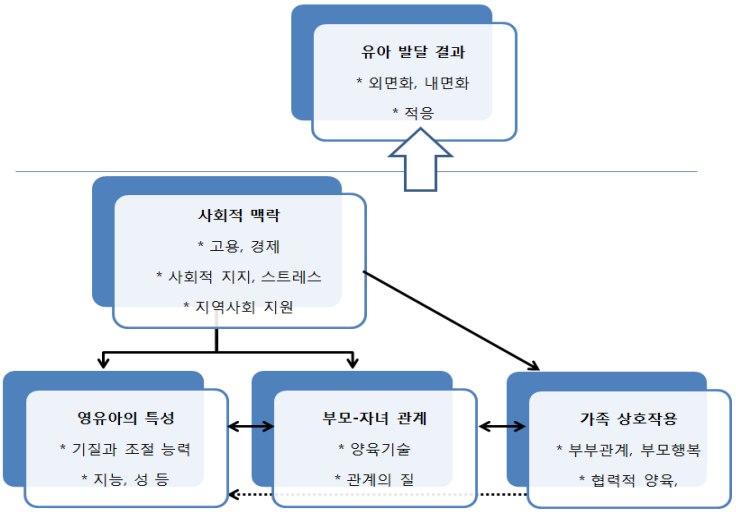
-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
  -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

- 보육교사나 부모의 일상적인 지도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
  - 단, 특수교육 대상 행동은 아님.

나. 문제행동의 원인

영유아기 문제행동의 원인

-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문제를 일으키는 발달 단계와 개인적 특성, 심리적 원인 등에 대해 인식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는 영유아들의 문제 행동의 증가와 심신의 건강 수준의 심각성을 더욱 전문화된 서비스와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문제행동이란 영유아가 특정 발달단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받아 해당된 발달단계를 성취하지 못하고 고착되거나 왜곡, 퇴행되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봄.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직면하고 있는 발달과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홍강의, 2005).
- 발달정신병리학(Developmental psychopathology)관점에서는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기준으로 개인차에 따라 발달이 왜곡되어 문제행동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문제 행동에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살펴봄.



자료: Campbell, S. B.(2007). 유아의 문제행동. p32 그림을 참조함

[그림 II-2-1]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또한 영유아가 문제 행동의 전조를 보일 때 그 결과는 위험요인(risk factors)과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조숙아로 태어났거나 학대, 방임, 빈곤, 부모의 이혼 등 불리한 환경적 경험을 한 영유아들이 유리한 환경적 경험을 하는 영유아보다 적응의 가능성이 낮아짐. 그러나 위험요인이 있다고 해서 바로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요인들이 상호작용 하여 현재의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첫째, 영유아의 특성은 기질과 정서 조절 능력 등으로 부모-자녀 관계와 상호작용함. 영유아의 까다로운 특성이 부모-자녀의 관계의 질을 낮출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기술이 부족할 경우 자녀가 바람직한 정서 조절 능력을 기르지 못함.
  - 둘째, 부부관계가 좋고 양육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것 등의 가족 상호작용 유형은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영유아의 특성에 까지 간접영향을 미침.
  - 셋째, 유아 특성과 부모 특성의 결합은 문제 행동의 주 결정요인으로 보이며, 가족과 사회적 맥락 효과는 그것을 더 확대시키고 유지하는 효과가 있음.

다. 조기개입의 중요성 및 교사 역할

영유아기 적절한 개입의 중요성

- 영유아기는 생애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영유아기의 경험은 성인기 행동의 여러 특성을 결정하는 원인이 됨. 발달영역에 따라 영유아는 여러 문제를 갖게 되며,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욕구좌절이나 빈곤에 따른 물리적 박탈감 또는 문화적 결핍에 의한 정서불안이나 신체적 증상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영유아기에 겪는 부정적인 경험은 분노, 과잉행동, 파괴적 행동, 거짓말하기 등 문제행동과 학습장애, 신경장애, 신경증, 우울증, 열등감 등으로 이후 정신병리를 발달시키게 되므로 조기에 적절한 대처와 지원이 필요함.
  - 한편, 영유아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제행동들이 사실상 특정 발달기에는 보편적인 것으로 영유아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루기 어려운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짐. 그러므로 영유아기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함의를 가진 문제행동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함.
  - 문제행동의 정의는 정상과 비정상 두 분류로 구분되는 문제행동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빈도, 강도, 만성성, 연합성,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함.
  - 문제행동을 외현화된 문제행동과 내현화된 문제행동으로 나뉨. 외현화된 문제행동은 부정적 정서 표출, 충동적 행동, 주의력 결핍, 조절능력 부족, 공격성, 거짓말 등으로 구분되고, 내현화된 문제행동은 불안이나 위축, 두려움, 슬픔 등의 정서가 과도한 것임.

- 영유아기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행동은 신체적 질병과 마찬가지로 심각할 수 있으며, 생애 초기에 발견하여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개선해나가야 함.
  - 영유아의 특성은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이 성숙하면서 대처능력을 발달시키는 시기임. 행동반응이 제한되고 양육자에 대한 의존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요소가 됨. 특히 모성분리 스트레스는 다수의 부정적인 결과와 연관이 있음.
  - 스트레스가 기억, 주의력과 같은 실행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일관적으로 밝혀짐. 긍정적인 보살핌은 자녀의 일생 동안 지속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가벼운 스트레스로부터 완충작용을 함. 영유아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초기 중증 스트레스의 영향을 개선할 가능성을 높임(Watamura, 2007).

영유아기 문제행동 지도프로그램

- 영유아의 부적응 행동(문제행동)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가정에서는 부모가 함께 지원해야만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교사교육과 함께 부모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기 개발된 부모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를 부모교육용 안내서로 개발하고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전국의 보육정보센터를 거점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과 내용을 마련하여야 함.
-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고위험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회, 정서적 발달을 증진시키고 문제는 완화하는 예방프로그램과 ADHD나 반항행동을 보이는 특정 유아들의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가족체계 수준에서 개입하는 프로그램이 있음(Campbell, 2007).
  - 첫 번째,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에서는 ADHD, 우울, 불안 등 영유아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해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약물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약물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영유아에 대한 임상 진단 자체가 정확히 힘든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개입 없이 약물만이 처방되는 것은 지양해야함.
  - 두 번째,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내적 작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아의 어떤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규정할 것인지, 영유아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지, 영유아가 지도개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해야함.
  - 세 번째, 영유아의 겉으로 들어나는 문제행동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이고 예측가능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임.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특정시기에 보이는 특정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상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 네 번째, 가족 체계적 접근에서는 가족 내 대인 간 과정에 초점을 두고 영유아가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에도 그것이 가족 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요인일 수 있다고 봄. 실제로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와 가족 관계이므로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 다섯 번째, 사회문화적 혹은 지역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서 어린이집이 역할을 할 수 있음. 영유아의 정신 병리를 강조하지 않고 그들의 유능성과 적응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지역사회 개입 및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함.

◆ 영유아 행동지도의 목표는 영유아 개개인의 자율적인 성장과 발달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영유아가 속한 집단 속에서 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임. 영유아의 무한한 가능성과 독특성을 존중하는 생활 및 행동지도를 통해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김경희, 2012). 이러한 영유아 행동지도의 목표 및 인간관과 맥락을 같이 하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근거로 하여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프로그램을 개발함.

-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은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자연과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사람임.
-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전제에 따르면 영유아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성인과의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최적의 발달을 이루며, 영유아가 속한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영유아의 문제행동 지도에 있어서도 부모 뿐 아니라 보육교사와의 신뢰감 있고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수용해주는 환경이 필요함. 또한 영유아와 부모, 가족,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유아는 건강한 자아감 및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게 됨.
-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프로그램은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영역을 기반으로 영유아의 전인 발달, 즉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영역과 기본생활습관 등 6개 영역을 근거로 하였음.

◆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근거로 한 영유아 문제행동에 부모면담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음[1].

- 영유아 문제행동의 특성은 무엇이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 행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 행동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
-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면담은 한 번의 면담으로 행동이 소거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면담을 수행하며, 해당 행동에 대한 관찰 기록이 필요함. 진행된 면담

1) '이미화·황혜정·양미선·장혜진·엄지원(2013). 누리과정 가정연계 어린이집부모지원프로그램 개발. 육아정책연구소'를 참고로 함.

내용을 교사회의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발달 검사 및 외부 전문 인력의 조력이 필요하면 받도록 도움.

- 부모면담 프로그램에서 포함할 수 있는 영유아 문제행동 영역은 영아를 대상으로는 또래 물기, 급식 거부, 공격 행동, 유아를 대상으로는 등원 거부, 성기 노출, 자유선택활동 시 비놀이 등임.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배변 실수, 매일 동일한 옷을 입고 등원함, 공격적 행동, 게임에서 졌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 등이 있음.

〈표 II-2-1〉 문제행동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지원전략의 설명 및 사용 시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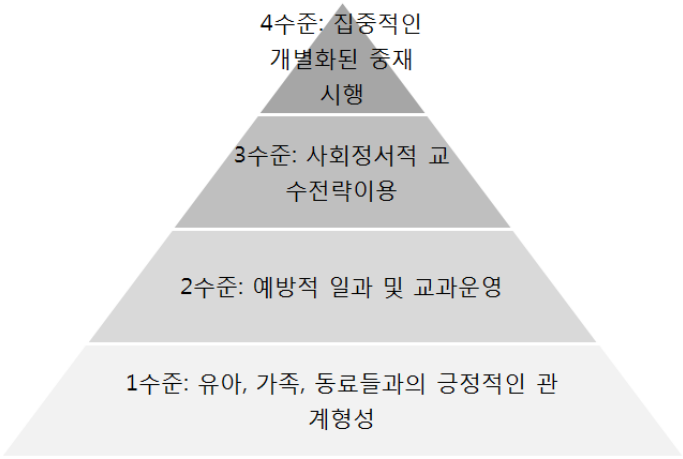
지원전략	설명	사용 시기/상황
1. 관심 끌기	• 자리 배치, 집단 구성, 매력적인 교재·교구 활용 등으로 대상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유발하는 전략(교수 환경 지원의 일환임)	• 주의집중이 필요한 활동을 전개하거나 대상 유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
2. 사전 경험	• 본 활동 전에 그 활동과 관련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대상 유아들이 본 활동을 할 때 낯설지 않고 좀 더 익숙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 익숙하지 않은 주제 또는 활동 진행 시 사용
3. 시각적 단서	•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 그림, 교사의 몸짓 등을 단서로 제공함으로써 대상 유아의 활동을 지원하고 반응을 이끌어내는 전략	• 대상 유아가 직접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제 수행 시 사용
4. 교사 모델링	• 교사가 먼저 해당 행동을 시범적으로 하여 대상 유아로 하여금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 활동 전개 시 대상 유아가 적절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
5. 또래 모델링	• 또래의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 활동 전개 시 대상 유아가 적절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
6. 활동 단순화	• 복잡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는 활동을 간략히 하거나 한 두 단계 생략하여 단순화한 후 활동을 제공하는 전략	• 활동이 대상 유아에게 다소 복잡한 경우에 사용
7. 과제 세분화	•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작게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대상 유아들이 한 과제씩 쉽게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전략	• 대상 유아가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어려워서 잘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8). 언어·인지·사회·정서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참고로 함.

❖ Fox 등(2003)이 제시한 사회적 유능감과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지도 방안을 수준별로 제시하면 다음[그림 Ⅱ-2-2] 와 같음(김경희, 2012 재인용).[2)]

2) 김경희(2012).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유아교육적 접근.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을 참고함.

- 첫째, 영유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지도 프로그램의 기본이 됨. 영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허용적인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음.
- 둘째, 문제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일과 및 교과운영을 신중하게 계획함. 교수매체 및 교재교구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배열, 배치함. 단위활동의 길이를 조정하고,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을 균형적으로 배치함.
- 셋째,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전략을 적용함. 감정과 관련된 단어학습, 타인의 감정 알아내기 학습, 타인과의 갈등 해결 학습, 우정을 포함한 사회적 기술 학습 등이 있음.
- 넷째, 영유아의 4% 정도에 해당하는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집중적인 중재의 실행이 필요함. 가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전문가(의사, 치료사, 상담사 등)들과의 협력이 필요함.



자료: Fox, Dunlap, Hemmeter, Joseph, & Strain. (2003). The teaching pyramid. 김경희 (2012) 재인용.

[그림 II-2-2] 사회적 유능감과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지도 방안 피라미드

- 마지막으로 교사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부모와 내용을 나누어 가정에서의 행동과 기관에서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함(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 구체적인 방법[3]으로는 빈도표집, 지속시간 기록, 간격기록 등을 포함한 문제행동 관찰법을 활용할 수 있음. 이는 문제행동 지도가 실행되는 동안 그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됨(김경희, 2012).
- 행동문제 지도를 위해 부모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솔직함을 바탕으로 함.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여 가족의 기대나 성향을 존중하며 협력을 구하고 부모의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선정함.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모든 과정에 가족을 참여시키고 동의를 구해야함.

3) 김경희(2012).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유아교육적 접근.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을 참고함.

Ⅲ. 보육교사의 요구 분석

01 문제행동 지도 실태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소속 어린이집 및 담당반 특성

- 설립유형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이 36.4%, 민간, 가정이 63.6%임.
- 담당반 연령은 만 0세~2세 73.2%, 만 3세~5세 19.2%, 혼합연령 7.6%임.

〈표 Ⅲ-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계	구분		계
	전체	100.0(306)	연령	20대	30.1
설립 유형	국공립 외[주]	36.4		30대	19.3
	민간·가정	63.6		40대 이상	29.7
				무응답	20.9
담당반 연령	만 0세	15.2	담당반 경험	영아반만 경험함	46.2
	만 1세	29.0		유아반만 경험함	9.5
	만 2세	29.0		영·유아반 모두 경험	44.3
	만 3세	10.6	소지 자격	보육교사 1급	9.9
	만 4세	5.3		보육교사 2급	68.2
	만 5세	3.3		보육교사 3급	21.9
	혼합연령	7.6			
최종 학력	고졸	15.0	교사 경력	1년 이내	3.7
	2-3년제 대졸	44.8		2~3년	49.6
	4년제 대졸	36.0		4년 이상	46.7
	대학원졸	4.2			

주: 국공립 외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 어린이집 임.

조사대상 보육교사의 특성(표 Ⅲ-1-1 참조)

- 교사 연령은 20대 30.1%, 30대 19.3%, 40대 이상 29.7%로 평균 35세임.
- 소지자격은 보육교사 1급 9.9%, 2급 68.2%, 3급 21.9%로 2급이 가장 많았음.
- 교사 경력은 2~3년이 49.6%로 가장 많고, 4년 이상 46.7%, 1년 이내 3.7%임.
- 담당반 경험은 영아반만 경험 46.3%, 영유아반 모두 경험 44.3%, 유아반만 경험 9.5% 순이었음.
- 최종 학력은 2~3년제 대졸 44.8%, 4년제 대졸 36.0%, 고졸 15.0%의 순임.

나.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실태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관련 교사 인식

- 연령별 발달수준에 벗어난 문제행동의 특성에 대한 인지도가 보통 이상임.
  - 인지도 높음 24.6%, 낮음 5.6%, 평균 3.19점
-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학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높은 편임.
  - 부정적 영향력 높음 77.4%, 낮음 4.3%, 평균 3.89점
- 현재 실행하고 있는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는 보통 이하임.
  - 만족도 낮음 18.6%, 높음 17.9%, 평균 2.98점
- 현재 실행하고 있는 문제행동 지도의 적합성에 대한 자신감은 보통 이하임.
  - 자신감 낮음 20.3%, 높음 17.3%, 평균 2.98점
-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높음.
  - 필요성 높음 77.1%, 낮음 2.3%, 평균 3.97점

〈표 Ⅲ-1-2〉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와 관련한 교사의 인식

단위: %(명)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	평균
연령별 발달수준에 벗어난 문제행동의 특성에 대한 인지도	0.0	5.6	69.8	24.3	0.3	100.0(305)	3.19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학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	0.7	3.6	18.3	61.1	16.3	100.0(306)	3.89
현재 실행하는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	1.3	17.3	63.5	17.6	0.3	100.0(300)	2.98
현재 실행하는 문제행동 지도의 적합성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	0.0	20.3	62.4	16.3	1.0	100.0(306)	2.98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	0.0	2.3	20.6	54.6	22.5	100.0(306)	3.97

주: 5점 척도 문항임(매우 낮음 1점 ~ 매우 높음 5점).

영역별 문제행동 지도의 어려움 정도

- 지도가 가장 어려운 영역은 정서발달(평균 3.4점)이며, 사회성발달(평균 3.19점)임.
- 기본생활(평균 2.75점), 신체운동발달(평균 2.32점)임.

학급 내 문제행동 영유아 현황

-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가 있다는 응답이 60% 이상인 영역은 정서발달(67.3%), 사회성발달(65.4%), 기본생활(66.3%)임.
  - 문제행동 영유아가 학급 내 가장 많은 경우 10명(사회성발달)이 보고됨.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및 기본생활 영역이 보육교사가 문제행동 지도를 하기에 어려운 영역으로 사료됨.

- 세 영역이 교사가 지도하기 가장 어렵다고 인식되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다소 많으며, 해당 영유아가 있는 경우가 60%이상으로 나타남.

〈표 Ⅲ-1-3〉 영역별 문제행동 지도의 어려움 정도 및 학급 내 문제행동 영유아 현황

단위: 점, %, (명)

구분	지도 어려움		학급 내 문제행동 영유아		계
	평균	표준편차	있음	해당영유아 수 범위	
정서발달 문제행동	3.40	1.05	67.3	(1~8)	(288)
사회성발달 문제행동	3.19	1.04	65.4	(1~10)	(289)
기본생활 문제행동	2.75	0.98	66.3	(1~9)	(296)
언어발달 문제행동	2.73	0.95	49.3	(1~6)	(284)
인지발달 문제행동	2.66	0.91	32.7	(1~6)	(275)
신체운동발달 문제행동	2.32	0.90	37.3	(1~7)	(284)

주: 지도의 어려움은 5점 척도 문항임(전혀 어렵지 않음 1점 ~ 매우 어려움 5점).

〈표 Ⅲ-1-4〉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가 어려운 이유

단위: %(명)

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갈등	문제행동 관련 교육의 기회 부족	체계적인 문제행동 지도 자료 부족	보육현장 내 보조인력 부족	전문가 지원 부족	원장의 인식 부족	계
47.9	17.4	16.7	11.8	3.6	2.6	100.0(305)

문제행동 지도가 어려운 이유(표 Ⅲ-1-4 참조)

- 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갈등(47.9%), 문제행동 관련 교육기회 부족(17.4%), 체계적인 지도 자료 부족(16.7%), 보조인력 부족(11.8%)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 인식개선, 보수교육 기회 확대, 자료 개발, 보조인력 지원 필요 시사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인력 현황

- 지원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82.8%).
- 지원인력이 있는 경우 보조교사가 가장 많고, 특수교사, 원장 및 동료, 치료사의 순임.

〈표 Ⅲ-1-5〉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인력 현황

단위: %(명), (명)

지원인력 없음	지원인력 있음	계	지원인력 종류			
			특수교사	치료사	보조교사	원장 및 동료
81.8	18.2	100.0(292)	(10)	(7)	(37)	(9)

주: 지원인력 종류는 중복응답 문항이며, 사회복지사는 빈도가 0으로 나타남.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전문가의 자문(62.1%)을 1~2순위로 뽑은 경우가 가장 많고, 교사연수 및 특강(36.4%), 학부모 상담(30.8%), 동료교사와의 토의(23.7%) 등의 순임.
  - 전문가 자문 및 교사연수 확대, 학부모 상담 및 원내 자문 강화 등 필요

〈표 Ⅲ-1-6〉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2순위)

단위: %(명)

전문가의 자문	교사연수 및 특강	학부모와의 상담	동료교사와의 토의	원장(감), 자문	관련 도서 및 전문서적	지역사회 연계주)	인터넷자료 및 커뮤니티	계
62.1	36.4	30.8	23.7	20.6	10.3	9.9	3.6	100.0(499)

주: 지역사회 연계는 장애아 순회지원 등을 포함함.

문제행동 지도 관련 보수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84.2%)

〈표 Ⅲ-1-7〉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관련 보수교육 경험 유무

단위: %(명)

교육경험 있다	교육경험 없다	계
15.8	84.2	100.0(304)

문제행동 지도 관련 보수교육에 참여한 경우 도움이 된 경우가 대다수임(72.8%)

〈표 Ⅲ-1-8〉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관련 보수교육의 실제 도움 정도

단위: %(명)

많은 도움 됨	도움 됨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계	평균
11.4	61.4	27.3	0.0	100.0(44)	2.84

문제행동 지도 관련 보수교육에 참여하였으나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수박 겉핥기식의 1회성 교육(38.5%), 비효과적인 이론위주 교육(30.8%), 너무 많은 인원의 대규모 교육(19.2%) 순으로 나타남.
  - 실제 사례중심의 지속적인 교육이 소규모로 진행됨이 필요

〈표 Ⅲ-1-9〉 받았던 보수교육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비효과적인 이론위주 교육	현장 경험 없는 강사진	수박 겉핥기식의 1회성 교육	너무 많은 인원의 대규모 교육	기타	계
30.8	7.7	38.5	19.2	3.8	100.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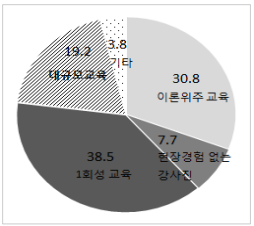
문제행동 지도 관련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 교육 기회가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70.3%)
  - 문제행동 지도 관련 보수교육 확대 실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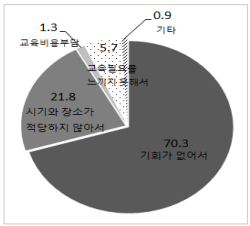
〈표 Ⅲ-1-10〉 문제행동 지도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교육 기회가 없어서	교육 시기나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서	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교육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기타	계
70.3	21.8	1.3	5.7	0.9	100.0(229)



[그림 Ⅲ-1-1] 받았던 보수교육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그림 Ⅲ-1-2] 문제행동 지도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

- 필요하다는 의견이 98.0%로 매우 높음
  - 문제행동 지도 관련 보수교육 확대 실시 필요.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이유

- 대처 및 실제적인 지도방법 습득(70.0%)이 가장 높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의 증가(31.7%), 문제행동 관련 지식·정보습득,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의 부모와의 상담(29.0%) 순임.
  -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제적인 지도방법과 관련정보를 습득하여 부모와의 상담을 도울 수 있는 보수교육이 필요함을 시사

〈표 Ⅲ-1-11〉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
42.9	55.1	2.0	100.0(296)

〈표 Ⅲ-1-12〉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의 증가	문제행동 관련 지식·정보습득	대처 및 실제적 지도법 습득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 부모와의 상담	기타	계
31.7	29.3	70.0	29.0	1.0	100.0(467)

문제행동 지도와 관련한 교육기회 참여여부

- 참여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98.6%로 매우 높음.

〈표 Ⅲ-1-13〉 문제행동 지도와 관련된 교육기회가 있을 시 참여 여부

단위: %(명)

적극 참여하겠음	참여하겠음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음	참여 않겠음	계
26.2	40.9	31.5	1.4	100.0(298)

문제행동 지도 관련 교사육의 가정 효율적인 방법

- 지도사례를 다룬 시청각교육(49.0%)을 1~2순위로 뽑은 경우가 가장 많고, 전문가와의 개인 상담 및 코칭(47.4%), 실제지도기술 연습을 위한 워크숍(35.9%), 동료교사들의 성공적 지도사례발표(22.7%) 등의 순임.
  - 사례중심의 시청각교육 확대, 전문가 상담 기회 확대, 워크숍과 동료교사의 사례발표 등의 지원 필요

〈표 Ⅲ-1-14〉 문제행동 지도 관련 교사교육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1+2순위)

단위: %

지도사례를 다룬 시청각교육	전문가와의 개인상담 및 코칭	실제 지도기술 연습을 위한 워크숍	동료교사들의 성공적 지도사례 발표	문제행동 지도 관련 연구세미나, 학술발표	견학 및 현장실습	토의 및 협의	이론 위주의 강의
49.0	47.4	35.9	22.7	17.1	14.1	10.5	2.0

주: 1순위와 2순위를 더한 수치임.

02 보육교사의 요구

가.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 요구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 요구

- 문제행동 사례 및 지도법(55.9%)을 1~2순위로 뽑은 경우가 가장 많고, 영유아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52.3%),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술(43.4%) 등의 순임.
  - 문제행동의 지도범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영유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표 Ⅲ-2-1〉 문제행동 지도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중점 내용(1+2순위)

단위: %

문제행동 사례 및 지도법	영유아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술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영유아 발달 (발달이론)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교사와 전문가와의 협력방법	문제행동 관찰방법	문제행동 예방방법
55.9	52.3	43.4	15.5	13.8	8.9	8.9

주: 1순위와 2순위를 더한 수치임.

나. 기본생활 및 신체운동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별 요구

기본생활, 신체운동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정도

- 기본생활영역 중 위험한 행동을 자주함(평균 4.02)이 매우 높고,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나

거부하는 등 편식을 함(평균 3.71),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님(평균 3.54), 배변 시기가 지났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평균 3.49) 순으로 높음.

- 위험한 행동, 식습관, 배변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 신체운동발달영역 중 움직임이 너무 많음(평균 3.80), 조절을 잘 못하여 빈번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짐(평균 3.58), 항상 기대어 있고 바르게 앉지 못함(평균 3.33), 눈과 손의 협응이 잘 안됨(평균 3.28) 순으로 높음.

- 과잉행동, 대근육발달, 자세, 협응력에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표 Ⅲ-2-2〉 기본생활, 신체운동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 정도

단위: 점

		평균
기본생활	위험한 행동을 자주함	4.02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나 거부하는 등 편식을 함	3.71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님	3.54
	배변 시기가 지났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3.49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이 어려움	3.37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려고 함	3.30
	어린이집 하루 일과에 적응하지 못함	3.29
	지나치게 청결하여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함	3.04
	어린이집에서 잠자기 어려워 함	3.03
	잘 씻지 않으려고 함	2.94
신체운동발달	움직임이 너무 많음	3.80
	조절을 잘 못하여 빈번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짐	3.58
	항상 기대어 있고 바르게 앉지 못함	3.33
	눈과 손의 협응이 잘 안됨	3.28
	간단한 동작을 따라하지 못함	3.23
	손힘이 약하거나 소근육 조절이 잘 안됨	3.19
	대근육 발달이 느려 운동능력이 떨어짐	3.17
	눈을 자주 비비고, 계속 깜박거림	3.07
	자주 코를 파고 반복적으로 킁킁거림	2.99
	허약한 체질로 움직임이 거의 없음	2.92
	비만이 심하고 움직임이 둔함	2.90

주: 5점 척도 문항임('전혀 필요치 않음' 1점 ~ '매우 필요함' 5점).

기본생활영역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 영아의 경우 위험한 행동을 자주함(55.1%),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나 거부하는 등 편식을 함(30.3%), 배변 시기가 지났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24.8%)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위험한 행동을 자주함(69.6%),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이 어려움(29.7%),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나 거부하는 등 편식을 함(21.7%), 배변 시기가 지났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순으로 높음.

〈표 Ⅲ-2-3〉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기본생활(영아)

단위: %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위험한 행동을 자주함	55.1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나 거부하는 등 편식을 함	30.3
배변 시기가 지났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24.8
어린이집 하루 일과에 적응하지 못함	23.5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님	22.6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이 어려움	15.0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려고 함	12.4
어린이집에서 잠자기 어려워 함	7.7
지나치게 청결하여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함	6.0
잘 씻지 않으려고 함	1.7

〈표 Ⅲ-2-4〉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기본생활(유아)

단위: %

기본생활 영역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위험한 행동을 자주함	69.6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이 어려움	29.7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나 거부하는 등 편식을 함	21.7
배변 시기가 지났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20.3
어린이집 하루 일과에 적응하지 못함	16.7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려고 함	13.0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님	10.1
지나치게 청결하여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함	8.7
어린이집에서 잠자기 어려워 함	6.5
잘 씻지 않으려고 함	2.2

신체운동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 영아의 경우 움직임이 너무 많음(41.6%), 조절을 잘 못하여 빈번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짐(38.1%), 항상 기대어 있고 바르게 앉지 못함(27.7%)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움직임이 너무 많음(47.8%), 항상 기대어 있고 바르게 앉지 못함(29.7%), 대근육 발달이 느려 운동능력이 떨어짐(23.9%) 순으로 높음.

〈표 Ⅲ-2-5〉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신체운동발달(영아)

단위: %

신체운동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움직임이 너무 많음	41.6
조절을 잘 못하여 빈번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짐	38.1
항상 기대어 있고 바르게 앉지 못함	27.7
대근육 발달이 느려 운동능력이 떨어짐	19.0
간단한 동작을 따라하지 못함	16.0
눈과 손의 협응이 잘 안됨	15.2
손힘이 약하거나 소근육 조절이 잘 안됨	13.9
눈을 자주 비비고, 계속 깜박거림	9.1
허약한 체질로 움직임이 거의 없음	6.9
자주 코를 파고 반복적으로 킁킁거림	6.1
비만이 심하고 움직임이 둔함	4.8

〈표 Ⅲ-2-6〉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신체운동발달(유아)

단위: %

신체운동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움직임이 너무 많음	47.8
항상 기대어 있고 바르게 앉지 못함	29.7
대근육 발달이 느려 운동능력이 떨어짐	23.9
조절을 잘 못하여 빈번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짐	23.9
눈과 손의 협응이 잘 안됨	16.7
손힘이 약하거나 소근육 조절이 잘 안됨	11.6
간단한 동작을 따라하지 못함	10.9
비만이 심하고 움직임이 둔함	10.9
눈을 자주 비비고, 계속 깜박거림	10.1
자주 코를 파고 반복적으로 킁킁거림	8.0
허약한 체질로 움직임이 거의 없음	4.3

다. 사회성발달 및 정서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별 요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정도

- 사회성발달영역 중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평균 4.18)이 매우 높고, 소심하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움(평균 3.82), 집단행동을 방해함(평균 3.73), 규칙을 따르지 않음(평균 3.51) 순으로 높음.
  - 공격적인 행동,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거나 방해하는 행동,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 정서발달영역 중 분노를 폭발 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움(평균 3.97), 부주의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많이 나타냄(평균 3.96),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고집 부림(평균 3.88),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분리불안 보임(평균 3.69) 순으로 높음.
  - 감정조절, 산만한 행동, 고집부리는 행동, 애착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표 Ⅲ-2-7〉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 정도

단위: 점

	사회성발달 및 정서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	평균
사회성발달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함	4.18
	소심하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움	3.82
	집단행동을 방해함	3.73
	규칙을 따르지 않음	3.51
	교사나 친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혼자 있음	3.48
	거짓말을 자주함	3.44
	특정 또래를 따돌리거나 놀지 않겠다고 위협함	3.43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함	3.31
	교사를 독점하려고 함	3.26
	친구 물건이나 어린이집 물건을 가져감	3.22
정서발달	분노를 폭발 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움	3.97
	부주의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많이 나타냄	3.96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고집 부림	3.88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분리불안 보임	3.69
	위축되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나타냄	3.67
	손발톱 물어뜯기, 손가락 빨기 등 반복적인 행동을 함	3.50
	자주 우는 행동 보임	3.48
	자위행동을 함	3.39
	기술과 능력부족으로 인한 자신감 없음	3.21
	지나치게 수줍어함	3.13

주: 5점 척도 문항임(전혀필요치 않음 1점 ~ 매우필요함 5점).

사회성달영역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 영아의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함(65.2%), 소심하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움(24.3%), 교사나 친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혼자 있음(22.6%)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함(59.9%), 특정 또래를 따돌리거나 놀지 않겠다고 위협함(35.0%), 소심하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움(24.8%) 순으로 높음.

〈표 Ⅲ-2-8〉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사회성발달(영아)

단위: %

	1+2순위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함	65.2
소심하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움	24.3
교사나 친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혼자 있음	22.6
규칙을 따르지 않음	21.7
교사를 독점하려고 함	15.2
집단행동을 방해함	14.8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함	12.2
거짓말을 자주함	8.3
친구 물건이나 어린이집 물건을 가져감	8.3
특정 또래를 따돌리거나 놀지 않겠다고 위협함	5.7

〈표 Ⅲ-2-9〉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사회성발달(유아)

단위: %

	1+2순위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함	59.9
특정 또래를 따돌리거나 놀지 않겠다고 위협함	35.0
소심하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움	24.8
집단행동을 방해함	18.2
교사나 친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혼자 있음	16.1
거짓말을 자주함	12.4
규칙을 따르지 않음	11.7
친구 물건이나 어린이집 물건을 가져감	8.8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함	8.8
교사를 독점하려고 함	2.2

정서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 영아의 경우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분리불안 보임(46.4%), 분노를 폭발 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움(45.6%), 부주의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많이 나타냄(28.7%)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분노를 폭발 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움(60.3%), 부주의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많이 나타냄(38.3%),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고집 부림(24.1%) 순으로 높음.

〈표 Ⅲ-2-10〉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정서발달(영아)

단위: %

	1+2순위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분리불안 보임	46.4
분노를 폭발 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움	45.6
부주의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많이 나타냄	28.7
자주 우는 행동 보임	20.7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고집 부림	19.4
손발톱 물어뜯기, 손가락 빨기 등 반복적인 행동을 함	13.5
자위행동을 함	9.3
위축되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나타냄	7.2
지나치게 수줍어함	4.6
기술과 능력부족으로 인한 자신감 없음	3.8

〈표 Ⅲ-2-11〉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정서발달(유아)

단위: %

	1+2순위
분노를 폭발 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움	60.3
부주의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많이 나타냄	38.3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고집 부림	24.1
자위행동을 함	19.9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분리불안 보임	14.2
기술과 능력부족으로 인한 자신감 없음	12.1
위축되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나타냄	9.9
손발톱 물어뜯기, 손가락 빨기 등 반복적인 행동을 함	9.2
자주 우는 행동 보임	7.1
지나치게 수줍어함	2.8

라. 언어발달, 인지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별 요구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정도

- 영아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음(평균 3.64), 울음 또는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함(평균 3.57),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치 않음(평균 3.42) 순으로 높음.
  - 영아의 경우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행동,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지 않는 행동, 질문과 지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행동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 유아의 경우 다른 사람 말을 집중하여 듣지 못함(평균 3.81),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려 하지 않음(평균 3.54), 말을 더듬거나 속도와 크기 조절을 어려워함(평균 3.52)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듣지 않는 행동, 말하지 않는 행동,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인지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정도

- 영아의 경우 눈을 마주치지 못함(평균 3.50), 물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하지 않음(평균 3.46), 교사나 또래의 놀이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평균 3.39) 순으로 높음.
  - 영아의 경우 눈맞춤, 물건이나 소리에 대한 반응, 놀이 시 방관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 유아의 경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함(평균 3.76) 이야기나 동화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함(평균 3.53), 일상생활용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함(평균 3.43)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문제해결, 내용파악능력, 도구사용능력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표 Ⅲ-2-12〉 언어발달 및 인지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정도

단위: 점

		언어발달 및 인지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	평균
언어발달	영아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음	3.64
		주로 울음 또는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함	3.57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치 않음	3.42
		상대가 알아듣기 어렵게 발음함	3.36
		그림책이나 글자에 흥미를 보이지 않음	3.14

(표 Ⅲ-2-13 계속)

		언어발달 및 인지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	평균
	유아	다른 사람 말을 집중하여 듣지 못함	3.81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려 하지 않음	3.54
		말을 더듬거나 속도와 크기 조절을 어려워함	3.52
		유행어나 비속어를 자주 사용함	3.43
		쓰기에 관심 없거나 도구사용 적절치 않음	3.32
인지발달	영아	눈을 마주치지 못함	3.50
		물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하지 않음	3.46
		교사나 또래의 놀이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	3.39
		신체 부위를 짚어도 반응이 없음	3.37
		간단한 동작을 모방하지 못함	3.32
	유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함	3.76
		이야기나 동화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함	3.53
		일상생활용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함	3.43
		색깔이나 모양 등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어려워함	3.43
		활동의 순서를 기억하지 못함	3.37
		역할놀이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임	3.35

주: 5점 척도 문항임(전혀필요치 않음 1점 ~ 매우필요함 5점).

언어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 영아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음(58.0%), 주로 울음 또는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함(57.2%),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치 않음(37.2%)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다른 사람 말을 집중하여 듣지 못함(64.6%), 유행어나 비속어를 자주 사용함(39.1%), 말을 더듬거나 속도와 크기 조절을 어려워함(37.5%) 순으로 높음.

〈표 Ⅲ-2-13〉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언어발달(영아)

단위: %

	1+2순위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음	58.0
주로 울음 또는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함	57.2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치 않음	37.2
상대가 알아듣기 어렵게 발음함	27.2
그림책이나 글자에 흥미를 보이지 않음	16.8

〈표 Ⅲ-2-14〉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언어발달(유아)

단위: %

	1+2순위
다른 사람 말을 집중하여 듣지 못함	64.6
유행어나 비속어를 자주 사용함	39.1
말을 더듬거나 속도와 크기 조절을 어려워함	37.5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려 하지 않음	36.5
쓰기에 관심 없거나 도구사용 적절치 않음	20.8

인지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 영아의 경우 눈을 마주치지 못함(48.3%), 주교사나 또래의 놀이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47.1%), 물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하지 않음(46.2%)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함(51.0%), 이야기나 동화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함(38.8%), 일상생활용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함(37.2%) 순으로 높음.

〈표 Ⅲ-2-15〉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인지발달(영아)

단위: %

	1+2순위
눈을 마주치지 못함	48.3
교사나 또래의 놀이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	47.1
물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하지 않음	46.2
신체 부위를 짚어도 반응이 없음	28.2
간단한 동작을 모방하지 못함	25.6

〈표 Ⅲ-2-16〉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인지발달(유아)

단위: %

	1+2순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함	51.0
이야기나 동화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함	38.8
일상생활용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함	37.2
활동의 순서를 기억하지 못함	25.0
색깔이나 모양 등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어려워함	25.0
역할놀이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임	20.4

Ⅳ. 보육교사 지침서 구성 체계

01 총론 및 각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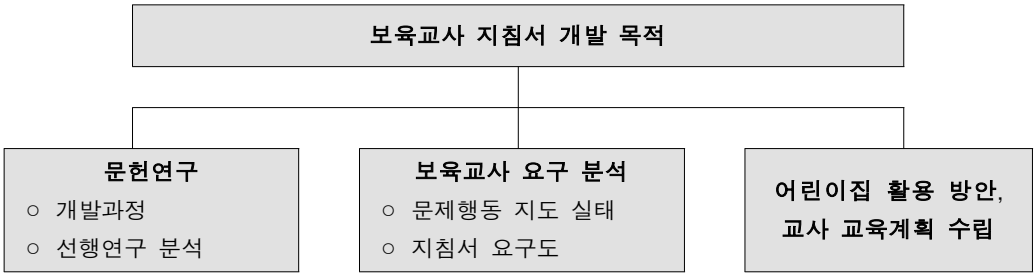
보육교사 지침서는 총론 1권(제1부)과 각론 6권(제2부~제7부), 총 7권으로 구성

- 제1부. 총론
- 제2부. 각론 : 기본생활영역 교사용 지침서
- 제3부. 각론 : 신체운동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
- 제4부. 각론 : 사회성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
- 제5부. 각론 : 정서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
- 제6부. 각론 : 언어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
- 제7부. 각론 : 인지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

02 총론의 구성

제1부. 총론의 구성(그림 Ⅳ-2-1 참조)

- 보육교사 지침서의 개발 목적 및 필요성 제시
-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의 배경 제시
  -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과정 제시
  - 선행 연구 분석
- 보육교사 지침서 활용 및 교육계획 수립
  - 어린이집에서의 활용 방안 제시
  - 보육정보센터(육아지원종합센터)를 통한 교육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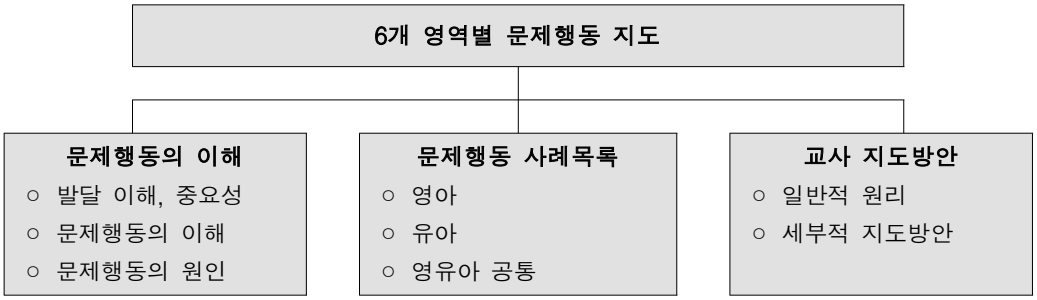
[그림 Ⅳ-2-1] 보육교사 지침서 총론 구성

03 각론의 구성

가. 6개 영역별 문제행동 지도

제2부에서 제7부 6개 영역별 문제행동 지도는 크게 3가지로 구성(그림 Ⅳ-3-1 참조)

- 영역별 문제행동의 이해
  - 영역별 발달에 대한 이해
  - 영역별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 기본생활영역의 경우, 발달영역이 아니라 지도영역에 해당되므로 기본생활 지도의 개념과 중요성과 문제행동 유형별 발달 특성을 제시함.
- 문제행동 사례목록 제시
  - 영역별로 25개~30개 문제행동 사례 제시
  - 사례의 연령 구분(영아, 유아, 영유아 공통)을 기재
  - 사례의 문제행동의 원인에 따른 유형 기재
- 문제행동 지도방안
  - 영역별 지도의 일반적 원리 혹은 중점사항
  - 영역별 세부적 지도방안
  - 사회성발달영역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므로 교사가 문제행동 발생 상황에 즉시 개입하는 '즉각적 개입'과 문제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예방적 접근'으로 나누어 지도방안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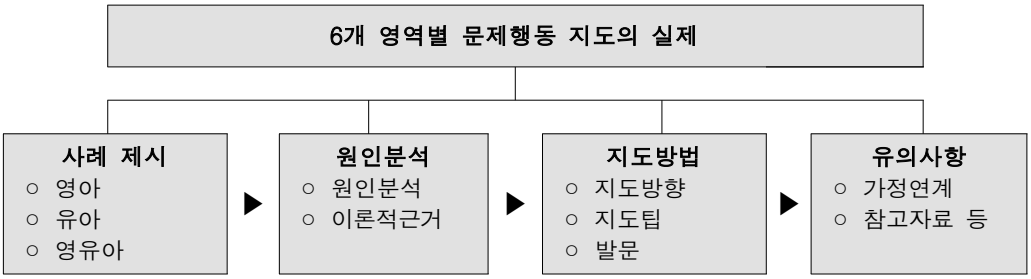
[그림 Ⅳ-3-1] 보육교사 지침서 각론의 구성

나. 6개 영역별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 제2부에서 제7부 6개 영역별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는 크게 4가지로 구성

❖ 영역별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그림 Ⅳ-3-2 참조)

- 문제행동 구체적 사례 제시
-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이론적 근거를 포함)
- 사례에 대한 지도 방법(지도방향, 지도법, 발문)
- 지도시 유의사항(가정연계, 참고자료 등)



[그림 Ⅳ-3-2] 보육교사 지침서 각론 구성

다. 6개 영역별 문제행동 사례목록

☑ 6개 영역별로 문제행동 사례를 25~30개 제시하고 있고, 영아 48개, 유아 78개, 영유아 공통 36개, 총 162개 사례를 수록함.

❖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사례(총 26개 사례, 표 Ⅳ-2 참조)

-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총 25개 사례, 표 Ⅳ-3 참조)
-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총 26개 사례, 표 Ⅳ-4 참조)
-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총 30개 사례, 표 Ⅳ-5 참조)
-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총 28개 사례, 표 Ⅳ-6 참조)
-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총 27개 사례, 표 Ⅳ-7 참조)

〈표 Ⅳ-3-1〉 6개 영역별 문제행동 사례목록수

구분	기본생활 영역	신체운동발달 영역	사회성발달 영역	정서발달 영역	언어발달 영역	인지발달 영역	계
영아	3	5	8	10	11	11	48
유아	0	7	18	20	17	16	78
영유아 공통	23	13	0	0	0	0	36
계	26	25	26	30	28	27	162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8).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

김경희(2012).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유아교육적 접근.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배승민·신동원·이수정(2009).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에서 감정인식능력 및 충동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0(1), 17-2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제2차 표준보육과정 개정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3). 누리과정 가정연계 어린이집 부모지원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2010).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매뉴얼 개발.

송의열·이미자(2001). 유아의 문제행동과 양육태도.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8, 153-177.

안동현(2005). 영유아 정신건강. 제 13회 국제학술대회자료집. 삼성복지재단.

이미화·황혜정·양미선·장혜진·엄지원(2013). 누리과정 가정연계 어린이집부모지원프로그램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홍강의(2005). 발달학적 견해. IN: 소아정신의학, 홍강의 편, 서울: 중앙문화사, 16-37.

황혜정(2006).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 평가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6(5), 339-359.

황혜정·윤명희·강성빈·성낙운·황혜신(2002). 유아용 문제행동 진단검사의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22(1), 73-88.

Campbell, S. B. (2007). 유아의 문제행동 (민성혜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Watamura, S. (2007). Effects of stress on the brain. 제15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삼성복지재단.

제2부. 각 론 : 기본생활영역

Ⅰ.「기본생활영역」문제행동 지도

01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가. 기본생활영역 지도의 개념과 중요성

기본생활의 개념과 내용

- 기본생활은 영유아가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몸에 익히고 지켜야 할 생활 태도를 의미함.
- 영유아 기본생활 지도는 자신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식사, 배설, 휴식, 청결과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안전, 절제, 질서, 예절 등이 포함됨.

영유아기 기본생활 지도의 중요성

- 영유아기는 발달이나 성숙이 급속하게 진행되며 일상생활의 기본습관과 태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임.
- 영유아기에 형성된 기본생활습관은 이후의 신체 발달, 지적 발달, 인격 형성과 사회성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영유아기에 형성된 일상생활의 기본 습관과 태도는 이후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잘못된 습관은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나쁜 습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기본생활습관은 영유아기의 중요한 보육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특히 바른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더 많은 관심과 지도가 요구됨.

기본생활 영역의 문제행동 유형

- 기본생활습관은 영아기부터 형성되는 것이나 문제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은 주로 유아기부터 해당됨.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행동과 지도 방법을 식사, 배설, 휴식, 청결, 공동생활의 5가지 유형, 총 26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나. 기본생활 영역의 문제행동 유형별 발달 특성

식사

- 영유아가 습득해야 하는 식사습관은 균형잡힌 식사습관, 규칙적인 식사습관, 예절바른 식사습관으로 구분됨.
- 영유아는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라 식사능력이 발달함.

〈표 Ⅰ-1-1〉 연령에 따른 식사능력의 발달

연령	식사능력
0~1세	- 모유나 인공유만 하던 영아가 6개월부터 반유동식도 맛볼 수 있게 되며 일정 시간에 이유식을 먹음 - 8개월 이후부터 고형식을 맛볼 수 있게 되면서 수저를 이용해 스스로 먹는 연습을 시작함
1~3세	- 소근육 발달이 이루어져 혼자서도 숟가락이나 포크를 잡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음 - 음식을 스스로 먹는데 즐거움을 느끼지만 아직 음식을 먹다 흘리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다양한 맛을 즐기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아지지만 맛이나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생김
3~4세	- 신체활동량이 많아지고 신진대사와 소화흡수기능이 좋아지면서 식욕이 증가하고 식사량도 늘어남 -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능숙하지는 않음 - 바르게 앉아서 올바른 태도로 식사에 임할 수 있음
4~5세	- 다양한 식사재료나 음식에 대한 이해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관심도 많아지며,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명확하게 알게 됨 - 식사도구 사용도 능숙해지고 다양한 맛과 음식에 익숙해지면서 식사시간을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음 - 식사 규칙이나 예절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음

자료: 이순형 외 (2013). 아동생활지도. 학지사.

배설

- 영유아가 습득해야 하는 배설 관련 과업은 성공적으로 대소변 훈련을 마쳐서 주간,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하여 배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영유아는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라 배설 기능이 발달함.

〈표 Ⅰ-1-2〉 연령에 따른 배설 기능의 발달

연령	배설 기능 발달
0~6개월	- 방광에 소변이 쌓이면 반사적으로 소변을 배설하지만, 소변 보는 간격은 점차 1~2시간 정도 길어짐
6~10개월	- 영아의 방광은 점차 커져서 어느 정도 소변을 참을 수 있음
10~18개월	- 신경 및 뇌가 발달하여 방광의 감각을 느낄 수 있음 - 한두 마디 말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서 대소변 훈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임 - 젖은 기저귀나 옷을 가리키거나 만지며 불편함을 표현함 - 변기에 배설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음
18~24개월	- 방광이 좀 더 커져서 보다 많은 양의 소변을 모을 수 있음 - 대변이 나오는 느낌을 지각할 수 있어서 대소변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대소변과 관련된 간단한 용어를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음
24~30개월	- 소변이 마려워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만큼 방광의 조절능력이 발달하여 스스로 화장실 변기에 가서 소변을 볼 수 있음
30~36개월	- 배설 의사를 표현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음을 말할 수 있으며, 밤에도 소변을 보지 않을 정도의 통제 능력이 생김

자료: 조운주, 최일선 (201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생활지도(제3판). 창지사.

휴식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요구되는 휴식시간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중 1~2시간은 낮잠으로 보충함.
- 영유아는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휴식시간에 차이가 있음.

〈표 Ⅰ-1-3〉 연령에 따른 휴식시간

연령	전체 휴식시간	낮잠시간
2개월 이전	18~20시간	1시간 30분 ~ 2시간
2~6개월	16~18시간	
6~12개월	14~16시간	
1~2세	12~14시간	
3~4세	10~12시간	1시간 ~ 1시간 30분
5세	10시간	30분 ~ 1시간

청결

- 영유아가 습득해야 하는 청결 습관은 자기 몸에 대한 청결과 주변 환경에 대한 청결로 구분됨.

〈표 Ⅰ-1-4〉 청결 습관 지도의 내용

구분	지도 내용
자기 몸에 대한 청결	- 밖에서 놀다가 실내로 들어오거나 식사 전후, 용변 후에 손 씻기 - 식사를 한 후와 잠자기 전에 이 닦기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규칙적으로 목욕하기 - 규칙적으로 손, 발톱 깎기 -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기 - 옷차림을 깨끗이 하고, 속옷 자주 갈아입기 - 용변 후 깨끗이 처리하기
주변 환경에 대한 청결	- 자신의 물건과 사용한 놀잇감 스스로 정리하기 -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놓기 - 휴지 함부로 버리지 않기 - 벽이나 공용 물품에 낙서 하지 않기 - 화장실 등 공공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 영유아는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라 청결 능력이 발달함.

〈표 Ⅰ-1-5〉 연령에 따른 청결 기능의 발달

연령	발달특성
0~2세	- 돌이 되기까지는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르지만, 돌 이후에는 점차 언제 씻어야 하는지를 알게 됨
3세	- 어느 정도 씻는 것에 익숙해지고, 서툴지만 혼자서 양치질을 할 수 있고 손을 닦을 수 있음
4~5세	- 혼자서 양치질과 세수를 할 수 있음

공동생활

- 3세경에 유아는 질서를 이해하기 시작함.
-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 신체 운동 능력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고, 상황 판단 및 대처 기술도 미흡하여 성인들에 비해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많음.
- 안전습관 지도의 내용으로 생활안전, 놀이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대인안전, 약물안전 등으로 구분됨.

02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식사, 배설, 휴식, 청결, 공동생활의 5가지 유형, 총 26가지 사례로 구분됨.
- 영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식사 관련 문제행동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그 외 문제행동은 영유아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에 해당함.

〈표 Ⅰ-2-1〉 기본생활 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구분	번호	문제행동 사례	유형
영아	1	- 이유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A. 식사
	2	- 젖병을 떼지 못하는 경우	
	3	- 공갈젖꼭지에 집착하는 경우	
영유아	4	- 편식 : 고기만 먹고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A. 식사
	5	- 편식 : 과자 등 군것질만 먹는 경우	
	6	-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	
	7	- 잘 먹지 않거나 먹기 싫으면 입에 물고 있는 경우	
	8	-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	
	9	- 스스로 먹지 않는 경우	
	10	- 식사 예절이 부족한 경우	
	11	-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B. 배설
	12	- 잠을 자는 동안 소변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	
	13	- 소변을 참다가 자주 옷에 실수하는 경우	
	14	- 어린이집에서 잠자기 어려워하는 경우	C. 휴식
	15	- 씻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D. 청결
	16	-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7	- 지나치게 청결한 경우	
	18	- 계절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경우	
	19	-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지 못하는 경우	
	20	-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21	-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22	-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23	-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E. 공동생활
	24	-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25	- 어린이집 버스에서 심하게 장난을 치거나 의자에 앉아 있지 않는 경우	
	26	-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03 기본생활영역 교사 지도 방안

기본생활 지도의 일반적 원리

- 영유아의 자율성을 키워주어 영유아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함.
- 잘못된 행동에 대한 꾸중보다는 행동의 의도나 노력에 대한 긍정적 강화 등을 통해 영유아가 스스로 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도록 함.
- 언어를 통한 지시나 훈육보다는 교사가 기본생활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어서 영유아가 이를 보고 배워서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함.
-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개인차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빨리 기본생활 관련 자조능력을 갖추도록 강요하지 않음.
-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지도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효과적임.

식사 지도 방안

-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건강 및 기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지도함.
- 지나치게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는 점, 교사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먹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도록 함.
- 영유아의 식욕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함.
- 무엇보다도 식사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함. 식사시간에 항상 늦게 먹거나 못 먹는 것이 많았던 경험은 영유아로 하여금 식사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심어주고, 영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교사나 부모가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올바른 식습관의 모델이 되어주도록 함.
- 정신적 스트레스가 식욕과 식사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함.

배설 지도 방안

- 배설의 문제는 영유아에게 수치심이나 죄의식 등을 느끼게 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등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배설장애를 보이는 영유아는 정서적으로 쉽게 긴장하고 예민하며 심한 경우 불안 증세를 동반하기도 함. 또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열등감이 있어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거나 놀림당하는 대상이 되기 쉬움.
- 실수한 영유아를 꾸중하여 영유아에게 열등감이나 죄악감, 노여움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되고, 실수한 경우에도 야단을 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영유아를 감정적으로 안심시켜야 함.
- 실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함.
- 배설 실수 시기, 실수 횟수, 실수 장소, 영유아의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문제 상황 및 원인을 명확히 파악한 후 관찰된 결과를 기초로 지도 방향을 설정함.
-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경우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로 삼기보다는 교사가 여유로운 태도를 가짐으로써 영유아로 하여금 편안함을 줄 필요가 있음.
- 배설 관련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소변 훈련을 할 때 어린이집과 가정의 절대적인 협력 하에 일관성 있는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휴식 지도 방안

-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우면 밤잠을 방해한다고 휴식시간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유아는 낮에 충분한 휴식, 즉 낮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고 면역력을 높여주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매일의 생활을 할 수 있음.
- 개별 영유아의 체질 및 생활리듬이나 수면습관을 잘 알고 개별적인 배려를 통해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함.
- 충분한 낮잠시간이 꼭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다른 영유아보다 더 오랜 시간 낮잠 및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해야 하지만, 반대로 낮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낮잠을 강요해서는 안 됨.
- 4~5세 유아의 경우 잠자기 싫어하는 유아를 강제로 재우기보다는 다른 유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유아들이 하루일과 중 필요한 경우는 언제나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고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줌.

청결 지도 방안

- 성인의 관점에서 강제적이고 지시적인 청결 지도를 하기 보다는 영유아에게 청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청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

- 영유아의 개인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함. 영아의 경우 교사가 씻겨주거나 보육실의 놀잇감을 정리해 주는 것이 적절하고, 2세경부터 스스로 해보도록 시도를 격려하며 3세 이후에는 영유아가 먼저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후 교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함.
- 억지로 씻기거나 씻게 하면 청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며, 물이나 비누 등에 대해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씻는 행위를 즐거운 놀이로 여길 수 있도록 함.
- 정리정돈을 하기 쉽도록 환경을 구성하여 영유아가 정리정돈에 대해 지나치게 부담감을 갖지 않고 정리정돈 자체도 놀이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함.

공동생활 지도 방안

- 영유아의 자기중심적 사고 경향을 이해하며 지도함.
- 영유아의 욕구, 발달단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발달에 적합하게 지도함.
- 질서 및 안전규칙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알려주기보다 영유아와 함께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규칙의 내용 인지 및 실천에 더 효과적임.
- 이론중심이 아니라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 안전 지식과 안전한 행동 등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함.
- 시설 설비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영유아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Ⅱ.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01 이유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1개월 여아〉

○○은 이유식 초기에는 먹는 양이 많았다. 이유식 먹는 것도 즐기고, 이유식 중간에 분유도 다른 영아들보다 더 많은 양을 먹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유식을 입에 넣어주어도 먹지 않고 자꾸 뱉어내기만 한다. 분유는 여전히 이전과 비슷한 양을 먹지만 이유식의 경우 양이 이전에 비해 반도 안 되어 보인다. 교사가 주의를 끌며 재미있게 먹여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종류의 이유식이든 숟가락이 입에 닿으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조금이라도 입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뱉어내며 울음을 터뜨린다.

가. 원인 분석

신체적 질병이나 상태

- 입안이 헐거나 구내염이 있는 경우
- 감기 등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특정 영양분 부족으로 인한 식욕 저하
  (육류 섭취가 부족한 경우, 철결핍성 빈혈로 식욕 저하 됨)

이유식 외의 음식량 과다

- 이유식 외에 모유나 우유, 간식의 양이 많아 필요한 에너지가 충족되는 경우

발달과정적인 특성

- 일반적으로 생후 10개월이 넘으면 이전보다 노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부환경에 대한

호기심 증가로 이유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음.

이유식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 먹이는 사람이 먹는 것을 강요하여 힘으로 제압당했거나 억지로 먹었던 경험으로 인한 이유식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나. 지도 방법

영아의 건강상태 점검하기

- 영아의 건강상태로 인해 식욕이 저하된 경우가 아닌지 자세히 관찰하고, 이에 대해 지도가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학적인 원인을 찾도록 함.

이유식 먹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기

- 발달적으로 외부자극에 호기심이 많아진 영아가 이유식 먹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먹는 시간에는 최대한 외부자극(놀잇감, 다른 활동 소음 등)이 없도록 함.

즐겁게 먹도록 하기

- 영아가 이전의 부정적 경험을 잊을 수 있도록 이유식 먹는 시간의 분위기를 전환해보기(음악 들려주기, 식기와 숟가락을 다른 재질로 바꾸어 주기 등)
- 이유식을 숟가락으로 떠먹는 형태 외에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주어, 영아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입에 넣어보며 탐색하도록 하여 음식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기
- 영아가 즐겁게 놀이한 후 기분이 좋을 때 먹도록 하여 먹는 것에 대해 좋은 감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먹는 양 점검하기

- 하루에 섭취하는 이유식, 우유, 간식의 양을 점검하고 기록하여 영아가 먹고 있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조절하도록 함.

다. 유의사항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영아에게 제공하는 이유식의 종류와 조리형태, 질감 등이 월령에 적절한지 점검하기
- 다양한 재질, 색의 식기와 숟가락으로 영아가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기
- 먹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가 먹는 시간에 손으로 집어먹고 숟가락으로 음식을 뜨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 영아가 먹고 싶지 않아할 때는 인정해 주고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보기
- 먹지 않는 것이 지속되어 영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 찾아보기

참고자료

※ 이유식 단계별 형태

구분	월령	이유식 형태
꿀꺽기	4-5개월	수분이 많고 주르륵 흐르는 미음 상태 (사과: 잘게 썰어 삶은 후 으깬 상태)
오물오물기	6-8개월	숟가락을 기울였을 때 뚝 떨어지는 상태 (사과: 0.5cm 네모로 썰어 부드럽게 삶은 상태)
냠냠기	9-10개월	수분이 많고 진득진득한 진밥 상태 (사과: 0.7cm 네모로 썰어 살짝 삶은 상태)
아삭아삭기	12-17개월	약한 불에서 뭉근하게 끓인 진밥 상태 (사과: 1-2cm 네모로 썰어 살짝 삶거나 날것 상태)

자료: 성동구 보건소(2007). 튼튼한 우리 아기를 위한 영양 만점 이유식.

02 젖병을 떼지 못하는 경우

〈20개월 남아〉

○○은 아침에 등원 길에 젖병에 물을 담아 먹으면서 등원한다. 하루 일과 중에도 잠이 오거나 심심한 기분이 들 때면 젖병을 빨고 싶어한다. 간식시간에는 주스나 우유는 컵에도 잘 마신다. 특히 낮잠시간에 잠이 들기 전이나 자고 일어난 후에는 젖병을 찾으며, 없는 경우에는 심하게 울며 불안해한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일반적으로 돌 무렵이 되면 서서히 수유량을 줄이다가 15개월 경에는 완전히 젖병을 떼는 것이 좋음.
- 돌 이후에도 영아가 컵으로 먹거나 빨대를 사용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돌 이후에도 영아가 울거나 보챌 때 무조건 젖병을 주었던 경우

정서적인 불안

-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빠는 것으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나. 지도 방법

젖병 외의 도구 사용 기회 주기

- 젖병 외에 컵이나 빨대 등을 사용하게 하여 젖병이 아닌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먹도록 하기

정서적 안정을 위한 대체물 제공하기

- 낮잠시간이나 불안할 때 젖병을 찾는 경우 젖병 외에 영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물 제공하기(좋아하는 인형, 어릴 때 덮던 이불, 엄마 사진 등)

다. 유의사항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울거나 보챌 때 무조건 젖병 주지 않기
- 밤에 잘 때 젖병을 물고 자지 않도록 하기
- 젖병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빨 수 있는 컵(빨대컵, 스파우트 컵 등)을 제공하여 영아가 빨고 싶어하는 욕구 충족시켜주기

참고자료

※ 젖병과 치아우식증과의 관계

△ 유치 충치 방치하면 영구치와 성장 발육에 악영향 = 유치는 생후 6개월 무렵 아래턱 앞니가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24개월까지 모두 20개나 나온다. 이런 유치는 음식 씹기, 발음, 잇몸뼈와 턱뼈 성장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유치 밑에는 영구치의 싹이 자라고 있어 충치를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치와 잇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충치가 심하면 영양섭취를 방해해 성장발육에도 지장을 준다. 게다가 충치 때문에 유치가 일찍 빠지면 인접 치아들이 빈 공간으로 쓰러져 영구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입모양이 변할 수 있다. '곧 빠질 치아'라고 해서 유치를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유치 관리를 위해서는 처음 이가 난 후 6개월 안에 치과를 방문하고 이후에는 3개월마다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 젖병 물고 잠드는 습관 고쳐야 = 유치의 맨 바깥층 법랑질은 영구치의 절반 두께밖에 되지 않아 당분과 산 등에 쉽게 상한다. 젖병을 입에 물고 자거나 모유수유 중 잠들면 충치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우유병우식증'이라고 한다. 2세 이하 영아의 위쪽 앞니 4개에 주로 생기는 우유병우식증은 우유나 모유가 윗입술과 치아 사이에 고여 윗니 앞쪽부터 이가 하얗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료: 연합뉴스(2013, 3, 15). 젖니 건강.우유병 우식증 막고 치발기는 깨끗하게

03 공갈젖꼭지에 집착하는 경우

〈18개월 여아〉

○○은 공갈젖꼭지를 목에 걸고 등원한다. 하루 일과 중에도 거의 모든 시간에 공갈젖꼭지를 빨고 싶어 한다.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는 시간, 실외에서 신체놀이를 하거나 ○○가 좋아하는 소꿉놀이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공갈젖꼭지를 빨고 있다. 교사가 공갈젖꼭지를 입에서 빼려고 시도하면 이빨로 꽉 물어 못 빼게 하고 빠지는 경우에는 울음을 터뜨리며 힘들어한다. 특히 낮잠 시간,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흥미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공갈젖꼭지 빠는 것에 열중하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습관적으로 입에 물고 있는 공갈젖꼭지를 빼고, 다른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 영아가 울거나 보챌 때 무조건 공갈젖꼭지를 물려주었던 경우

영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절한 외부자극 부족

- 생후 6-7개월까지는 빨고 싶은 욕구가 강함. 그 이후로는 다른 욕구로 옮겨가며 사용 횟수가 줄어듦.
- 영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외부자극이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빠는 욕구가 다른 욕구로의 전이가 어려운 경우

나. 지도 방법

부모와 긴밀히 협조하기

- 가정에서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갈젖꼭지 사용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

영아에게 발달에 적절한 흥미 있는 활동 제공하기

- 영아의 발달이나 흥미수준을 파악하여 영아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하고 지속적인 자극 제공하기
- 영아가 놀이를 못 찾거나 지루한 시간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교사가 놀이를 제안하고 함께하기

다. 유의사항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울거나 보챌 때 혹은 보상의 개념으로 공갈젖꼭지를 제공하지 않기
- 영아가 흥미 있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놀이하고, 대화하면서 영아가 다른 외부자극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도록 하기

참고자료

[잘못된 육아상식] 공갈젖꼭지를 물리면 이점이 많다?

당연히 아닙니다!

공갈젖꼭지를 사용하면 부모들이 아이를 달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아이가 젖을 먹는 사이에 조용해지며 만족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고 엄마들은 자신의 젖꼭지가 공갈젖꼭지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 공갈젖꼭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공갈젖꼭지는 편리한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중이염이 발생하며, 아구창과 충치가 발생합니다. 또한 젖을 빠는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에게는 모유수유로 인한 피임기간이 짧아지고 유선염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유 수유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것은 브라질,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등지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공갈젖꼭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가 젖을 물리는 횟수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자주 공갈젖꼭지를 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공갈젖꼭지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엄마의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부족해서가 먼저일까요?

둘째, 공갈젖꼭지를 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물리게 되면 모유 수유에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젖을 빠는 기술을 공갈젖꼭지 때문에 잘못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직후 젖을 물리지 않고 젖병으로 주었을 때 모유 수유를 실패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아이가 공갈젖꼭지나 젖병의 젖꼭지를 빤다면 아이는 엄마 젖을 물렸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엄마의 젖꼭지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공갈젖꼭지를 사용하면 체중 증가가 늦습니다. 초기에 아이가 공갈젖꼭지를 물게 되면 엄마 젖을 효과적으로 빨지 못하며 이는 아이가 모유를 잘 먹지 못하고 따라서 체중 증가가 늦게 됩니다. 이럴 경우 칼로리와 지방이 많은 후유(後乳)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아이들은 배고플 때 울면 엄마가 젖을 물려야 하는데 공갈젖꼭지를 물고 있으면 배가 고파도 잘 울지 않습니다. 따라서 젖을 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넷째, 공갈젖꼭지는 중이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Pediatric Dentistry에 1999년과 2001년에 실린 논문을 보면 공갈젖꼭지를 사용한 경우 ear infection(중이염)의 발생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갈젖꼭지를 빨면 침이 많아지고 Eustachian tube(유스타키오관)로 많이 전달기 때문이라는 가설과 공갈젖꼭지를 빨면 Eustachian tube(유스타키오관)의 정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구강내 균들이 중이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섯째, 공갈젖꼭지를 사용하면 아구창에 잘 걸립니다. 아구창을 일으키는 진균은 습기가 있는 표면에 적당한 온도에서 잘 자랍니다. 따라서 공갈젖꼭지는 이런 진균을 아이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한 연구에서 candida(칸디다균)의 발생이 공갈젖꼭지를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많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아구창이 생긴 아이가 공갈젖꼭지를 사용한다면 매일 5분간 젖꼭지를 삶아야 하고 치료가 된 1주 후에는 새 공갈젖꼭지를 사야합니다.

여섯째, 공갈젖꼭지는 충치가 발생할 수 있고 치과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공갈젖꼭지를 사용하면 이가 자라는 것과 입의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나중에 치과 교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한 연구에 의하면 공갈젖꼭지를 사용하면 구강내 세균이 늘어나고 이는 충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곱째, 공갈젖꼭지를 사용하면 엄마에게 유선염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젖을 무는 횟수와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아이가 공갈젖꼭지를 규칙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엄마의 모유수유로 인한 피임기간이 짧아집니다. 공갈젖꼭지는 아이의 sucking reflex(빨기반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빠는 시간이 줄어들고 피임과 관련된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오히려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 엄마는 공갈젖꼭지를 아이에게 물리면 됩니다.

자료: 대한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회

04 편식: 고기만 먹고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2세반〉

○○이는 점심시간에 고기 이외의 반찬이 나오면 전혀 먹지 않는다. 특히 채소 종류의 반찬이 나오면 교사가 권유해도 먹어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시도를 하다가도 그대로 뱉어버린다. 고기 반찬에 다른 채소 반찬을 잘 보이지 않도록 섞어 주더라도 입 안에서 다른 감촉이 느껴지면 바로 뱉어낸다. 교사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채소를 삼켰다가도 헛구역질을 하거나 실제로 토하는 경우도 있다.

가. 원인 분석

발달적 특성

- 아기는 성인의 3배 정도 더 많은 수치인 대략 1만 개의 미뢰를 갖고 태어남
- 미뢰가 많아 맛을 더욱 강렬히 느끼게 되는데, 미뢰 수가 줄어드는 8세 이전의 영유아에게 편식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됨.
-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음식 네오포비아가 2~5세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유식의 실패

- 적절하지 않은 질감과 냄새, 조리방법 및 선호하는 음식만을 제공

부모의 양육태도

- 무분별하게 간식을 주거나 원하는 음식만을 제공

부모의 편식으로 인한 다양한 음식 경험 부족

부정적 경험

-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고 구토를 했거나 먹기를 지속적으로 강요당해 위축된 경험이 있는 경우

나. 지도 방법

억지로 먹이지 않기

- 영유아가 먹지 않는 음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에 따른 선호 등을 상세히 관찰함
-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경우 영유아들이 식사시간이나 음식에 대해 거부감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함.
- 영아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음식을 시도할 수 있게 해주거나 조리방법을 바꾸어 영아가 먹는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예) 음식 크기 : 작은 것 → 큰 것
- 유아의 경우에는 음식이 먹기 힘든 이유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의 모양과 색, 자라는 과정 등의 특징과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영유아가 관심을 가지도록 함.
  예) 오늘 먹은 음식 색깔에 맞추어 활동지(무지개색) 색칠하기
- 교사가 채소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스스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하기

- 유아의 경우 또래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먹기 힘들었던 것에 대해 스스로 목표를 세워 보도록 함.
- 교사는 목표를 달성한 것 자체 보다는 유아의 시도 자체를 격려하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는 오늘 당근을 몇 개 먹어볼까요? ○○가 덜어볼래?"
"○○는 브로콜리 먹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직접 덜어온 브로콜리를 다 먹었네요."

채소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 각 계절마다 나는 제철 채소와 과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실의 환경을 구성하고 관련된 활동을 계획함.
- 제철에 나는 채소와 과일을 맛 볼 수 있는 요리 활동이나 맛보기 활동을 실시함
- 어린이집의 텃밭 또는 보육실 내에서 화분을 이용해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키우면서 영유아가 채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화, 노래, 동영상 등을 영유아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은 브로콜리 먹기가 좀 힘들었군요. 선생님이 자세히 보니까 브로콜리가 우리 어린이집 앞에 있는 나무처럼 생겼네요."
"우리 반에 토마토 화분이 생겼어요. 우리가 물도 주고 잘 돌봐주면 정말 먹을 수 있는 빨간 토마토가 열린데요. 우리 반 화분에 열린 토마토는 어떤 맛일까요?"

푸드브릿지(Food Bridge) 기법 사용하기

- 푸드브릿지 기법이란, 같은 재료를 이용해 단계별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여 싫어하는 음식을 친숙하게 만드는 방법
- 싫어하는 음식을 영유아가 좋아하는 데는 최소 8번 이상의 노출이 필요함.

단계	내용	예시
1단계	싫어하는 재료를 놀이도구나 식기로 활용해 시각적으로 친숙하게 만들기	파프리카를 용기로 하여 계란찜 만들기
2단계	재료를 알아볼 수 없게 하되 모양이나 색 등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기	파프리카로 만든 칼국수
3단계	영유아가 거부감을 갖거나 골라내지 않도록 다른 재료와 섞어서 주기	파프리카 고기전
4단계	셰이크나 셔벗 등으로 만들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파프리카 셰이크

다. 유의사항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강요가 식사시간에 계속되다 보면 영유아는 점점 더 해당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지게 됨.
- 어린이집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동일한 목표와 기준으로 지도하도록 함.
- 조리 시 채소를 이용한 육수를 사용하거나 채소를 곱게 다져 좋아하는 고기나 다른 재료와 섞어 조리하는 등 다양한 조리방법을 사용하여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가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하거나 자녀와 함께 식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됨.
- 채소를 썰거나 씻는 등 영유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함.

05 편식: 과자 등 군것질만 먹는 경우

〈3세반〉

○○은 아침에 등원길에도 늘 과자를 먹으면서 등원한다. 간식시간에는 빵이나 주스 같은 단 맛이 나는 간식은 잘 먹지만, 다른 음식은 교사가 권유해도 먹는 시늉만 한다. 그러고도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한다. 부모도 밥을 잘 먹지 않으니 배가 고플 것이라고 생각해 ○○을 데리러 오는 길에 좋아하는 간식류를 사오는 경우가 많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밥을 안먹는 영유아가 안쓰러워 간식을 주거나 영유아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함.

불규칙한 식사습관

- 불규칙한 식사시간이나 장소,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쉽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먹는 경우

나. 지도 방법

간식 양 조절하기

- 간식 양을 조절할 때는 다른 영유아들에게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조리법 조절하기

- 점차 간식을 줄이면서 당이나 나트륨이 많이 든 음식,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 대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고 찌거나 굽는 등의 조리방법을 사용하여 자연식품을 이용한 간식을 먹도록 함.

다. 유의사항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영유아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 '~하면 과자 줄게' 등의 협상을 하면서 과자(군것질)를 협상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
- 과자나 간식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시작하면 영유아는 다시 같은 상황을 만들어 과자나 간식을 상으로 받으려고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음.
-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 당분이나 기름의 섭취가 많아져 점점 더 자연재료로 만든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간식 만들어 주기
- 식재료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찌거나 삶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해 주기

참고자료

※ 간식 선택 방법

△ 간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수분과 무기질, 비타민을 공급해줄 수 있는 식품으로 한다.
- 소화가 용이한 것. 정규 식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유아의 시각적, 미각적 감각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한다.
- 계절 식품으로 신선미가 있는 것으로 한다.

△ 반면에 시판되는 과자, 음료수 등을 간식으로 주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주지 않도록 한다.
- 착색 음료를 많이 사용해 색이 짙은 것
- 인공 감미료, 방부제 등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
- 재료나 제조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
- 제조일자나 생산 회사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것
- 용기나 봉지가 깨끗하지 않은 것
- 위생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

자료: 이영 외(2011). 좋은 부모되기 첫걸음. 굿네이버스.; 허혜경·김성희(2008). 아동발달과 교육. 학지사.

06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

〈3세반〉

○○는 점심시간에 나오는 반찬 중 눈으로 보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먹기 힘들어한다. 그동안 늘 먹었던 김이나 고기 반찬 만으로 밥을 먹기 일쑤이다. 교사가 한번만 먹어볼 것을 권유해도 모양이나 색깔, 질감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며 절대 시도하지 않는다. 결국 낯선 재료로 만들어진 반찬은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가. 원인 분석

발달적 특성

- 3-5세경 좋고 싫음이 분명해지는 발달적인 특성
-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음식 네오포비아가 2~5세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남

부모의 양육태도

- 익숙한 음식만을 선호하는 영유아에게 좋아하는 음식만을 제공한 경우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기 어려움
- 부모의 편식으로 인해 다양한 음식에 대한 경험 부족

음식에 대한 다양한 경험 부족

- 이유식 시기부터 부모가 다양한 재료와 조리방법을 사용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영유아의 음식에 대한 기본적 경험이 부족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영유아의 기질적인 특성

새로운 음식에 대한 이전의 부정적 경험

- 새로운 음식을 먹고 목에 걸렸거나 억지로 먹어서 구역질을 하거나 토한 경험이 있는 경우

나. 지도 방법

영유아의 정서 이해하기

- 영유아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먹기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해 주고, 새로운 것에 대해 교사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나쁜 특성으로 단정 짓거나, 잘 시도하는 영유아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주의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선생님도 멸치를 처음 봤을 때는 먹기 힘들었었는데, 한 입 먹어보니까 바삭바삭하고 짭짤해서 맛이 있었어요."

새로운 음식에 대한 소개하기

- 점심시간에 나온 반찬들에 대해 영유아들의 흥미와 발달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기
- 음식에 쓰인 재료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맛은 어떤 것과 비슷한지, 먹었을 때의 이점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오늘 나온 반찬 중에 이건 이름이 숙주나물이에요. 숙주나물은 모양이 우리가 많이 먹던 콩나물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맛도 비슷할까요?"
"숙주나물은 고소한 참기름이랑 소금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서 만든 거예요."

숨겨진 식재료 알려주기

- 영유아가 먹기 힘들어하는 식재료가 보이지 않게 조리되어 제공된 경우 만약 그 음식을 잘 먹었다면, 다 먹을 때 즈음에 새로운 음식 재료가 영유아가 먹은 음식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영유아는 먹기 힘들었던 재료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고, 스스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오늘 ○○가 스프를 맛있게 먹는구나. 그 스프에는 양파랑 감자가 들어있어요. 양파랑 감자로 이렇게 맛있는 스프를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음식재료를 이용한 활동 실시

- 자르기 전의 채소나 식재료들을 영유아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는 등 감각적으로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기
- 낯선 음식으로 익숙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 다양한 채소를 이용해 도장찍기 놀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색 채소로 그림 그리기, 채소를 소재로 한 동화 들려주기 등의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가능하다면 조리실에서 조리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파프리카는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이네요. 파프리카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가지는 이렇게 길쭉하고 ○○ 옷 색깔이랑 똑같은 보라색이네. 손으로 만져보니까 보들보들하네요."

푸드브릿지(Food Bridge) 기법 사용하기

- 푸드브릿지 기법이란, 같은 재료를 이용해 단계별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여 싫어하는 음식을 친숙하게 만드는 방법
- 싫어하는 음식을 영유아가 좋아하는 데는 최소 8번 이상의 노출이 필요함

단계	내용	예시
1단계	싫어하는 재료를 놀이도구나 식기로 활용해 시각적으로 친숙하게 만들기	파프리카를 용기로 하여 계란찜 만들기
2단계	재료를 알아볼 수 없게 하되 모양이나 색 등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기	파프리카로 만든 칼국수
3단계	영유아가 거부감을 갖거나 골라내지 않도록 다른 재료와 섞어서 주기	파프리카 고기전
4단계	셰이크나 셔벗 등으로 만들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파프리카 셰이크

모델링하기

- 교사가 먹기를 권유만 하기 보다는 교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
- 새로운 음식을 잘 시도하는 영유아와 식사시간에 자리를 가깝게 해주어 또래의 모델링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07 잘 먹지 않거나 먹기 싫으면 입에 물고 있는 경우

〈2세반〉

○○은 무엇이든 잘 먹지 않는다. 등원할 때 무엇이라도 먹이려는 엄마와 씨름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간식시간에는 좋아하는 메뉴가 나오면 적은 양이라도 먹지만 점심시간에는 먹고 싶지 않아하고, 밥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니 입에 음식을 그냥 물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적은 양도 교사가 먹여주면 억지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먹는 양이 적다보니 또래에 비해 키도 작고 체중도 적은 편이며, 감기나 잔병치레가 잦은 편이다.

가. 원인 분석

가족적 경향

- 감각적으로 예민하여 음식의 질감이나 덩어리 혹은 냄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

- 가족적 특성으로 느린 성장패턴을 보이는 기간인 경우 정상적으로 식욕부진이 나타나기도 함.

활동성 낮음

- 잘 먹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활동적인 놀이를 거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부모의 과잉기대

- 영유아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과잉기대로 먹는 것을 지나치게 강요한 경우

이유식 실패로 인한 음식에 대한 거부감

- 이유식 시기에 적절한 크기의 질감이나 식사 분위기, 맛 등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영유아의 경우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음.

먹는 것에 대한 지나친 강요로 식사시간과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나. 지도 방법

영유아의 음식섭취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 영유아의 먹는 양, 선호하는 조리방법, 먹지 않는 이유, 가정에서 음식섭취 정도에 대해 관찰하고, 일주일 정도 영유아가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자세히 기록해보기
  ※ 일주일 정도 기록해보면 대부분은 그다지 적지 않은 양의 음식을 먹고 있음을 알게 됨.

단계별 목표 수립하기

- 영유아의 음식섭취에 대해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단계별 목표 세우기
- 목표는 현재 상황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영유아가 성취감을 느끼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기
- 연령이 높은 유아의 경우 교사와 함께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게 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오늘은 ○○가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한 번 담아볼까요? 밥은 얼마나 담으면 좋을까요?"
"○○가 깨끗하게 다 먹었네요. 다 먹고 나니 기분도 좋아 보이는군요."

음식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 실시하기

-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 관찰하기, 직접 요리하기, 남겨진 밥이 하고 싶은 말 생각해보기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을 경험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
- 보육실 내에 음식과 관련된 자료(계절마다 나는 식재료들의 화보, 다양한 요리 사진, 영유아를 위한 요리책이나 음식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림책 등) 제공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여기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네요. 주황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색깔도 참 여러 가지에요. 손으로 한 번 만져볼까요? 선생님은 냄새도 맡아봐야겠어요."
"선생님이 수수께끼를 낼 거예요. 이 채소는 주황색이고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채소는 토끼가 좋아하는 채소에요. 무엇일까요?"
"그래요. 당근이에요. 당근은 어떤 맛이 날까요? 혹시 당근 먹어본 친구 있나요? 여기 당근이 있는데 손으로 만져보니까 보들보들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네요.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먹을 때 아삭아삭 소리가 나는구나."

다. 유의사항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먹는 것으로 인한 부모와 영유아간의 갈등을 멈추고, 영유아에게 먹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온전히 맡기며 먹고 싶지 않다는 영유아의 몸의 느낌을 인정해 주기
- 식사시간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식기, 주방의 분위기 등)을 개선하도록 함
- 영유아가 직접 사용할 용기를 고르게 하거나 간단한 요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식사준비를 함께 하도록 함.
- 식기의 크기를 큰 것으로 하여 영유아가 음식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 느끼도록 함.
- 식사시간을 즐겁게 느껴지도록 식사시간에 가족 간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부모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시간이 되도록 함.

참고자료

※ 식욕 돋우기

△ 음식의 색 : 음식에 있어서 빨간색은 식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크다. 오렌지색도 빨강색과 함께 식욕을 좋게 한다. 반면 녹색은 안정적인 느낌을 주나 보라색과 함께 식욕을 떨어뜨린다는 사실도 관찰된다. 그러나 빨간색과 녹색, 오렌지색의 조화는 맛을 즐기고 식욕을 돋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배합이다.

△ 주변의 색상
식탁보는 흰색과 빨강색의 큰 체크무늬가 효과가 좋으며, 냅킨이나, 식탁 위의 장식품도 빨간색이나 오렌지색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료: 이영 외(2011). 좋은 부모되기 첫걸음. 굿네이버스.; 덕성여자대학교 부속 유치원(2007). 유아 영양과 요리활동. 창지사.

08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

〈2세반〉

○○는 식사시간에 앉아있기 힘들어 한다.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도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며 자리를 비운다. 혹은 밥을 먹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러 돌아다니기도 한다. 교사가 자리에 앉아서 먹을 것을 알려주면 자리에 앉아 몸을 비비꼬며 힘들어하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잘 먹지 않는 영유아에게 부모가 쫓아다니며 먹여주어 생긴 습관

불안정한 식사분위기와 환경

- 지나치게 긴 식사시간
- 식사시간 중 TV 시청이나 스마트 폰 사용 등으로 인한 식사에 대한 집중력 저하

수동적인 식사시간 경험

- 스스로 밥 먹는 것을 시도할 기회를 주지 않고 먹여주어 식사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경우
- 영유아가 식사시간에 자신이 할 일이 없어져 다른 흥밋거리를 찾아 돌아다니게 됨

나. 지도 방법

식사준비에 참여시키기

- 식사시간에 수저 놓기나 컵 가져다주기 등 크고 작은 준비과정에 영유아를 참여시키기
- 연령이 높은 유아의 경우 유아와 의논하여 식사도우미의 역할을 정하고 차례로 역할을 해보면서 책임감을 가져보도록 하기

친구와 함께 먹기

- 좋아하는 친구와 가깝게 자리를 앉게 하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끝까지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식사시간에 즐겁게 대화나누기

- 식사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식재료와 관련된 이야기나 하루일과 중 재미있었던 일, 혹은 식사 후 있을 흥미로울 만한 시간 등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나누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오늘 쌓기놀이에서 종이블록으로 자동차 길을 길게 만들었었어요. 그 길에 터널도 만들고 주유소도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 놀이를 재미있게 했었어요. 오후 놀이 시간에는 블록으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우리 밥 먹고 나서는 선생님이 '○○○○'이라는 책을 읽어줄 거예요. 그 책에는 아주 큰 괴물이 나오는데 어떤 괴물일까요?"

다. 유의사항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부모가 쫓아다니며 먹이다 보면 영유아는 점점 더 식사시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돌아다니는 행동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쫓아다니며 먹이지 말기
- 기관에서와 동일하게 적은 양을 먹더라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식사시간에 대한 개념이 생성되도록 하기
- 수저 준비하기나 밥이나 반찬 놓기 등의 식사준비에 참여시키기
- 준비 뿐 아니라 마실 물 가져다주기, 다 먹은 그릇 가져다 놓기 등 마무리할 때에도 역할을 주어 식사시간의 시작과 마무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 식사시간에 영유아뿐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이 TV 시청, 스마트 폰 조작, 책보기 등 다른 활동을 함께 하지 말고 식사에만 집중하기

참고자료

- 건강송 동영상: 대구광역시 교육청 제작
-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http://seogu.gwangju.kr/health/): 자료실〉건강증진자료실〉 어린이 건강체험터-재미있는 편식동화
- 서울특별시 식생활 정보센터(www.seoulnutri.co.kr)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정보자료〉분야별정보〉영유아제품정보〉미취학 아동용 영양식생활 교육동영상, 유아식생활과 건강 교재
- 건강한 식생활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한 지역사회영양학회 수행www.mfds.go.kr/nutrition)
- 중앙보육정보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육아정보〉영양정보
-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밥상

09 스스로 먹지 않는 경우

가. 원인 분석

〈3세반〉

○○는 식사시간에 음식을 앞에 두고도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만 할 뿐 교사의 권유에도 스스로 거의 먹지 않는다. 보다못해 교사가 먹여주면 잘 먹지만 스스로 먹기를 권유하면 숟가락을 들고 뜨는 시늉만 할 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 잘 먹지 않는 영유아에게 부모가 쫓아다니며 먹여주어 생긴 습관
- 영유아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먹을 것을 사용하게 하는 양육태도

수동적인 식사시간 경험

- 스스로 밥 먹기를 시도할 기회를 주지 않고 먹여주어 식사하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경우

소근육 조작 미숙

- 소근육 발달이 미숙하여 음식을 스스로 떠먹기 힘들어 시도하지 않음

나. 지도 방법

적은 양부터 스스로 먹기를 시도하게 하기

- 영유아가 적은 양부터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하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오늘 이만큼은 혼자 먹어볼까요?"
"몇 숟가락 혼자 먹어볼까요? 오늘은 다섯 숟가락을 혼자 먹어보자."
"○○가 다섯 숟가락 혼자 다 먹었네요."

스스로 밥 먹기가 익숙해질 수 있는 연계활동 실시하기

- 보육실 소꿉영역에서 음식을 차리고 먹는 놀이를 하면서 스스로 먹기를 연습해 보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우와 오늘 소꿉영역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렸네요. 숟가락도 있네요. 어떤 것부터 먼저 먹어볼까요? ○○은 뭐 먹어볼까요? 숟가락으로 떠 볼까요?"

소근육 발달을 돕는 활동하기

- 소근육 발달이 미숙하여 스스로 먹기를 힘들어 하는 경우 보육실에서 소근육 발달과 협응 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숟가락으로 공 옮겨 담기, 그림그리기, 색종이 접기, 밀가루 반죽놀이, 점토 놀이 등)을 실시하여 참여하도록 함

다. 유의사항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부모가 쫓아다니며 먹이다 보면 영유아는 점점 더 식사시간에 스스로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므로 쫓아다니며 먹여주지 말기
- 기관에서와 동일하게 적은 양을 먹더라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 영유아가 적은 양이라도 스스로 시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족구성원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기

10 식사예절이 부족한 경우

〈3세반〉

○○는 밥을 잘 먹고 가리는 음식도 거의 없다. 그런데 식사시간에 음식을 보면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씹을 때 입을 벌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입에 있던 음식물이 튀어 친구들이 불편해 하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영유아에게 식사시간에 식사 예절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관심함

나. 지도 방법

정확한 한계 제시하기

- 영유아가 부족한 식사 예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이유와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음식이 입에 있는 데 이야기를 하면 입안에 있는 음식이 밖으로 튀어서 다른 친구들 음식에 튀고 기분이 안좋아질 수 있어요. 할 이야기가 있을 때는 입에 있는 음식을 다 삼키고 나서 하기로 하자."

식사 예절 교육하기

- 대집단 시간에 영유아들에게 그림 자료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여 올바른 식사 예절 교육을 실시함.
- 식사 예절에 대한 그림책을 제공함.
- 식사 예절은 각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교육하도록 함.

다. 유의사항

급 간식 시간에 지도할 수 있는 식사 예절의 내용

음식을 먹기 전	·손 씻기 ·의자를 바르게 놓고 주변 정리하기 ·식사준비와 상차림 돕기 ·바른 자세로 앉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음식을 먹는 중	·웃어른에 대한 예절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기 ·그릇과 수저를 바르게 사용하기 ·음식을 잘 씹어먹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기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흘린 음식 주워 먹지 않기 ·밥과 반찬은 고루 먹기 ·식사시간에는 제자리에 앉아있기 ·음식물을 입에 넣고 있을 때는 조용히 먹기 ·적당한 시간 내에 먹고 즐겁게 대화 나누기
음식을 먹은 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식탁과 주변 정리하기 ·사용한 식기 정리하기 ·양치하기

자료: 이순형 외 (2013). 영유아 건강교육. 학지사.

11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2세반, 남아〉 대소변을 가릴 시기가 지났는데도 가리지 못하는 경우

○○는 현재 40개월인데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부모님은 아빠가 늦게까지 기저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괜찮은 것인지 교사에게 물어보곤 한다. 3~4월에는 ○○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대소변 훈련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기에 앉는 것을 싫어하고 변기에 앉아서는 대소변을 보지 못한다. 대소변이 마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옷을 입히면 바로 옷에 실수를 하곤 한다. 반 영아들 중에 ○○만 아직 기저귀를 하고 있어 친구들이 ○○는 아가인지를 물어보기도 하여 내년에 만 3세반이 되기 전에는 기저귀를 떼어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세반, 여아〉 대소변을 잘 가리다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는 이미 1세반 때 24개월 무렵에 기저귀를 떼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옷에 대소변을 누는 등 실수를 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가 얼마 전 동생을 보면서 떼가 늘었다고 걱정을 하시며 ○○가 대소변 실수를 하게 되면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씻겨야 해서 너무 힘들어 자꾸 아이한테 짜증을 내게 된다고 하신다. 교사도 사실 7명의 영아들이 모두 대소변 훈련을 완료한 상황인데 ○○가 대소변 실수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난감하다.

가. 원인 분석

- 배설의 문제는 발육의 지연, 방광 및 괄약근의 기능장애 및 신체적 질환, 유전적인 소인, 심리·정서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함. 이중 실제 신체적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김.

- 가족력
  - 가족력이 있을 때 배설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족 중에 늦게까지 대소변 실수를 한 사람이 있다면 영유아도 비슷한 경우일 확률이 높음.
  - 즉 유전적으로 방광통제 능력이 천천히 발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아들이 여아에 비해 2대 1 수준으로 발생률이 더 높다고 보고됨.

신체적 요인

- 방광이나 항문, 대장의 신체적 문제가 있는 경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함.

너무 이르거나 강압적인 대소변 훈련

- 영유아가 아직 생리적으로 대소변을 가릴 만큼 성숙하지 못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찍 대소변 훈련을 시작한 경우 처음에는 대소변 훈련에 성공해서 대소변을 잘 가리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다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 지나치고 엄격하게 대소변 가리기를 강요할 때 무의식적으로 배설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 때 꾸중을 하면 더욱 심해질 수 있음.
- 대소변 훈련을 안 시키고 무관심한 경우에도 습관이나 훈련 부족으로 배설 관련 부적응 행동이 생기기도 함.

환경 변화

- 동생의 출생, 어린이집 입학, 부모의 불화, 이사, 가족의 사망 등 환경적 변화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특히 동생의 출생으로 대소변을 잘 가리던 영유아가 퇴행하여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기도 하는데 이는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되찾으려는 심리작용으로 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실수를 한 경우에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 영유아의 실수 그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영유아가 갑자기 대소변을 보아 옷을 더럽히더라도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함.
- 대소변 실수 시 교사가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면 영유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음.
- 실수를 한 영유아 및 또래들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임을 인식시키고 실수를 한 영유아를 독립된 공간에서 빨리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 주어 정서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응, 오늘은 똥이 그냥 나와 버렸구나. 선생님이 얼른 치워 줄게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하고 옷 갈아입자."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큰 소리로) 아유, 얘가 또다시 똥을 쌌네!"
"○○, 너 선생님 힘들게 하려고 작정했니? 잘 가리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여유롭게 대처하기

- 교사는 잘 되던 대소변 훈련이 갑자기 망쳐진 것 같아 속이 상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은 다시 조급하게 대소변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됨.
- 영유아를 다그친다고 해서 빨리 대소변을 가리게 되는 것은 아님.
- 교사가 조급해지면 아이도 불안해하므로 영유아가 대소변을 잘 가리던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교사부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함.

영유아의 배설물을 더럽다고 하지 않기

- 대소변 훈련을 시작하는 두 돌 무렵의 영유아들은 대변을 자신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함.
- 교사가 자신의 대변을 보고 인상을 쓰거나 지저분한 것을 보듯 하면 영유아는 자신의 몸의 일부를 더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 상처를 입음.
- 교사는 바로 변기의 물을 내리기 보다는 영유아의 대변에 대해 칭찬하고 영유아로 하여금 물을 내리게 하는 것이 좋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건강한 똥을 누었구나. 우리 ○○가 밥과 채소를 잘 먹어서 그런가 보구나."
"와, 오늘은 긴 똥하고 동그란 똥을 누었네요."
"응아야, 안녕~하고 우리 ○○가 물 내려 보겠니?"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아이, 더러워!"
"(코를 막으며) 와, 냄새가 지독하다. (얼른 변기의 물을 내린다)"

영유아의 성공에 대해 적극적 칭찬하기

- 영유아가 실수하지 않고 변기에 성공적으로 대소변을 본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칭찬을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가 오늘 바지에 쉬를 하지 않고, 변기에 쉬를 했구나. 참 잘했어요."
"바지에 쉬를 하지 않으니까 축축하지 않고 좋지요? 다음에도 변기에 잘 해보자."
"변기에 똥을 잘 누었네. 정말 멋지다."

스트레스 요인 제거하기

- 동생이 생기거나 부모에게 혼나는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시켜 주고 영유아를 따뜻하게 수용해 줌
- 동생이 태어나서 일시적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생이 예쁜지 물어보거나 동생을 예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동생이 미숙한 존재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꼭 안아주며) 선생님은 우리 ○○가 세상에서 제일제일 좋더라."
"○○는 쌩~하고 무척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아가는 아직도 기어 다니지요."
"다음에는 똥 마려우면 선생님한테 조금 더 일찍 말해주렴."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는 아가 아니지요. 동생처럼 기저귀 할 거에요?"
"○○ 기저귀 다시 하고 동생반에 가야겠다."

규칙적으로 대소변을 보도록 지도하기

-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대소변을 보게 하는데, 2~3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도록 하고 낮잠을 자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얘들아, 우리 바깥놀이 가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자!"

화장실을 영유아가 친근하게 느끼도록 만들기

- 대개 화장실은 춥고 캄캄해 영유아들이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을 영유아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함.
- 화장실을 환하고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가 대소변을 보면서 좋아하는 인형을 만질 수 있도록 화장실에 인형을 놓아두는 것도 좋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화장실에서 좋은 냄새가 나네요. 우리 ○○, 변기에 앉아서 똥을 누어보자."
"아, 화장실이 조금 무섭구나. 선생님이 가지 않고 ○○앞에서 손잡고 있을게요."

전문가의 진단 및 신체적인 문제해결하기

- 방광이나 항문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함.
- 계속해서 배설습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여 지도하도록 함.

다. 유의사항

- 보통 생후 3년이 되면 유아들은 대부분은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되지만, 그 이후에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4~5세까지는 가끔 실수를 한다고 해서 꼭 병적인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함.
- 배설 관련 문제행동은 다음과 같이 유뇨증, 유분증, 야뇨증으로 구분되는데, 일시적으로 대소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후부터 4세 또는 5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소변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만 유분증, 유뇨증이라고 함.

〈표 II-11-1〉 배설 관련 문제행동

- 유뇨증 : 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밤과 낮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 유분증 : 4세가 지나 대변을 가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못하는 경우
- 야뇨증 : 1주일에 2번, 3개월 이상 지속해서 밤에는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 배설 관련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달적으로 준비가 된 시기에 바람직한 방향을 대소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표 II-11-2〉 배설 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대소변 훈련 방법

- 혼자서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간단한 옷을 입힘
- 영유아가 배설의사를 밝히면 즉시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해줌
- 대소변이 이루어지는 동안 약속된 의사소통 기제를 적절하게 사용함. 옆에서 '쉬'라고 발음해 주거나, 함께 힘을 주는 흉내를 내며 '응가'라고 말하는 것은 대소변을 쉽게 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됨
- 영유아의 시도와 노력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반응과 격려를 함. 실수를 했을 지라도 다음 번에는 잘 할 수 있을 거라며 격려를 해 주어야 하며 벌을 주어서는 안 됨. 벌을 주게 되면 영유아에게 심리적 상처가 되어 이후 강박신경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유아용 변기 및 깔개를 마련해 주고 밝고 쾌적하며 아늑한 화장실 분위기 조성을 통해 영유아가 대소변을 보는 것을 즐거운 활동으로 여길 수 있게 함
- 대소변을 보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제공하여 대소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함
- 보육실과 화장실 사이를 개방시켜 놓아서 영유아들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 교실의 활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12 잠을 자는 동안 소변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

〈4세반, 남아〉

○○는 두 돌 무렵부터 낮에는 대변과 소변을 모두 가리게 되었지만, 만 5세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밤과 낮잠 동안에 소변 실수가 잦다. 가정에서는 밤 시간이 길다보니 기저귀를 차고 재우는 경우도 많고, 아이가 기저귀 차는 것을 너무 싫어하면 그냥 재우기도 하는데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이불 빨래를 한다고 한다. ○○ 부모님은 그동안 ○○가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뒤처리를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18개월이 지난 동생이 기저귀를 떼기 전에 ○○가 먼저 밤에 소변을 가려야 할 것 같아 이제는 조금 마음이 급해진다고 한다. ○○는 어린이집 낮잠시간에도 가끔 실수를 하는데, 낮잠을 적게 잘 때는 다행히 실수가 적지만 많이 피곤한 날은 소변 실수를 한다.

가. 원인 분석

배설의 문제는 발육의 지연, 방광 및 괄약근의 기능장애 및 신체적 질환, 유전적인 소인, 심리·정서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함. 이중 실제 신체적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김.

가족력

- 가족력이 있을 때 배설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족 중에 늦게까지 대소변 실수를 한 사람이 있다면 영유아도 비슷한 경우일 확률이 높음
- 태어난 이래 줄곧 자면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주로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경향이 있어서 양쪽 부모가 그러한 경우 자녀도 그러할 확률이 80%, 한쪽 부모만 그러한 경우 자녀도 그러할 확률이 44%라고 함.

신체적 요인

- 방광염, 신염, 당뇨 등이 있는 경우 잠을 자는 동안에 소변을 가리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함.

너무 이르거나 강압적인 대소변 훈련

- 영유아가 아직 생리적으로 대소변을 가릴 만큼 성숙하지 못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찍

대소변 훈련을 시작한 경우 처음에는 대소변 훈련에 성공해서 대소변을 잘 가리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다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 대소변 훈련을 안 시키고 무관심한 경우에도 습관이나 훈련 부족으로 배설 관련 부적응 행동이 생기기도 함.

환경 변화

- 동생의 출생, 어린이집 입학, 부모의 불화, 이사, 가족의 사망 등 환경적 변화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특히 동생의 출생으로 대소변을 잘 가리던 영유아가 퇴행하여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기도 하는데 이는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되찾으려는 심리작용으로 볼 수 있음.

잠자기 전 수분 과량 섭취

- 잠자기 전에 물이나 음료를 마시거나 수분을 많이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면 잠자는 동안 소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

성적 만족 추구

- 잠을 자면서 소변 실수를 하면서 영유아는 성적 쾌감을 얻으며, 그 쾌감이 강화됨으로써 증상이 습관화되기도 함.

나. 지도 방법

편안한 마음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 영유아가 일부러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동안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면 그 느낌을 인지하고 깨어나야 하는데 이러한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벌을 주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체벌을 해서는 안 됨.
- 특히 또래와 함께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잠 자면서의 소변실수가 큰 수치심을 가져와 자칫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유아가 소변가리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실수를 한 영유아 및 또래들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임을 인식시키고 실수를 한 영유아를 독립된 공간에서 빨리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 주어 정서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하고 옷 갈아입자."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큰 소리로) 아유, 다 큰 형아가 자다가 쉬를 싸면 어떻게 해요?"

영유아의 성공에 대해 적극적 칭찬하기

- 영유아가 실수하지 않은 경우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칭찬을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가 쉬가 마려워서 자다가 일어났구나. 잘했어요."

스트레스 요인 제거하기

- 동생이 생기거나 부모에게 혼나는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시켜 주고 영유아를 따뜻하게 수용해 줌.
- 동생이 태어나서 일시적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생이 예쁜지 물어보거나 동생을 예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동생이 미숙한 존재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꼭 안아주며) 선생님은 우리 ○○가 세상에서 제일제일 좋더라."
"○○는 쌩~하고 무척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아가는 아직도 기어 다니지요."
"다음에는 똥 마려우면 선생님한테 조금 더 일찍 말해주렴."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는 아가 아니지요. 동생처럼 기저귀 할 거에요?"
"○○ 기저귀 다시 하고 동생반에 가야겠다."

- 잠자기 전 수분 섭취 줄이고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도록 지도하기

- 전문가의 진단 및 신체적인 문제해결하기
  - 방광 등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함.
  - 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잠을 자는 동안에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여 지도하도록 함.

다. 유의사항

- 보통 생후 3년이 되면 유아들은 대부분은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되지만, 그 이후에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4~5세까지는 가끔 실수를 한다고 해서 꼭 병적인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함.

- 자면서 소변실수를 하는 것은 영유아에게 신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영유아가 더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됨.

- 배설 관련 문제행동은 다음과 같이 유뇨증, 유분증, 야뇨증으로 구분되는데, 일시적으로 대소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5세 이후에도 잠을 자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를 야뇨증이라고 하며, 4세 이전의 것은 야뇨증이라고 하지 않음.

〈표 II-12-1〉 배설 관련 문제행동

- 유뇨증 : 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밤과 낮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 유분증 : 4세가 지나 대변을 가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못하는 경우
- 야뇨증 : 1주일에 2번, 3개월 이상 지속해서 밤에는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13 소변을 참다가 자주 옷에 실수하는 경우

〈4세반, 여아〉

○○는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인 유아이다.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놀이에 흠뻑 빠져 놀이를 주도하고 또래들 간에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놀이를 하다가 소변이 다급해져서 교사를 부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스타킹이라도 입고 온 날은 옷을 내리는데 시간이 더 걸려서 교사와 유아 모두 마음이 더 급해진다.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잘 되지 않는다. 결국 참지 못하고 살짝 옷에 소변을 지리는 날도 여러 번 있었는데, 어제는 옷이 흠뻑 젖어 결국 ○○가 엉엉 울어 버렸다.

가. 원인 분석

소변을 참다가 자주 옷에 실수하는 것은 소변이 찰 때까지 참았다가 싸는 경우를 말함.

주된 발생 시기

- 대소변 훈련이 잘 되지 않는 초기 경우에는 적고, 배설이 자립화 되었다고 생각하는 3~5세 즈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놀이 집중으로 인한 소변 실수

-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한 가지에 열중하면 다른 것에 주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소변을 참다가 옷에 실수하는 경우는 놀이를 하거나 무엇에 너무 열중해서 화장실에 가지 않는 경우에 자주 발생함.
- 배설 습관이 미숙하기도 하지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부주의에서 오는 실패일 가능성이 높음.

나. 지도 방법

영유아가 소변을 마려워하는 징후 파악하기

- 영유아들은 소변이 마려우면 특징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므로, 교사는 영유아가 소변이 급할 때 어떤 징후를 보이는지 관찰을 통해 파악하도록 함.

▶ 소변이 급한 징후

평소보다 빠르거나 느리게 말하기, 말 더듬기, 발 동동 구르기, 다리 꼬기,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성기 주변에 손을 대거나 잡고 있기

소변이 마려운 모습이 보이면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안내해주기

-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영유아가 소변이 마려운 것을 느끼면서도 놀던 것을 중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안내해 줌.
- 이때 다른 영유아에게 들리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으며 영유아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영유아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다른 친구가 놀잇감을 가져갈 것이 걱정되어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놀잇감은 교사에게 맡길 수 있고 놀이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음을 이야기해주어 안심하고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도움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급히 옆에 가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야, 화장실에 가렴"
"(놀이에 집중해 있는 영유아에게) 화장실 빨리 다녀와서 다시 놀이하자."
"놀잇감이 걱정되서 그래요? 선생님에게 맡기고 다녀오려무나."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멀리서 큰 소리로) ○○야, 그렇게 참다가 쉬 싸겠다. 얼른 화장실 가세요."
"지난번처럼 또 쉬 싸려고 그러니? 얼른 화장실 다녀오세요."
"쉬 자꾸 참으면 고추 아파져요."
"이 놀잇감이 니꺼니? 다른 친구들도 놀이할 수 있는 거야."

대소변 실수를 혼내기 보다는 안심시켜 주기

- 영유아 자신도 대소변 실수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자신도 놀라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어린이집에서도 다른 영유아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화제에 오르는 경우도 있음.

-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리를 지르지 말고 즉시 영유아를 별실로 데리고 가서 하의를 갈아입히고 안심시키면서 괜찮다고 말해 주어야 하며 더러워진 하의를 집에 가져가게 할 경우 다른 영유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잘 싸서 가져가도록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음.
- 조롱당하거나 비난당하면 기가 약한 영유아는 그 후 매우 긴장해서 자주 화장실에 가는 요의빈발(尿意嚬發)이라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되, 화장실 다녀오기를 강요하지 않기

- 놀이에 집중하면 화장실 가기를 어려워하므로 하루일과 중 전이시간 등을 이용하여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음.
- 하지만 무조건 그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강요하기 보다는 소변이 마렵지 않다고 말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얘들아, 간식 다 먹은 친구들은 화장실 다녀와서 놀이를 시작하자."
"(유아가 쉬가 안나온다고 말할 때) 쉬가 안마렵구나. 그럼 놀이하다가 쉬가 마려우면 선생님한테 다시 이야기하렴."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유아가 쉬가 안나온다고 말할 때 강요하는 목소리로) 바깥놀이터에 나갔다가 쉬 마려우면 다시 교실에 들어와야 해. 그러니까 지금 쉬해."

다. 유의사항

소변을 참다가 옷에 실수를 하는 것은 문제행동이라고 보기 보다는 영유아의 발달특성상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유아가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열중하는 놀이가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임.

다만 옷에 실수를 하게 되면 영유아가 수치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부모도 이런 영유아를 나무라지 말고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고 안심시켜 주어야 함.
- 영유아가 빨리 그 일을 잊도록 가정에서 반복해서 말하지 말아야 하며 가정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조그만 소리로 주의를 주어 영유아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음.
- 급할 때 가능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된 바지 같이 스스로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히도록 하고, 실수에 대비하여 여벌옷을 어린이집에 보내도록 함.

14 어린이집에서 잠자기 어려워하는 경우

〈2세반〉

○○은 낮잠시간이 되어 다른 또래 친구들이 모두 자리에 누운 뒤에도 눕고 싶어하지 않으며 보육실 안을 돌아다닌다. 교사가 권유하면 겨우 이불에 눕기는 하지만 누워서 칭얼거리거나 옆 친구를 건드리며 장난을 치기도 한다. 교사가 함께 누워 재워 주려고 하면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물어뜯으며 손장난을 하거나 교사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잠들지 않으려 한다.

가. 원인 분석

낮잠 분위기 조성

- 보육실의 조명이나 소음 등 분위기가 낮잠을 자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민한 기질의 영유아가 잠자기 힘들어할 수 있음.

기질적 특성

- 영유아가 기질적으로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

정서적 문제

- 영유아는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자야 할 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지원하기

-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에서 영유아가 잠을 잘 때 행하는 특별한 행동이나 분위기 등에 대해 정보를 얻기
- 가능하다면 가정에서와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거나 애착물을 가져오게 하여 영유아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ㅇㅇ가 아기였을 때 덮었던 이불이구나. 우리 이 이불 덮고 코 잘까요?"

낮잠시간 보육실 내의 분위기 점검하기

- 조명이나 소음, 적절한 온도와 습도 등 영유아의 낮잠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 지 점검하고, 방해요소가 있다면 개선하기

융통성 있는 낮잠시간 운영하기

- 영유아에게는 하루일과 중 낮잠시간 혹은 휴식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질적으로 낮잠을 자기 힘들어하는 영유아에게 자지 않더라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른 영유아들의 낮잠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낮잠시간에 시간을 정해두고(예를 들어 낮잠시간 시작 후 30분),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자지 않더라도 조용히 누워 휴식할 수 있도록 하기

다. 유의사항

참고자료

유아의 경우 매일 충분한 낮잠을 자야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매일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잠에 빠져드는 시간, 잠자는 자세, 잠잘 때 필요한 요구, 잠자는 시간, 잠에서 깰 때의 기분상태 등은 개인차가 매우 크다. 교사는 개별 유아의 이러한 습관을 잘 알고 개별적인 배려를 최대한 해주어야 한다. 잠을 자기 위해서 커튼을 쳐 빛을 차단하고 조용한 음악으로 소리를 조절하며 온도와 습도를 적당히 유지하여 편안한 낮잠 분위기를 조성한다. 빨리 깨어난 유아가 다른 유아의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한 놀이를 하도록 한다.

유아들이 하루일과 중 필요한 경우는 언제나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고 쉴 수 있도록 따듯한 배려를 해 준다. 휴식은 유아가 긴 하루일과 중에서 중간중간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활기차게 다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매일 일정하게 휴식하는 시간을 정하되 개인차, 하루일과의 특성, 견학, 날씨 등을 고려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2013).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총론.

15 씻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세반, 남아〉

○○는 교사가 얼굴에 물을 묻히려고 하면 울음을 터뜨린다. 거울을 보여주며 음식을 먹어서 얼굴이 지저분해졌음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천천히 씻어주려고 해도 물만 닿으면 자지러진다. 그래서 얼굴이 깨끗해지기보다는 다시 눈물과 콧물로 더 지저분해지기 일쑤다.

〈4세반, 여아〉

○○는 매우 활동적인 유아로 겨울에도 온몸이 땀이 흠뻑 나도록 뛰어다니며 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문제는 ○○가 잘 씻지 않고 어린이집에 온다는 것이다. 여름은 물론이거니와 겨울에도 머리에서 쉰내가 나고 끈적끈적해서 낮잠 후에 머리를 묶어주고 나면 교사의 손에서도 냄새가 날 정도이다. 한참 예쁜 것과 공주 옷을 좋아하는 일부 여자 친구들은 ○○에게 냄새가 난다며 잘 놀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다.

가. 원인 분석

청결의 필요성 인식의 어려움

- 청결 습관은 영유아에게 인식시키기 어려운 요소를 갖고 있는데, 영유아들에게는 청결에 대한 특별한 욕구가 없고 깨끗하다고 해서 기분이 좋다는 자각도 없음.
- 따라서 청결함으로 인해 기분이 좋다는 체험이나 청결 때문에 칭찬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더러워지는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음.

부모의 양육방법

- 대개 씻는 것을 싫어하는 영유아들의 경우 부모가 재미있게 노는 것을 중단시키고 씻기를 강요했거나 씻고 싶지 않을 때 강제로 씻기기를 반복했을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씻는 것은 영유아들에게 고역일 뿐임.
- 어떤 영유아는 씻을 때 눈에 비누가 들어간 바람에 씻는 것을 싫어하게 된 경우도 있고 눈을 감고서 숨을 참아야 하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얼굴이 물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음.
- 부모가 청결에 대해서 지도를 하지 않고 무관심해서 씻지 않는 것이 위생이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잘 씻지 않으려고 할 수 있음

가정의 물리적 환경

- 욕실이 춥거나 온수공급이 잘 되지 않는 가정인 경우 영유아들이 씻는 것을 불편해하고 잘 씻지 않을 수 있음.

영유아의 정서 상태

- 영유아가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옷을 더럽히거나 지저분한 놀이를 하면서 해소하고자 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더럽히는 경우가 있음.

나. 지도 방법

청결 습관 관찰하기

- 영유아의 청결 습관 지도를 위해서 우선 교사는 영유아가 언제 씻는지, 하루에 몇 번 씻는지, 씻기 전후 영유아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청결 습관 관찰지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

씻어야 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 영유아에게 왜 몸을 씻어야 하는 지를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ㅇㅇ야, 손은 이것저것 만지거나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더러운 세균이 많이 묻어 있단다."
"손을 깨끗이 씻으면 세균이 우리 몸 속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한대요."
"(손 씻기 전 후의 세균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 보세요, 손을 씻기 전에는 세균이 이렇게 많았는데, 손을 깨끗이 씻고 나니까 많이 줄어들었지요."

규칙적으로 씻는 경험 제공하기

- 어린이집 일과가 진행되는 동안에 규칙적으로 씻는 경험을 제공함. 즉 밖에서 놀다가 실내로 들어올 때, 식사 전후나 대소변 후에는 손을 씻도록 하고, 식사 후에는 이를 닦도록 함.
- 규칙적으로 씻기를 할 때 영유아에게 사전 예고를 할 필요도 있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이제 조금 있으면(시계 바늘이 5에 가면) 놀이를 마치고, 손 씻으러 갈 시간이 된단다."

놀이로 접근하기

- 영유아들에게는 씻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억지로 씻기면 씻는 것을 거부하고 물이나 비누 등에 공포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놀이로 접근하여 씻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함.
- 영유아용 칫솔과 치약, 매력적인 양치 컵, 영유아의 키에 적절한 세면대, 소독기, 온수 등 청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항상 편리하고 청결한 상태로 준비함.
- 세면대 앞에 손 씻는 방법을 단계별로 그린 그림카드나 사진을 붙여 스스로 씻을 수 있도록 도와줌.

긍정적 언어로 지도하기

- 영유아의 더러운 상황이나 씻는 행동을 할 때 가능한 긍정적 언어로 지도하도록 함
- 영유아가 습득하기를 원하는 기술을 작은 단위로 세분화해서 나누고 매번 한 단계씩 긍정적이고 명확한 지시로 가르쳐 줌. 이 때 영유아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중단해야 하는 행동을 명령어나 지시어로 말하지 않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손에 물을 묻히고 나면, 비누를 묻혀 거품을 내는 거지요."
"손 씻기가 다 끝났으면 이제는 손을 말려야 할 차례에요."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아이, 더러워. 또 더렵혀졌구나."
"온 몸이 밥풀 투성이구나."
"어유, 손이 새카매졌네.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하겠다."
"손바닥으로 물 뿌리지 말아요."

영유아의 정서 이해하기

-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신과 주위를 더럽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서 영유아가 가진 불만을 파악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애정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함.

교육활동을 통해 지도하기

- 교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청결 습관에 대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도함과 동시에 청결 습관이 왜 필요한 지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동화나 이야기 나누기, 토의 등의 활동을 활용할 수 있음.
- 하루일과 속에서 반드시 씻어야 하는 때를 표를 만들어 제시하고, 씻은 경우 해당 칸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됨.

여벌 옷 준비하기

- 손을 씻거나 양치하는 과정에서 옷을 적실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갈아입힐 수 있도록 부모에게 여벌옷을 준비하도록 하여 개인장에 비치하도록 함.

다.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력으로 흙장난이나 물놀이 등의 놀이에 흥미를 갖는

시기이므로 영유아들이 쉽게 더렵혀지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손 씻기, 세수하기 등을 놀이로 즐겁게 받아들임.

- 영유아에 따라 씻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여 잘 씻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점차 성장하면서 청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음.

- 다른 영유아에 비해 특히 지저분하거나 씻지 않으려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정확한 원인 파악을 근거로 한 적절한 지도가 요구됨.

- 잘 씻지 않으려고 하는 영유아에게는 무엇보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 때 영유아 스스로 행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결 습관은 한번 또는 몇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상생활 중이나 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도하도록 함.

- 연령에 따른 청결 습관 지도 방법

〈표 II-15-1〉 연령에 따른 청결 습관 지도 방법

연령	지도 방법
0~2세	-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식사 전후로 손을 닦아 주어 물과 친해지게 하고, 식후에는 잇몸을 닦아 줌 - 규칙적으로 손과 얼굴, 몸을 씻어 주어 언제 씻는 것인지를 알려줌
3세	- 스스로 씻는 것을 시도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해 줌 - 뒷마무리는 교사나 부모가 해주는 것이 좋음
4~5세	- 서툴더라도 혼자서 닦게 하는 것이 좋지만, 뒷마무리는 교사나 부모가 해 주는 것이 좋음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세수, 샤워, 목욕 등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관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규칙적으로 샤워나 목욕을 하도록 함

16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세반, 여아〉

○○는 14개월에 접어드는데, 이가 빨리 나서 벌써 어금니까지 다 났다.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심식사 후 낮잠 전 양치질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는 양치질을 무척 싫어한다. 액상치약은 과일향이 나서인지 쪽 잘 빨아먹기는 하는데, 칫솔질을 하지를 않으려고 한다. 이를 닦자고 하면 어느새 도망가 버리거나 손으로 입을 막고 울어버린다. 영아를 이렇게 울리면서 닦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그렇다고 양치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이지 양치시간이 전쟁 같다.

가. 원인 분석

부모나 교사의 이 닦기 지도 방법에 따른 부정적 경험

- 영유아들은 양치질을 대개 싫어하는데 교사나 부모들은 억지로라도 이를 닦이려고 하여 영유아들은 교사나 부모가 강제로 이를 닦일수록 점점 더 이 닦는 것을 싫어하게 됨.
- 교사나 부모의 지나친 깔끔함 때문에 영유아의 이를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준다고 잇몸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함. 이가 깨끗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영유아는 잇몸이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칫솔질을 싫어할지도 모름

나. 지도 방법

이를 닦는 것이 영유아에게 어려운 일임을 이해하기

- 거품이 나는 치약을 입안에 물고 칫솔을 움직여야 하는 것 등이 모두 영유아에게 어렵고 괴로운 일일 수 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함.

이를 닦아야 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 이를 잘 닦지 않으면 세균막(플라그)이 형성되고, 이것을 닦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충치가 발생되는 과정을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함.
- 유아의 경우 치면착색제를 통한 플라그 테스트를 통해 잘 닦지 않은 부분이 붉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할 수도 있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음식을 먹고 나서 이를 닦지 않으면 이가 썩어서 많이 아프게 된단다."
"(사진 자료 등을 보여주며) 이것처럼 잘 닦지 않으면 이가 썩게 되어요."
"(플라그 테스트를 하며) 우리 ○○가 이 부분을 잘 닦지 않았나 보구나. 다시 잘 닦아서 빨간 색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보자."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이를 안 닦으면 이가 모두 빠져 버릴 거예요."
"아유, 이 누런 이 좀 봐. 더러워라."
"이를 닦지 않으면 경찰 아저씨가 혼내줄 거예요."

이를 닦는 것을 놀이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기

- 영유아가 모방할 수 있도록 교사가 영유아와 함께 거울을 보며 칫솔질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함.
- 영유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영유아는 이 닦기를 놀이나 재미있는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노래를 부르듯이) 이를 닦자, 이를 닦자, 이를 닦자. 하마처럼!"
"선생님이 이 닦는 것을 보렴.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입 속을 깨끗이 청소하자."
"모래시계가 다 내려올 때까지 이를 닦자."
"오늘은 딸기맛 치약 쓸까요? 아니면 포도맛 치약을 쓸까요?"

이를 닦는 과정과 닦은 후에 칭찬하고 격려하기

- 영유아가 자조기술을 처음 배울 때는 단계별로 항상 긍정적인 격려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꾸중하기 보다는 이를 닦는 모든 단계와 시도마다 칭찬을 해주고, 이를 닦은 후 영유아의 성취와 결과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이 닦는 과정〉
"(치약을 칫솔에 짠 후 칫솔을 입안에 넣는 대신 세면대를 닦으며 놀은 경우)에고, 칫솔이 ○○입안에 있어야 하는데 세면대에 있네요? 아하, 세면대가 ○○입속이구나? 그런데 치약 정말 잘 짰네요. 이거 하기 어려운데 말이야."
"치약을 잘 짰네요."
"칫솔이 입안에서 잘 움직이네요."
"옆으로 안 닦고 위아래로 잘 닦네요."
"양치컵에 물을 잘 받았구나."
"양치물 삼키지 않고 잘 뱉었구나."

〈이 닦은 후〉
"(이 닦기를 마치고 나서 영유아의 이를 보며) 아이 눈부셔라!"
"우리 ○○, 이 닦고 나니 이가 정말 하얗고 깨끗해졌구나."

교사가 도와줄 때는 아프지 않게 천천히 닦아주기

- 영유아가 이 닦는 걸 아프다고 느끼면 입을 다물어버리거나 칫솔을 물어버리는 수가 있으므로 영유아가 이를 닦고 나서 교사가 마무리를 해줄 때에는 영유아를 교사의 무릎에 뉘어놓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며 아프지 않게 천천히 닦아주는 것이 좋음
- 앉아서 닦는 것보다 영유아를 뉘어놓고 보면 이의 상태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아프지 않게 잇몸을 문질러가며 닦아줄 수가 있음.

영유아와 함께 칫솔과 치약 선택하기

- 영유아에게 이 닦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칫솔과 치약 선택 기준 범위 내에서 영유아로 하여금 칫솔 디자인, 치약 맛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다. 유의사항

치아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주어 음식물을 통하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이를 잘 닦는 습관을 갖게 하여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유치가 손상되더라도 영구치가 나면 된다고 생각하여 유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치 관리를 잘 못하면 영구치 손상과 치열의 비정상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영유아가 이를 잘 닦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부모는 영유아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칫솔질을 시키려는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함.

- 즐겁고 재미난 것이라면 영유아가 싫어할 이유가 없으므로 영유아가 칫솔을 놀이기구로 생각하고 즐겁게 이를 닦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함.

-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이 닦기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II-16-1〉 연령에 따른 이 닦기 지도 방법

연령	지도 방법
0세	- 영아는 자기 자신이 칫솔질을 할 수 없으므로 성인이 해주어야 하는데, 아기의 몸을 안전하게 붙잡고 집게손가락에 젖은 천이나 가제를 싸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와 잇몸을 닦아줌 - 치아가 많이 돋으면 부드러운 소형 칫솔을 사용하여 닦아주도록 함 - 뱉는 능력이 부족하여 치약을 삼킬 우려가 있고 칫솔질을 해줄 때 시야를 방해하므로 치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1세	- 영아용 칫솔을 쥐어주고 양치질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 - 아직 영아가 제대로 닦을 수 없으므로 꼭 마무리 칫솔질은 성인이 해주어야 함 - 매일 규칙적인 칫솔질 과정을 반복해 주는 것은 영유아에게 좋은 구강 습관을 키워줌 - 솔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치약을 사용해도 됨
2~3세	-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므로 유아에게 칫솔질을 한 후 뱉도록 하며, 이것이 가능하면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칫솔질에 흥미를 보이고 참여하고자 하므로 이러한 행동을 격려해주고 유아 스스로 칫솔질을 하도록 유도함 - 유아 혼자서도 닦을 수 있게 되지만 깊은 안쪽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으므로 마무리는 성인이 해주도록 함
3~6세	- 유아는 자신의 치아에 큰 흥미를 나타내고 자랑스러워하므로 유아 스스로 이를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 - 말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알기 쉽게 칫솔질의 요령을 설명해 주고 매일 규칙적으로 이를 닦을 수 있도록 지도함 - 유아 자신의 칫솔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여 칫솔 관리를 지도하고 식사 후나 취침 전에 반드시 양치질을 하도록 하며 하루 3회 이 닦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함 - 불소치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아직까지는 뱉는 능력이 어른보다 미숙하여 불소치약을 반복하여 삼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량 사용하도록 함

17 지나치게 청결한 경우

〈2세반, 여아〉

○○는 3월부터 어린이집을 처음 다니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이 없다. ○○는 손을 너무 자주 씻고, 옷에 더러운 것이 묻거나 물에 조금이라도 젖으면 바로 불편해하며 옷을 갈아 입혀달라고 한다. ○○는 어린이집에서 손을 씻고 나서도, 양치를 하고 나서도, 바깥놀이를 하고 나서도 어김없이 바로 울음을 터트리며 옷을 갈아 입혀 달라고 한다. ○○는 실외놀이 시 옷이나 신발 등에 흙이나 다른 이물질이 묻을까 움직임이 적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지나치게 청결한 영유아는 가정에서 부모가 지나치게 옷을 자주 갈아입히고 닦아주면서 청결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음.

강압적인 대소변 훈련

- 대소변 훈련을 할 때 부모가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면 영유아가 청결함에 집착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지나치게 청결한 영유아의 특성 파악하기

- 다음과 같은 지나치게 청결한 영유아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해당 영유아가 어느 수준으로 지나치게 청결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표 II-17-1〉 지나치게 청결한 영유아의 행동 특성

- 손을 너무 자주 씻음
- 어린이집 화장실에 가는 것을 꺼려함
- 다른 친구들의 불결한 행동을 지적함
- 음식을 먹을 때에도 주변을 항상 정리하며 먹음
- 정리, 정돈에 신경을 집중하느라 다른 활동에 영향을 받음
- 실외놀이 시 옷이나 신발 등에 흙이나 다른 이물질이 묻을까 움직임이 적음

영유아의 청결에 대한 기준 낮추어 주기

- 청결의 기준에 대해 영유아의 기준을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줌.
- 지나치게 청결한 영유아는 다른 친구들의 불결한 행동을 지적하므로 다른 친구들의 다소 지저분한 행동이나 습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괜찮아요, 옷에 조금 묻었지만 입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 젖은 것은 놀이를 하다 보면 금방 마를 거에요.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단다."
"밥을 먹으면 음식을 흘리거나 밥풀이 옷이 붙을 수 있어요. 밥 다 먹고 나서 선생님이 닦는 걸 도와줄게요."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별로 더럽지도 않은 데 왜 그러니?"
"너 엄청 깔끔쟁이구나?"

놀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 영유아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변을 청결한 환경으로 만들어 줌.
- 모래놀이나 물감놀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활동을 다 마치고 나서 정리정돈을 하고 몸을 씻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모래놀이를 하고 나서 손을 씻으면 되니까, 모래를 만져볼까요?"
"놀이를 다 하고 나서 정리해도 괜찮아요."

다. 유의사항

영유아에 따라 지나치게 청결한 행동을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정확히 알고 손을 씻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바른 위생개념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함.

지나치게 청결한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정확한 원인 파악과 적절한 지도가 필요함.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지나치게 청결한 영유아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부모와 상담을 통해 영유아 행동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함.
- 부모들 중에는 영유아가 지나치게 청결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사가 도와주지 않아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음.
- 부모에게 지나치게 청결하게 영유아를 돌보는 것이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어느 정도의 더러움이 늘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건강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무균무결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부모상담을 통해 바람직한 지도 방법을 공유하고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일관된 방법으로 지도하도록 함.

18 계절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경우

〈3세반, 여아〉

○○는 공주 드레스와 왕관을 너무나 좋아한다. 드레스를 입고 오면 놀이를 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야외활동이나 소풍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미리 바지를 입고 오도록 안내를 하여도 늘 치마만 고집한다. ○○ 부모님은 아침마다 옷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게 되고, ○○는 결국 자기가 입고 싶은 치마를 입지 못하면 엉엉 울고 떼를 써서 결국은 ○○가 입고 싶은 치마를 입히게 된다고 한다. ○○ 부모님은 더운 여름에는 거추장스러운 치마를 입어 땀띠가 날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신다.

가. 원인 분석

영유아의 발달특성

- 영유아도 자신의 선호가 있으며 특히 유아기에 옷이나 장식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선호를 드러내게 됨.
- 또래가 가지고 있는 놀잇감과 동일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교사나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 함.

- 성정체감이 발달되어감에 따라 남아들은 파란색이나 로봇, 자동차 그림이 있는 옷만 입으려 하거나, 여아들은 공주 그림이 있는 옷, 치마 등만 입으려 하는 특성을 보임.

주변의 지나친 관심과 강화

- 영유아가 입은 옷에 대해 교사나 부모, 주변 성인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칭찬을 하게 되면 강화되어 지속적으로 같은 옷만 입으려 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발달과정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기

-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므로 성인의 관점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위험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는 허용하도록 함.
- 예를 들어 매일 치마만 입으려고 하는 여아가 어린이집에서 체육활동이나 야외활동이 있는 날에도 여전히 치마를 입고 싶어 하면 치마를 입고 와서 그 시간에만 바지를 입도록 할 수도 있고, '우리반 친구들이 모두 바지 입는 날'이라고 해서 치마를 입는 여아들이 없도록 공통의 규칙을 만들어 적용할 수도 있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아, ○○는 치마 입는 것이 좋구나."
"○○, 오늘 이 드레스 입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추웠겠다. 교실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갈 때는 점퍼를 입자."
"아, 치마 입고 싶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체육활동을 할 거에요. 체육활동을 할 때 치마를 입으면 불편하거나 위험할 수 있어요. 체육활동 할 때만 바지로 갈아입고, 체육활동 끝나고 나면 다시 치마를 입자."
"털 장화가 신고 싶었구나.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더웠을 것 같은데 괜찮았니?"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야, 너는 만날 치마만 입냐?"
"(무서운 목소리로)선생님이 오늘은 소풍이라고 치마 입지 말라고 했지요?"
"치마만 입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공주 드레스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 촌스럽다."
"이 더운 날 그런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고 오면 어떻게 해요?"
"하하하, 털장화 신고 왔어요? 사람들이 웃었겠다."
"멋 내다가 얼어 죽는다."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과 날씨에 적절하게 옷 입기 지도하기

- 영유아의 선호를 존중하는 동시에 영유아에게 상황과 날씨에 맞는 옷을 입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날씨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상생활과 교육활동을 통해 날씨에 맞는 옷 입기를 지도함.
- 특히 추운 날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 좋은데,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나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짐을 말해줌.

〈표 II-18-1〉 연령에 따른 날씨에 맞게 옷 입기 지도 방법

연령	날씨에 맞게 옷 입기 지도 방법
3세	날씨와 계절에 맞게 주어진 옷을 입고 생활하며 덥거나 추울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함
4세	날씨와 계절에 알맞은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가지 옷 중에서 현재의 날씨와 계절에 적절한 옷을 직접 골라 입어보게 함
5세	날씨와 계절 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알아보고 적절히 입어보게 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강화시켜주지 않기

- 교사가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강화를 하면 해당 영유아가 더 강화되고, 이를 지켜본 다른 영유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객관적으로 영유아의 상태를 언급해주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응, 그래. 오늘 치마 입었구나."
"응, 오늘 분홍색 치마를 입었어요."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와, 오늘 ○○가 공주처럼 입고 왔구나. 진짜 참 예쁘다."

다. 유의사항

- 영유아들이 특정 형태의 옷을 선호하는 것은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없음.
- 성인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 있는 것처럼 영유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 있음을 인정해 주도록 함.
- 다만 영유아가 입고 싶은 옷이 상황이나 계절에 맞지 않아 영유아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라면 일부 상황에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영유아가 공주 옷만 입으려 하는 것, 여름에 겨울 털 장화를 신으려 하는 것, 분홍색 옷만 입으려고 하는 것, 편하다고 고무줄 트레이닝 바지만 입으려고 하는 것 등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특성임을 이해함.
  - 부모가 원하는 옷을 입도록 강요하지 말고 부모가 다소 부끄럽더라도 영유아의 선택을 존중해 주도록 함.
  - 어떤 시기가 되면 또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함.
  -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은 영유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영유아가 좋아하는 옷을 여름용, 겨울용으로 구분하여 해당 계절에만 입을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정리하고 영유아에게 충분히 설명해 줌.

19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지 못하는 경우

〈4세반, 여아〉

우리 반에서는 낮잠시간 전에 교사가 장에서 개별 침구를 꺼내어 주면 유아들이 스스로 침구를 깔고, 옷을 벗고 잠옷(내복 등)으로 갈아입는다. 낮잠을 자고 나서도 다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 아직 지퍼의 처음을 끼우는 것을 어려워하는 유아가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교사가 처음에 조금만 도와주면 지퍼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다. 바깥놀이를 하기 위해 준비할 때 유아들이 스스로 점퍼를 입고 신발을 신을 수가 있다. 그런데 ○○는 매번 옷을 갈아입고 점퍼를 입을 때,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어서 교사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지나친 보호로 인한 습관 부족

- 부모나 주위의 어른들이 늘 옷을 입혀주어서 스스로 할 기회가 없는 경우 영유아가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기 어려워할 수 있음.

발달 지체 등 신체적 결함

- 발달이 다소 늦거나 손의 구조, 근육 등의 기형으로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기질을 이해하여 지나치게 일찍 강요하지 않기

- 스스로 옷이나 신발 입고 벗기 등을 지도할 때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기질을 우선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함.
- 어린이집에서 한 명의 교사가 많은 영유아를 돌보다 보니 영아들에게까지 발달 수준 이상으로 스스로 하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아가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지 못하는 것은 문제행동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함.
- 영아의 특성에 따라 어떤 영아는 다소 일찍 야무지게 스스로 옷 입기 등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영아는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신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

〈표 II-19-1〉 영아반에서의 잘못된 지도 사례

한 선생님은 1세반 담임교사이다. 바깥놀이터에 나가기 위해 영아들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교사도 준비하다가 지쳐버리는 일이 잦다. 그래서 한 선생님은 적어도 신발만큼은 아이들 스스로 신을 수 있도록 학기 초부터 열심히 지도를 하였다. 교사의 노력 덕분인지 여름부터는 대부분의 영아들이 혼자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는 아직 신발을 혼자 신지 못해서 교사가 도와주어야 한다. 한 선생님은 ○○ 혼자 신발 신을 때까지 바깥놀이터에 나오지 못한다며, ○○를 신발장에 두고 다른 영아들을 먼저 데리고 바깥놀이터에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는 엉엉 울어 버린다.

편한 옷이나 인형 등을 이용하여 자조기술 증진시키기

- 입고 벗기 편한 옷이나 신발부터 스스로 해보도록 함.
- 좋아하는 인형에게 옷이나 신발 입히고 벗기는 놀이를 통해 자조기술을 증진시킴

옷이나 신발 입고 벗기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 영아의 경우 자율감 발달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교사는 영아의 시도를 격려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함.
- 영유아가 다소 미숙하더라도 단계별로 조금씩 도움을 제공하여 영유아 스스로 시도해보도록 하고, 한 단계의 성취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여 영유아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도록 함.
- 스스로 하지 못하는 영유아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면 다른 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협박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함.
- 또래에게 놀림이 되거나 좌절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우리 ○○가 혼자 옷에 손을 끼웠구나. 어유, 기특해라."
"양말 신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이 잘 안들어가는구나. 그럼 선생님이 발가락만 끼워주고 ○○가 다시 신어볼까요?"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었어요? 선생님이 지퍼 끝만 끼워주고, ○○가 다시 지퍼를 올려보자."
"(엉터리로 옷을 입은 경우에도) ○○가 스스로 옷을 입었구나. 와 멋지다. 불편하지 않게 선생님이 조금만 도와줄게요. 정말 잘했어요."
"와, ○○가 옷을 참 잘 입는구나."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팬티가 바지 위로 튀어나오게 입은 경우) 아유, 이렇게 입으면 어떻게 하니. 선생님이 다시 입혀 줄게요. (바지를 다시 내리고 팬티부터 차례차례 입혀준다)"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6살 형님이 양말도 못 신으면 안되지요."
"혼자 신발 못 신는 친구는 신발장반 하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다 신으면 놀이터로 나오렴. 얘들아 우리 먼저 나가자."
"신발을 바꾸어 신으면 어떻게 하니. 빨리 다시 신어요."

전문가의 도움받기

-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였음에도 영유아 스스로 옷과 신발 입고 벗기를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자조능력에서도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다. 유의사항

성인이 되어서까지 스스로 옷과 신발을 못 입고 벗는 사람은 거의 없음.

신체적이나 발달적으로 결함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영유아는 일정 시기가 되면 누구나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을 수 있으므로 교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음.

어린이집 영아반에서 스스로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함.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부모 입장에서는 영유아가 말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소 미숙한 영유아가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게 하기 보다는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음.
- 영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강요하기 보다는 영유아가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가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제공해주어 스스로 시도하고 쉽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함.

20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4세반, 남아〉

○○는 옷을 갈아입어야 하거나, 바깥놀이나 산책을 위해 겉옷을 입어야 할 때 스스로 하기 보다는 교사 앞에 옷을 들고 와서 그냥 앉아 있거나 그 자리에 누워 버린다. 스스로 윗도리를 입어 보도록 하기 위해 머리만 넣어주면 교사가 도와줄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거나, 그 상태로 돌아다니곤 한다. 교사도 ○○가 스스로 하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 다음 일과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를 도와줄 때가 자주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왜 ○○만 도와 주냐며 자기도 옷을 입혀달라고 한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지나친 보호로 인한 습관 부족

- 부모나 주위의 어른들이 늘 옷을 입혀주어서 스스로 할 기회가 없는 경우 영유아가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으려 하지 않을 수 있음.

영유아의 기질과 교사나 부모의 조급함.

- 영유아가 다소 느린 기질의 아이라서 영유아는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교사나 부모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음.

심리적인 불안정

- 영유아의 마음에 불만이 있어서 이를 부모나 교사에게 표출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동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영유아의 기질 이해하기

- 영유아의 기질이 느린 기질 유형인 경우 다소 행동이 굼뜰 수 있음을 이해함.

지금 옷이나 신발을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주기

- 옷이나 신발을 입으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기 보다는 지금, 또는 몇 시까지 옷이나 신발을 입고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야, 우리 이제 옷 입고 바깥놀이터 나가자."
"○○야, 우리 시계 긴 바늘이 6자에 가면 산책을 갈 거예요. 그 때까지 양말 신고 점퍼를 입으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 주기

- 옷이나 신발을 입으라고 하고 영유아가 바로 즉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도록 함.
- 옷이나 신발을 입을 시간을 촉박하게 두지 말고, 조금 더 일찍 이야기하여 영유아가 준비할 시간을 보다 많이 확보해줌.
- 답답하더라도 영유아에게 잠시 시선을 떼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도록 함.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야, 선생님이 옷 입으라고 말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빨리 입어요. 우리 시간 없어요."
"옷 입는 거 하나도 후딱후딱 하지 못하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할래요?"

작은 성취에도 격려하기

- 평소 영유아가 교사가 도와줄 때까지 양말을 들고 다녔는데, 양말을 신으려고 시도하고 있거나 양말 한 짝을 신은 경우 다 신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기 보다는 성취에 대해 아낌없이 격려를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와, ○○가 오늘 양말을 참 잘 신었구나. 다음번에는 양쪽 다 신어보렴."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야, 아직도 양말 한 짝밖에 못 신었어요? 아이구."
"다른 친구들은 옷 다 입었는데 아직까지 윗도리만 입으면 어떻게 하니."

다. 유의사항

- 성인이 되어서까지 스스로 옷과 신발을 못 입고 벗는 사람은 없음.

- 신체적이나 발달적으로 결함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영유아는 일정 시기가 되면 누구나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을 수 있으므로 교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음.

- 교사가 보기에 영유아가 스스로 옷과 신발을 입은 모습이 어설프고 엉망이어도 비난하거나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함. 반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난이나 수정을 받으면 더 이상 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부모는 영유아가 스스로 옷입고 벗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유아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음.
  - 의존적인 아이를 키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옷 입고 벗기와 같은 생활 속의 작은 일부터 영유아의 능력을 인정하고 스스로 독립할 기회를 주어야 함.

21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5세반, 여아〉

○○는 바깥놀이터에 새로 산 점퍼를 놓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를 닦고 칫솔을 세면대에 놓고 그대로 보육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이거 누구 거니? 라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의 물건이다. 서랍장에 넣어 둔 자기 놀잇감이 없어졌다며 당황스러워하고 울어 버리는 경우도 자주 있다. 특히 하원할 때는 놀잇감뿐만 아니라 양말, 점퍼 등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해서 부모님과 함께 없어진 물건을 찾느라 정신이 없다. 교사는 자기 물건은 서랍장에 잘 넣어두거나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해주었지만 큰 변화가 없다. 가정에서도 자기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잘 모르거나 잃어버려서 엄마한테 매번 자기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찾아달라고 한다고 한다.

가. 원인 분석

영유아의 발달특성

- 영유아는 기억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함.

물건의 소중함을 모름

- 가정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다시 사주어서 영유아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또 사면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음.

부모의 지나친 보호로 인한 습관 부족

- 부모나 주위의 어른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챙겨주는 경우 영유아가 굳이 자신이 알아서 챙기거나 신경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음.

심리적인 불안정

- 영유아의 마음에 불만이 있어서 이를 부모나 교사에게 표출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동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을 탓하기 보다는 성장기의 특성으로 이해해 주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바깥놀이에서 아주 신나게 놀이하느라 점퍼를 가지고 오는 것을 깜박했구나. 다음부터는 꼭 챙겨서 들어오자."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아유, 또 ○○가 칫솔을 두고 갔구나. 자꾸 이렇게 두고 가면 주인 없는 것이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버릴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네가 잃어버리고 그렇게 울면 어떻게 하니? 자기 물건은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봐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서랍장에 넣어 두라고 했잖니."

물건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야,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면 제자리에 잘 두어야 한단다. 아무렇게나 두면 잃어버리게 되어서 다시 그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없게 된단다."
"○○야,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고 나서 제자리에 잘 두면, 나중에 다시 그 물건을 사용할 때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정리정돈 습관 길러주기

- 어린이집에서 놀잇감이나 물건의 위치를 그림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함.
- 개인 서랍장을 통째로 두기 보다는 양말을 담는 통(우유팩 재활용 등) 등을 준비하여 영유아가 서랍장 내에서도 물건을 잘 정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야, 가위 다 쓴 거예요? 가위를 쓰고 나면 어디에 두었지요?"
"(양말을 담는 통을 가리키며) ○○야, 양말은 이 통에 담아 두자. 그러면 나중에 서랍장 전체를 찾아보지 않아도 금방 양말을 찾을 수 있단다."
"(바깥놀이터에서 보육실로 들어올 때) 혹시 점퍼나 물건 챙기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정서 상태 이해하고 심리적 안정감 지원해주기

- 영유아가 어린이집 생활이나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크거나 불편감, 우울 및 불안 등을 경험하고 있어서 물건 관리에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정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줌.

다. 유의사항

주의를 해도 자기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영유아는 장래 아무렇게 행동하거나 무책임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유아기부터 자기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는 법을 지도해야 함.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자기가 잘 가지고 놀이하는 놀잇감을 소중하게 하는데, 특히 2~3세 영

아는 놀잇감도 자기와 똑같이 마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놀잇감에 대해 대단한 애정을 가지므로 영유아가 놀잇감부터 시작하여 점차 스스로의 물건을 관리할 기회를 주도록 함.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영유아가 사달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사주게 되면 영유아가 언제든지 새로 사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물건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잃어버린 물건을 사줄 때는 신중해야 함.
- 가정에서도 영유아의 가방이나 옷, 신발 등을 일정한 곳에 놓아두어서 영유아가 항상 그곳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함.
-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기 보다는 작은 것부터 영유아로 하여금 관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여 정리정돈 습관을 길러줌.

22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5세반, 남아〉

○○는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여러 영역에서 즐겁게 놀이를 한다. 그런데 놀이시간이 끝날 때가 되어 교사가 5분 후에는 정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느새 보육실에서 사라진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거나 배회하고 있고, 또 어떤 날은 교사실에 가 있기도 한다. 정리시간을 유아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는 정리시간이 되면 늘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알아차리고, "선생님, ○○ 없어졌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의 과잉보호인 경우에는 영유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부모가 대신 해주면 그것이 습관화되어 놀잇감이나 개인 물품을 정리정돈하지 않으려 할 수 있음.

보육실 환경구성

- 놀잇감을 영유아들이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흥미영역별로 놀잇감의 특성에 따라 수납

장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영유아로 하여금 정리정돈에 부담을 갖게 할 수 있음.

영유아의 개인적 특성

- 영유아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정리정돈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영유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하지 않는 영유아, 정리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유아, 교사나 친구가 보고 있으면 정리하는 척하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슬그머니 손을 놓는 영유아 등이 있을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리정돈 지도하기

- 3세 이하의 반에서는 영유아로 하여금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교사가 함께 도와서 정리를 하고, 4세반 이후에 스스로 정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적절함.

〈표 II-22-1〉 연령에 따른 놀잇감 정리하기 지도 방법

연령	놀잇감 정리하기 지도 방법
3세	유아 자신이 놀이한 놀잇감을 교사와 함께 제자리에 정리함
4세	자신이 사용한 놀잇감과 주변의 놀잇감도 함께 정리함
5세	당번을 정하여 친구들에게 정리시간을 알려주고, 교실 여러 곳의 놀잇감을 서로 도와 정리해 보는 활동으로 확장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정리정돈 시간의 사전 예고에 영유아를 참여시키기

- 영유아들의 놀이가 끝나기 전에 5분 후 놀이가 곧 끝날 것이라는 예고를 하는데, 영유아들이 5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암시를 줄 수 있는 시계를 사용함.
- 5분이 지난 후, 영유아가 다른 영유아들에게 놀이를 정리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방법으로 직접 종을 울리게 하는 등 영유아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은 과정을 따르는 것은 영유아들이 이런 전이가 교사가 제멋대로 정하는 것이 아닌 하루일과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며 놀이 끝의 실망감을 덜 느끼게 해줄 것임.
- 교사는 영유아들을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고도 영유아들을 이끌 수 있는 적절한 권위를 유지시켜 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지금 긴 바늘이 5에 가있구나! 이제 그 긴 바늘이 6에 가게 되면 놀이하던 것을 멈추어야 할 거에요!"
"(유아가 종을 울리며) 이제 곧 정리할 시간이다."

정리를 잘하는 영유아 격려하기

- 정리를 성실하게 잘하는 영유아에게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고 행동을 격려함
- 정리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영유아에게는 왜 안치우냐고 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이끌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는 무엇을 치우고 싶어요?"
"선생님한테 블록 좀 집어 줄래요?"
"○○는 어떤 것을 정리해 볼래요?"
"우리 교실을 놀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힘이 드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정리를 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이러다가는 우리 교실이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친구들은 모두 정리하고 있는데, ○○는 정리 안하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정리시간을 즐거운 게임시간으로 구성하기

- 노래에 맞추어 정리를 한다든가, 정해진 규칙에 맞게 정해진 시간 안에 물건을 찾는 등 정리정돈을 놀이로 지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정리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 정리하는 게임을 구성하는 것도 좋음. 즉 모든 영유아들이 로봇이 되거나 우주공간의 정리 괴물이 되어보기를 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게 정리하는 팀이 되어볼 수 있도록 격려할 수도 있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선생님은 정리 로봇이에요. 이번에는 무엇을 먹어치워 볼까요?"
"(목소리를 작게 하고, 놀잇감을 정리하는 것을 소리를 내지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게 정리하는 팀이 되어 볼까요?"

정리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 습관화를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하나씩 나누어 꾸준히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처음에는 교사가 먼저 치우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남겨 놓은 다음에 영유아가 치우게 하거나 옷걸기, 놀잇감 정리, 책 정리하기 등 하나의 영역으로만 한정하여 습관화시키는 것이 좋음.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구성하기

- 정리 공간을 만들어 구분 짓고, 정리할 물건에 이름표를 붙여둘 수도 있음.
- 놀잇감의 종류에 따라 정리함을 다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블록영역의 경우 블록 놀잇감을 담을 수 있는 큰 통이 더 바람직하고, 조작영역의 경우 속이 보이고 낮은 통이 조작교구를 정리하는데 더 도움이 됨.

놀이의 활성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 지나치게 정리정돈을 강조하게 되면 당장은 보육실이 깨끗해 질 수 있지만, 때로는 영유아의 놀이가 활성화 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표 II-22-2〉 지나치게 정리정돈을 강조하여 놀이의 활성화를 방해한 예

박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유니트 블록을 차곡차곡 교구장에 넣어 정리하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선생님 말에 따라 유니트 블록을 모양에 맞추어, 열까지 맞추면서 정리하였다. 자기네도 만족하였는지 흡족한 표정을 지었고 이를 본 박 선생님은 "그것 보렴. 좋지? 이제부터 깨끗이 정리하면서 놀도록 하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다음날부터 아이들이 유니트 블록을 가지고 놀지 않았다는 것이다. 며칠 동안 유니트 블록은 아이들에게 버림받았다.

다. 유의사항

- 영유아는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다양한 놀잇감에 관심이 많아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지르는 행동을 보임. 특히 호기심이 많은 영유아들은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을 모으기 좋아해서 주변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음.

- 정리정돈은 습관이므로 한 번에 영유아를 바꾸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습관화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도하는 것이 중요함.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집안을 정리정돈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좋다고 생각해서 놀잇감이나 책을 치우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습관임.

〈표 II-22-3〉 가정에서의 정리정돈 지도 방법

- 정리정돈을 잘하는 집안 분위기인지 확인함 깨끗한 거리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없지만, 지저분한 거리에는 쉽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집안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을 때 영유아의 정리정돈 습관을 지도하기가 쉬움
- 정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 놀잇감과 그림책 등 영유아의 물건에 적합한 수납장을 준비하고, 각 수납장에 어떻게 놀잇감을 정리할 수 있을 지 부모가 함께 정리해 봄. 또한 정리정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놀잇감 바구니나 수납장을 영유아와 함께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됨
- 놀잇감을 정리하는 시간을 정함 물건이 심하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정리하기가 어려움. 가정에서도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한 번씩 놀잇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함. 가령 낮잠을 자기 전, 저녁 먹기 전에 가지고 놀이한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하도록 함.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유아를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 주어야 함
- 집에 있는 모든 놀잇감을 내주지 않고 적당량의 놀잇감만 제공함 너무 많은 놀잇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놀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정리정돈에도 방해가 됨. 영유아가 놀이할 수 있는 적당량의 놀잇감을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영유아가 충분히 놀이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이거나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23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4세반〉

○○은 놀이시간에 게임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를 할 때 차례를 기다리기 힘들어 한다.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게임하는 동안 기다리지 못해 불쑥 끼어드는 경우가 많아 친구들이 불편해하기도 한다. 친구들이 순서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다른 친구나 교사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못하며 답답해한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가 모든 상황에서 영유아의 욕구만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장과정에서 기다리는 경험 부족

자기중심적 사고

- 일반적으로 4세경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을 이해하기 시작함
- 타인에 상황이나 입장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경우

충동조절 능력 부족

-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충동과 욕구가 올라와 조절이 힘듦.

나. 지도 방법

기다리는 동안 다른 역할 부여하기

-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영유아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기
- 식사하기 전 줄서서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에게 숟가락 나누어 주기, 양치질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에게 치약 짜주기, 다른 친구들이 신체게임에 참여하는 동안 친구 응원하기 등 구체적인 역할 부여하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상호작용하기

- 놀이 중 다른 친구나 교사의 상황이나 마음에 대해 언어적으로 상호작용 해주기
-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설명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은 블록으로 집을 만들었나봐요. 집을 다 만들고 나니 기분이 좋은가보구나."
"○○가 조금 힘들었을 텐데도 차례가 될 때까지 잘 기다리니까 선생님도 기분이 좋구나."
"○○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가져가서 속상했구나. 저 친구도 이 책이 보고 싶었나 봐요."

충동 조절에 도움이 되는 활동 실시하기

- 순서를 기다리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신체게임, 규칙이 간단한 판게임 등)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연령이 높은 영유아의 경우 대집단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이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도 할 이야기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은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 듣고 나서 ○○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24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세반〉

○○은 교사가 한 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잠깐이라도 눈을 돌리면 위험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실내에서는 계단에서 손잡이를 잡고 미끄러져 내려오거나 여러 칸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며, 실외에서도 미끄럼틀이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높은 오르기 시설에 손을 잡지 않고 오르기도 한다. 교사가 위험한 상황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만 잠시 후에는 또 같은 행동을 하여 교사의 가슴을 졸이게 한다.

가. 원인 분석

물리적 환경

- 보육실 내외의 구조나 시설물의 위치 등으로 인한 위험한 행동 발생

신체인식 및 조절력 부족

- 영유아의 신체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음.

신체에너지 발산 욕구

- 기질적으로 신체적 에너지가 많은 영유아의 경우 에너지가 충분히 발산되지 못했을 때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음.

결과예측 능력 부족

-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함.

나. 지도 방법

물리적 환경 개선하기

- 보육실 내외에 위험한 요인이나 실내 구조 및 가구, 시설물 배치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개선하기

대근육 발달을 돕는 활동 실시하기

- 영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 실외에서의 놀이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신체를 조절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보육실 내에서 속은 유희실에서 오르기 시설을 이용한 활동, 평균대 건너보기, 큰 공 굴리기 등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에 맞는 대근육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기

에너지 발산할 수 있는 활동 실시하기

- 영유아가 신체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 가질 수 있도록 하루일과를 계획하기

-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 뿐 아니라 밀가루 반죽놀이, 찰흙놀이, 물놀이, 물감놀이 등의 감각놀이를 통해서도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음.

원인-결과를 연결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기

- 영유아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결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언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기
-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바닥에 부딪혀서 다리를 다칠 수 있어요. ○○가 다치면 선생님도 속상할거 같아요."
"우리가 화분에 물을 주었더니 화분에서 새싹이 자랐네요."
"물 컵을 상 끝에 두었더니 팔로 쳐서 쏟아졌네요. 다음에는 더 안쪽에 두어야 겠어요."

다. 유의사항

영유아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실내외 안전규칙

구분	규칙
실내놀이규칙	• 장난감이나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지 않는다. • 블록, 작은 구슬 등 작은 놀잇감을 입이나 코에 넣지 않는다. • 뾰족한 물건을 입, 코, 귀나 콘센트에 넣지 않는다. • 끈을 몸(목, 손)에 감지 않는다. • 바늘은 사용 후 바늘꽂이에 안전하게 꽂는다. • 점토나 크레용 등을 입에 넣지 않는다. • 가위나 뾰족한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 가위나 뾰족한 물건을 상대방에게 줄때는 손잡이 쪽으로 준다. • 책상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는다. • 친구를 밀지 않는다.

구분		규칙
실외 놀이 규칙	미끄럼틀	•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간다. • 손잡이를 잡고 올라간다. • 앞 사람이 다 올라간 다음 올라간다. • 앞 사람이 다 내려간 다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다. •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는다. • 위험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그네	•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한 사람씩 탄다. • 그네가 정지한 상태에서 타고 내린다. • 그네와 떨어져서 안전선 밖으로 다닌다. • 그네를 탈 때 손잡이를 꼭 잡는다. • 엎드리고 줄을 꼬는 등 위험하게 타지 않는다. • 그네 타는 친구를 밀지 않는다.
	시소	• 손잡이를 반드시 잡는다. • 내릴 때에는 친구에게 미리 말한다. • 시소 위에서는 걷지 않는다.
	자전거	• 지정된 길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탄다. • 사람이 지나갈 때 멈춘다.
	물모래	• 물이나 모래를 친구에게 뿌리지 않는다. • 놀이도구를 던지거나 휘두르지 않는다.
교통 규칙	버스	• 버스는 정해진 장소에서 기다린다. •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차례를 지키고 천천히 순서대로 타고, 내린다. • 버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 버스 밖으로 손을 내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버스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버스 타고 내릴 때 옷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길 건너기	•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건넌다. • 신호등이 있는 경우 초록불을 확인하고 손을 들고 건넌다. • 신호등이 없는 경우 어른과 함께 손을 들고 건넌다. • 찻길에서 장난치거나 놀지 않는다.

자료: 박성옥 외 (2003). 유아의 건강과 안전. 창지사.

참고자료

- 어린이 안전넷(www.isafe.go.kr) : 재미있게 배워요〉 어린이교실
- 소방방재청(www.nema.go.kr) : 안전교육〉연령별 안전교육〉유아용 안전교육

25 어린이집 버스에서 심하게 장난을 치거나 의자에 앉아 있지 않는 경우

〈3세반〉

○○은 등하원 할 때 차량이 올라타자마자 뛰면서 자리를 찾는다. 다른 유아들이 탑승하는 동안에도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이 자리 저 자리를 돌아다니기도 한다. 교사가 앉게 하고 안전벨트를 하고 나면 잠시 조용히 앉아있다가도 스스로 벨트를 풀어버리고 일어나버려 교사가 다시 벨트를 하도록 지도하면, 지나치게 큰 소리로 장난을 치고 옆 친구를 손으로 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가정에서 차량으로 이동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거나 안전에 대해 부모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함.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나. 지도 방법

정확한 한계 제시하기

- 영유아가 위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차에 탔을 때는 안전벨트를 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출발할 때 넘어져서 다칠 수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하자."

대안 제시하기

- 영유아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집에 가는 동안 오늘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했는지 생각해서 엄마한테 이야기해 드릴까요?"
"같이 노래 부르면서 갈까요?"
"창문 밖으로 자동차들이 많이 지나가네. 어떤 색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나 한번 볼까?"

안전교육 실시하기

- 어린이집에서는 가능한 등하원을 목적으로 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운행해야 하는 경우 차량용 안전설비를 갖추고, 모든 탑승자가 개별 안전띠를 하고 반드시 운전자 외 책임있는 성인이 동승하여 지도해야 함.
- 차량운행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들에게 차량탑승 시 안전에 관련된 교육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에 맞는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함.
- 차량에 탑승하는 것부터 차량 내에서 지켜야 할 점을 사진이나 그림과 함께 보육실에 제시하여 영유아들이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익히도록 함.
- 영유아들이 차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할 경우,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어 위험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다. 유의사항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차량관리 원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라. 차량관리

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제 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에서 운행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등원·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영유아 등원·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어린이 경찰청(www.kid.police.go.kr) : 교통교육관〉유아안전학습 프로그램
- 어린이 교통안전공단(www.kid.kotsa.or.kr)
- 현대자동차- 폴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www.poli.hyundai.com) : 폴리의 교통안전극장

26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2세반〉

○○는 어린이집에 다닌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치우는 시간이 되어 교사가 알려주면 하던 놀이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하거나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낮잠시간에도 교사가 알려주어도 큰 소리를 내며 이야기하여 낮잠시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실외놀이시간에도 우선 실외에 나가면 즐겁게 놀이하지만 나가야 할 때 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들어올 때 더 놀고 싶어 하여 울음을 터뜨리고서야 들어오곤 한다.

가. 원인 분석

하루일과의 구성 수준과 규칙성

-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비해 구성이 복잡하거나 요일별 변화가 많은 하루일과

언어이해능력 부족

- 교사가 일과에 대해 언어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영유아가 이해하기 힘든 경우

자기조절능력 부족

- 영유아가 기질적으로 자기조절능력이 또래에 비해 부족하여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의 전이가 어려울 때

나. 지도 방법

하루일과의 변동 정도를 조절하기

- 하루일과 중 모이는 시간, 치우는 시간 등의 전이시간이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조절하기
- 일주일의 하루일과를 점검해보아 요일별로 변화가 너무 많아 영유아가 일과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점검하고 조절하기

영유아의 언어이해 능력에 맞게 말하기

- 영유아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일과와 영유아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주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이제 우리 치우는 시간 하고 바깥놀이 나갈 거예요. 여기 있는 블록부터 하나씩 들어서 장 속에 정리해 볼까요? 이 인형은 어디에 정리하면 좋을까요? ○○가 자리에 가져다 놓아볼까요?"
"우리 반 친구들이 점심 먹을 시간이네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밥 먹으러 식당으로 갈 건데, 선생님 앞에 모여 볼까요?"

일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예고하기

- 영유아가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일과와 영유아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 미리 예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 일과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영유아의 경우 다른 영유아들보다 조금 먼저 한 번 더 예고해주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이제 긴 바늘 한 칸 지나면 낮잠시간이에요. 양치질 다하고 낮잠 잘 준비가 되면 선생님이 동화책을 읽어주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정리하는 시간인데 ○○가 만든 블록도 조금 있으면 자리에 넣어줄 거예요."

하루일과에 대한 활동 실시하기

- 보육실 내에 해당 반의 하루일과를 알 수 있도록 화보를 제시하거나 일과에 대한 동화책, 퍼즐 등의 자료를 제공하기
- 실제 영유아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하루일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임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여기 우리 반 친구들이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이네요. 밥을 먹고 나서는 다같이 양치질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블 위에 누워서 코 자고 있구나."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권정윤·안혜준·송승민·권희경(2013). 유아생활지도. 학지사.

김경희(2007). 아동생활지도-사례를 중심으로. 창지사.

김일옥·최경순(2009). 아동건강교육(개정판). 양서원.

김일옥·최경순·이정실·권세영·이소영(2013). 영유아 교사를 위한 아동영양학. 양서원.

덕성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2007). 유아영양과 요리활동. 창지사.

박근주·송원호·김연진(2008). 선생님, 전 이렇게 상담했어요. 양서원.

박성옥·이영환·한유미·곽혜정·양연숙·이진숙·안은숙·김연주·이민경·장혜자(2003). 유아의 건강과 안전. 창지사.

박정옥·김태인(2013). 아동생활지도. 양서원.

보건복지부(2013). 3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총론.

보건복지부(2013). 4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총론.

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신의진(2013). 아이심리백과: 0-2세편. 걷는나무.

신의진(2013). 아이심리백과: 3-4세편. 걷는나무.

양옥승·정채옥·조유나(2011). 좋은 부모되기 첫걸음: 3-6세 미만 유아기편. 굿네이버스.

오은영(2011). 엄마표 마음 처방전. 중앙북스.

유재령·이영애(2013). 떼쓰는 아이 키우기. 마음상자.

이명희·정은정·황혜신·김정현·성미영·권기남(2009). 아동건강영양교육. 수학사.

이소은·이완정·성미영·권기남(2013). 아동생활지도. 교문사.

이순형·김유미·김은영·김진경·김태연·서주현·안혜령(2013). 아동생활지도. 학지사.

이순형·이성옥·민하영·이영미·한유진·장영은·최나아·김지현·김진경·정현심(2013). 영유아 건강교육. 학지사.

이영·강민주·우현경(2011). 좋은 부모되기 첫걸음: 0-3세 미만 영아기편. 굿네이버스.

임미혜·채혜선·이순자·안경일·심은희(2013). 아동건강교육. 양서원.

임종한(2013).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위즈덤하우스.

전도근·조효연(2010). 우리 아이 편식이 달라졌어요. 교육과학사.

조운주·최일선(201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생활지도(제3판). 창지사.

하정훈(2012). 삐뽀삐뽀 119 소아과(완전개정판). 그린비라이프.

허혜경·김성희(2008). 아동발달과 교육. 학지사.

현정완(2005). 아동 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창지사.

Babara, K. & Judy, S. R. (2013). 유·아동기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이병인, 윤미경, 이지예, 강성리 공역. 시그마프레스.

Dinah, J. (2011). 어린이의 문제행동. 신의진 역. 아카데미아.

EBS 생방송 60분 부모 제작팀(2011). EBS 60분 부모-성장 발달 편. 지식채널.

EBS 생방송 60분 부모 제작팀(2013). EBS 60분 부모-행복한 육아 편. 경향미디어.

EBS 생방송 아이의 밥상 제작팀(2010). 아이의 식생활. 지식채널.

Susan, B. C. (2007). 유아의 문제행동. 민성혜 역. 시그마프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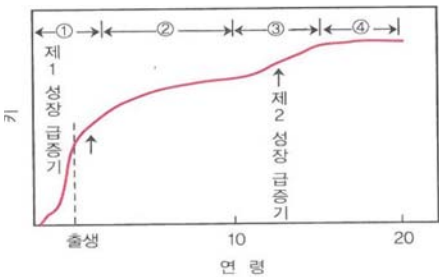
제3부. 각 론 : 신체운동발달영역

Ⅰ.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

01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신체운동발달에 대한 이해

- 신체운동발달은 신체적 성장과 운동 기능의 발달로 이루어지지만 뇌와 신경계의 발달 및 감각과 지각의 발달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달함.
- 신체운동발달은 다른 영역의 발달 즉 언어, 인지, 사회정서발달과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 일례로 신체발달의 문제가 있거나 지연될 경우 영유아의 자존감에 손상을 주기 쉽고, 그로 인해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주게 됨. 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청력의 문제가 생기고, 언어발달까지도 영향을 주게 됨.
- 신체적 성장은 신장과 체중의 변화 뿐 아니라 신체비율의 변화, 골격과 근육의 발달, 치아발달 등 다양한 부분으로 나타나며, 모든 부위가 똑같은 비율로 성장하기 보다는 신체의 각 부위에 따라 다른 시기에 다른 비율로 성장함.
  -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등 신체적인 성장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하나 연령에 따라 발달 속도가 다르게 나타남. 크게 두 번의 빠른 성장기가 있는데 영아기와 사춘기로 이 시기에는 매우 가파른 성장 속도를 나타냄.



[그림 Ⅰ-1-1] 성장곡선

- 생후 1년이 되면 출생 시 체중의 3배, 신장의 1.5배가 되며, 두 돌 무렵에는 성인 키의 절반이 되고, 출생 시 체중의 4배 정도로 성장함. 매년 약 7㎝씩 자라서 6세경에는 약 115㎝ 정도로 성장함.
- 근육과 골격의 발달은 생후 1세까지는 근육이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하지는 못하나 만 2세부터는 근육 섬유가 발달하여 점차 두꺼워지고 신경 조직도 분리됨. 영아의 골격은 성인의 골격보다 크기가 작고 수도 작을 뿐 아니라 유연하고 부드러움.
- 신체적 성장은 개인차가 존재하나 연령별 발육표준치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부록 1: 소아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 신체적 성장은 일차적으로는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나 영양공급, 규칙적인 생활습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건강관리 등 외적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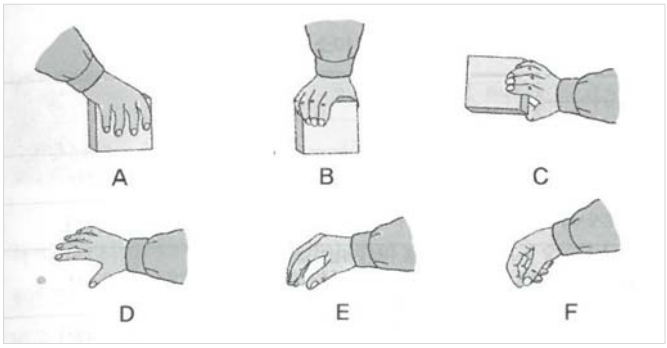
❖ 감각발달은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등 오감각으로 세분화 됨.

- 시력은 출생후 4개월까지 급속히 발달하며, 유아가 성인의 정성 시력에 도달하는 연령은 5-6세 경임. 영아기에 일시적으로 사시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수개월 지속될 경우 안과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후각은 신생아기에도 잘 발달되어 있으며, 젖 냄새를 구별 할 수 있음.
- 미각은 신맛은 출생 시부터, 짠맛과 쓴맛은 4-6개월에 발달함.
- 청각은 생후 1개월에는 엄마의 목소리를 구분하고, 4개월이 되면 소리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림. 청력은 언어발달 및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청력 선별 검사 등을 시행하여 청력 장애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해야 함.
- 촉각은 다른 감각에 비해 늦게 발달되나 입술과 혀는 출생 시부터 발달되어 있음.
- 감각발달은 영유아의 두뇌 및 신체운동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감각발달의 확인과 발달촉진을 위한 다양한 경험 제공이 매우 중요함.

❖ 운동기능은 대근육 운동기능과 소근육 운동기능으로 발달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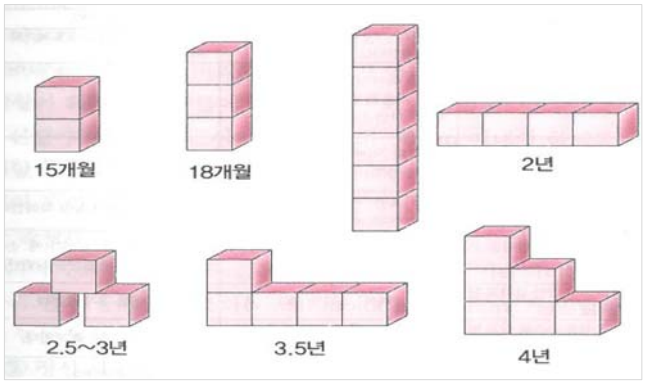
- 대근육 운동발달은 자세, 균형, 이동 등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음.
- 머리 가누기를 시작으로 앉기, 기기, 서기, 걷기, 뛰기, 한발로 서있기, 굽히기, 던지기, 뜀뛰기 등을 하기 위한 대근육 운동 기술은 팔, 다리, 몸통과 같은 대근육 발달과 관련이 있음.
- 손을 뻗쳐 잡기, 손가락으로 물건 집기, 끼적거리기 등 손이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소근육 운동 기술은 소근육과 눈과 손의 협응력 발달과 관련이 있음.
- 운동기능의 발달은 일정한 계열성을 갖고 있어서 기능별 발달 시기가 있으며, 일련의 순서에 의해 이루어짐.

- 영아기 운동기능발달은 근육과 신경조직, 그리고 중추신경과 골격의 성숙에 기초하여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눈, 머리, 목 등의 상체 운동에서 팔, 다리 등의 하체 방향인 두미 방향으로 발달하며 신체의 중앙 부위에서 시작하여 말초 방향으로 발달함.
- 유아기에는 달리기나 높이뛰기와 관련된 대근육 운동 기술과 단추 채우기나 그림 그리기 등의 눈과 손의 협응에 사용하는 소근육 운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 이 시기의 운동기술의 발달은 운동이나 춤추기 등 아동기의 다양한 신체 활동 능력의 기초가 됨.
- 연령별 운동기능발달특성을 참고로 개별적인 운동기능의 발달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며, 소근육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알아두면 발달지연 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소근육발달은 손으로 물건을 쥐는 모습, 입방체 쌓아올리기, 그림 보고 그리기 등을 보고 평가할 수 있음(안효섭, 2012, p. 31). 다만 다른 발달과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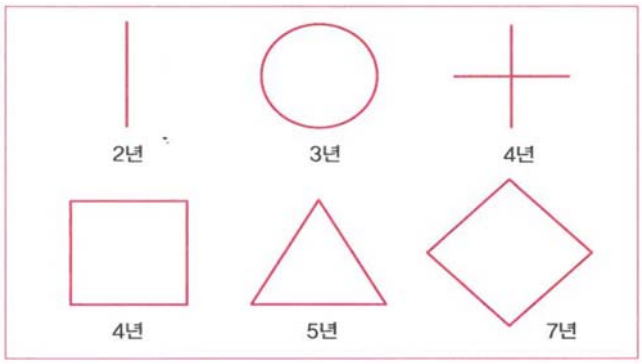


주: 입방체(cube)나 작은 알(pellet)을 주어 잡게 했을 때의 반응
A. 생후 4~5개월 : 손바닥과 척골 측 손가락을 사용하여 잡는다
B. 생후 6~7개월 : 손바닥과 요골 측 손가락을 사용하여 잡는다
C. 생후 7~8개월 : 손바닥에 닿지않고 요골 측 손가락들로 잡는다
D. 생후 6~7개월 : 손바닥들로 바닥을 긁어 움켜쥔다
E. 생후 7~9개월 : 엄지와 집게손가락 또는 다른 손가락의 일부로 집는다
F. 생후 9~10개월 : 엄지와 집게손가락의 끝 부분으로만 집는다

[그림 Ⅰ-1-2] 손으로 붙잡기



[그림 Ⅰ-1-3] 입방체 쌓아올리기(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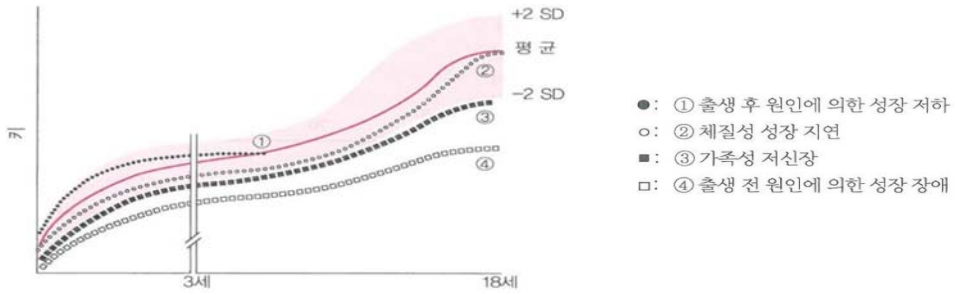


주: 연령별 운동 기능 발달은 부록 2(영유아의 대·소근육 운동발달) 참조.

[그림 Ⅰ-1-4] 그림 보고 그리기(copying)

신체운동발달영역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 신체운동발달영역의 문제행동은 신체발달이나 운동기능에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주로 발달지연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음.
- 신체운동발달영역의 문제는 신체적 성장과 관련된 문제, 움직임 및 운동기술발달지연, 건강 이상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신체적 성장 관련 문제는 성장장애, 비만 등 성장부진과 과다성장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일례로 성장 호르몬 부족이나 영양 결핍 등으로 인한 성장 장애가 생기게 되고, 과다 영양 섭취나 운동부족으로 인한 소아비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그림 Ⅰ-1-5] 소아의 성장곡선유형

- 운동기술발달지연은 연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신체적 성장 및 운동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경우를 말함.
  - 운동기술의 발달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근육이나 소근육발달의 미숙과 움직임에 대한 경험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그러나 간혹 뇌발달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운동기술의 발달에 장애가 생길 수 있음.
  - 영유아들은 기본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선호하는데 움직이기를 기피하고 싫어하는 영유아의 경우 심리적인 불안이나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신체문제 중 건강과 관련하여 신체기관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신체문제로 파생되는 경우가 있음.
  -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력, 청력 등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신체발달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 신체 내부 기관에 이상이 있어 문제가 있었으나 증상이 없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어린이집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날 경우가 있음. 일례로 간질로 인해 갑작스런 경기를 할 수 있음.
  - 구강 위생 등과 같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리가 잘 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영유아는 자신의 신체 기능에 대한 인식과 표현이 예민하지 못하므로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치료할 시기를 놓칠 수 있음. 영유아기에 신체 각 기관이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임.
  - 신체 기관 이상으로 인한 증상은 영유아의 외현적 행동이나 증상으로 나타나므로 교사의 예민한 관찰이 신체 문제의 조기 발견에 매우 도움이 됨.
  -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

02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 목록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은 다음 〈표 Ⅰ-2-1〉와 같으며 영아 5사례, 유아 6사례, 영유아 13개 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표 Ⅰ-2-1〉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 목록

		문제행동 사례	문제행동 관련유형
영아	1	걷지 못하는 경우	A. 대근육
	2	걸을 수 있는데 걷지 않고 항상 안아달라고 하는 경우	
	3	엄지-검지를 쓰지 않고 크레파스를 손전체로 잡는 경우	B. 소근육
	4	숟가락을 사용할 때 많이 흘리는 경우	
	5	블록을 3개 이상 쌓지 못하는 경우	
유아	6	다리 힘이 약하여 자전거 페달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	A. 대근육
	7	점핑 등과 같은 대근육 동작을 못하는 경우	
	8	팔의 힘이 약해 공을 던지지 못하는 경우	
	9	사다리, 정글짐과 같은 기구에 오르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	B. 소근육
	10	가위를 사용해 도형오리기를 잘 못하는 경우	
	11	동작이 너무 느린 경우	C. 움직임 특성
영유아	12	걸음걸이나 뛰는 자세가 불안정 하여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는 아이	A. 대근육
	13	항상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	
	14	움직이기를 싫어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 아이	C. 움직임 특성
	15	쉬지 않고 심하게 많이 움직이는 아이	
	16	눈을 찡그리거나 비비고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아이	D.질병관련
	17	코를 자주 파고 킁킁거리는 아이	
	18	소리를 잘 못 듣는 아이	
	19	입에서 구취가 나는 경우	
	20	두통을 자주 호소하는 경우	
	21	심한 변비	
	22	잦은 소변(빈뇨)	
	23	비만인 경우	
	24	체격이 심하게 왜소한 경우	

03 신체운동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연령별 신체운동발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

영유아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

-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체운동발달 관련 행동을 관찰해야 함
  - 급·간식을 잘 먹는지, 음식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는지, 잠을 잘 자는지, 움직임이 활발한지 혹은 거의 잘 움직이지 않는지, 사물을 보는 자세나 소리에 반응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등
- 놀이나 활동 속에서 영유아의 신체움직이나 운동기능을 관찰하고 파악해야 함. 즉 복합놀이대에 오르기, 운동장에서 달리기 등 대근육 운동기술이 적절히 발달되었는지, 가위로 오리기, 구슬 꿰기 등 소근육 운동 기술이 적절히 발달되었는지 여러 장면에서 살펴보아야 함

매일의 시진을 통한 건강 점검과 키와 몸무게 측정 등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문제로 예측될 경우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함

신체운동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어야 함

- 영유아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실내·외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시설과 교구 등을 준비해야 함
- 신체 움직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제공된 시설 및 교구의 안전 상태를 반드시 점검 확인한 후 제공하도록 함

신체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함

- 하루 일과 중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30분 이상 마련해 주도록 함

신체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호작용을 해 주어야 함

- 신체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연령이므로 도전과 숙달을 위한 교사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함

- 움직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이의 경우 교사의 지지와 격려가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음

- 신체운동 기능발달에 지연이 있을 경우 지연된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개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신체 건강과 관련된 이상 증후로 판단될 경우 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Ⅱ.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01 걷지 못하는 경우

00이는 18개월이다. 00이는 옆에 있는 물건을 잡고 일어날 수는 있지만, 손을 떼고 걸음마를 시도하면 이내 넘어지고 스스로 걸을 수 없다.

[그림 Ⅱ-1-1] 걷지 못하는 영아

가. 원인 분석

대근육 능력 발달 미숙

- 일반적으로 12~13개월 정도의 영아는 성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걸을 수 있음.

불안이나 두려움이 많은 성격

- 겁이 많은 영아는 매사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며 걷다가 넘어 질까봐 또는 걷는 것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으로 인해 걷기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음.

급하거나 느긋한 성격

- 성격이 급한 영아는 걷는 것 보다 기어가는 것이 빨라 걷기를 천천히 시도하기도 함. 반면 성격이 느긋한 영아는 매사에 급할 것이 없어 걷기 시도를 천천히 하기도 함.

뇌발달 이상

- 신체발달은 뇌발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 문제가 아닌 뇌의 이상에 의해 걷지 못할 수 있음.

근육병

- 근육병이란 점진적인 근력 감소로 인한 보행 능력의 상실과 호흡 근력의 약화, 심장 기능의 약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임.

나. 지도 방법

영아들은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영아보다 몇 개월 늦게 걷는다고 해서 문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 하지만, 생후 18개월이 지났는데도 혼자서 걷지 못한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함.

영아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영아가 걷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교사의 도움으로 영아가 바로 걸을 순 없지만 영아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교사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영아의 대근육 능력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 교사와 손 잡고 스펀지 계단 오르내리기, 걸음마 보조기 잡고 걸음마 시도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영아의 대근육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음.
  - "00아~ 선생님이랑 함께 걸어보자. 선생님 손 잡고 한발~ 한발~"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영아의 시도를 격려하기

- 영아의 걷기 연습을 도와준다고 교사가 손을 잡고 억지로 걷게 하거나 걷기 연습을 강요하면 영아가 걸음마 자체에 거부감을 갖게 됨. 걷는 것에 대해 불안을 갖고 있는 영아를 위해 교사는 편안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 영아가 걷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결과 보다는 과정을 격려해주기.
- 걸음마 보조기와 같이 영아가 혼자 잡고 일어서거나 걸을 수 있는 교구를 준비하여 영아가 부담 없이 걷기를 시도하도록 하기.
  - "아이쿠! 00이가 혼자 걷다가 넘어졌구나. 선생님이 도와줄께요."
  - "00이가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어보자. 와우~ 00이 혼자서도 열심히 하네~"
  - "00아~ 저기 빨간 책상까지 걸어볼까? 영차~ 영차~"

영아가 걷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칠 만한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여 영아가 느끼기에 안전한 환경 제공하기

- 교구장은 벽 쪽으로 붙여 영아가 부딪히지 않고 걸음마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기.
- 창틀이나 교구장 등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모서리 보호대 하기.

영아의 기질과 성격을 인정하고 편안하고 개방적인 태도 갖기

- 급한 성격의 영아는 서툴게 걷는 것보다는 기어가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걷지 않을 수 있음.
- 느긋한 성격을 가진 영아는 무슨 일에든 급할 것이 없어 걸음마가 늦기도 함. 이러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 걸음마를 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음. 교사는 영아의 기질과 성격을 인정하고 영아가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도와주기.
  - "00이는 걸어가는 것 보다 기어가는게 편하구나. 선생님 손잡고 한번 걸어볼까?"

대근육발달이나 뇌발달 이상, 근육병과 같이 교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인 경우 학부모와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함.

다. 유의사항

무리한 걸음마 연습은 영아가 걷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음.

가정과의 연계

- 걸음이 느린 경우 부모가 걱정하는 마음을 교사에게 표현하기도 함.
- 또래와 비교하여 자신의 자녀가 걸음마를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 아이들마다 발달의 속도가 다르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의 시도를 격려해줄 것을 부탁하기.
- 결과보다는 아이가 걸음마를 시도하는 과정, 용기 등을 칭찬해줄 것을 부탁하기.

참고자료

▶ 영아의 대근육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 걷기는 영아의 다리 근육 및 무릎의 힘 등이 협응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 걸음마 연습 이외에 영아의 다리근육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음.

활 동 명 : 공기매트 위에서 놀아요
활동자료 : 공기매트(뽁뽁이: 물건이 깨지지 않게 싸는 비닐)
활동방법 : 1. 길게 연결한 공기매트를 탐색한다.
2. 공기매트 위에 앉아서 엉덩이를 움직여보거나 손가락으로 눌러본다.
3. 공기매트 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나가본다.
-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볼까요?
- 살금살금 기어볼까요?
- 애벌레처럼 엎드려서 지나가볼까?
참고사항 : 영아의 흥미와 걸음걸이를 확인한 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1세 영아 프로그램.

02 걸을 수 있는데 걷지 않고 항상 안아달라고 하는 경우

00이는 28개월이다. 00이는 혼자서 잘 걸을 수 있지만 항상 교사에게 안아달라고 한다. 실외놀이, 산책 등과 같은 야외활동 뿐 아니라 화장실 가기, 영역을 이동하여 놀이할 때와 같이 실내에서 움직일 때도 항상 두 팔을 벌려 교사에게 안아달라고 요청한다.

[그림 II-2-1] 걷지 않고 안아달라고 하는 영아

가. 원인 분석

교사의 관심 끌기

- 다른 영아들보다 자신이 교사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영아의 자연스러운 욕구임. 특히, 한 반에 영아의 수가 많은 경우 또는 학기 초에 이러한 관심 끌기 행동은 더욱 강해짐.

불안한 마음 및 의존적인 성격

-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하지 않거나 매사에 혼자서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성격일 경우 안아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게 됨.

게으른 성격

- 움직이거나 활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으른 성격일 경우 교사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함.

나. 지도 방법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영아가 지낼 경우 걷지 않고 안아달라고 하는 행동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음. 하지만,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특정 영아가 계속해서 안아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나머지 영아들을 돌봐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어려움을 느껴 문제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영아의 문제가 아닌 단체 생활로 인한 교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영아를 문제 있는 아이로 간주하는 것은 피해야 함. 하지만, 걸을 수 있는 영아의 경우 스스로 걷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건강한 영아의 경우 스스로 걸어 다니며 자유롭게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것을 즐김.

- 평소 교사가 영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기
  - 나이가 어린 영아들에게 단체생활은 어려운 일임. 다른 영아들보다 자신이 교사의 관심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교사는 평소 영아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호작용해야함.
  - 등·하원시 개별적인 관심을 보이며 반갑게 인사하기, 눈 맞추기, 스킨십 자주 하기, “사랑해~ 자랑스러워~”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하기.
    - “00이 오늘 빨간색 나비가 그려진 옷을 입고 왔구나~”, “선생님은 00이를 사랑해~~”

- 영아의 시도 지원하기
  - 겁이 많고 의존적인 영아의 경우 영아가 스스로 걸어볼 수 있도록 교사가 개방적인 태도로 영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함. 일단, 혼자 걷는 것에 대해 영아가 느끼는 불안한 마음을 읽어주고 교사와 함께 서서히 혼자서 해볼 있도록 안내하기.
    - “00이 선생님이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00이 손잡고 같이 걸어보고 싶은데.. 선생님 손잡고 걸어볼까?”

- 신체활동에 흥미 갖도록 하기
  - 게으른 성격으로 인해 걷기 싫어하는 영아는 평소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신체활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기. 혼자서 잘 걷을 때, 붕붕카를 타는 등 스스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영아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기.
  - 신체활동의 예 - 실외놀이터에서 걸어보기, 달리기, 자전거타기, 바람개비 날리기, 보육실에서 선 따라 걷기, 붕붕카 타기, 유니바 넘기, 공 던지고 받기
    - “와우~ 00이가 혼자서 잘 걷네. 혼자서 잘 하는 00이 참 멋지다~”
    - “00이가 유니바를 넘고 있구나. 힘들텐데 혼자서도 참 잘한다~”

다. 유의사항

영아가 혼자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영아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면 영아는 교사에게 거부당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영아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피해야 함. 안기고 싶어 하는 영아의 마음은 읽어주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아가 혼자 걸어보도록 제안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 "00이 선생님이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00이 손잡고 같이 걸어보고 싶은데.. 선생님 손잡고 걸어볼까?"
- "00이 선생님한테 안기고 싶구나~(한번 꼭 안아준다). 선생님도 00이 계속 안아주고 싶은데 지금은 친구들 손 씻는거 도와줘야 하니까 00이가 한번 혼자 해볼까?"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 "(단호하게) 안돼! 00이 혼자 걸을 수 있잖아. 선생님 친구들 도와줘야 해서 00이 안아줄 수 없어요. 혼자 걸어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영아라 할지라도 학기초 적응기간에는 새로운 환경이 낯설어 교사에게 안겨만 있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영아의 경우 새로운 반과 선생님, 또래, 하루 일과에 적응이 된 후에는 교사에게 안겨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놀이에 참여하게 됨.

가정과의 연계

- 가정에서도 영아가 혼자 걸었을 때 충분히 격려해주기를 부모에게 안내하기.
- 영아가 혼자 걸을 수 있는데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해 안겨서 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 만약, 부모의 과잉보호로 그렇다면 혼자 걸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 스스로 걸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유익한 것임을 부모에게 알리기.

03 엄지, 검지를 쓰지 않고 크레파스를 손 전체로 잡는 경우

만 1세인 ○○는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이용하여 크레파스를 잡지 못하고 손가락 전체로 움켜쥐고 그림을 그린다.

[그림 II-3-1] 크레파스를 손 전체로 잡는 영아

가. 원인 분석

유전적·환경적 요인

- 유전적으로 소근육운동발달이 늦은 가계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아이에게 주어진 자극이 부족한 환경 탓에 발달이 잠재되어 있고 발현이 늦어지는 것일 수 있음.

손의 힘이나 기술적 정교함의 부족

- 손동작발달이 느린 현상적 문제만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본다면 첫째, 손에 힘을 모으는 신체적 작업이 서툴거나 둘째, 손가락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움직이는 기술적 정교함이 부족하기 때문임.

뇌발달 이상

- 뇌발달에 이상이 있을 수 있음. 손동작과 뇌의 발달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손동작이 정밀하지 못하고 정상보다 발달이 많이 늦다면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검사가 필요함.

나. 지도 방법

손아귀 힘(악력)을 키워 주기

- 손에 힘을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힘을 모아서 목표를 성취하는 연습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함. 찰흙을 움켜쥐기, 한 손으로 신문 잡고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찢기. 신문지 격파 등의 활동이 도움이 됨.
  - "○○아, 이 공처럼 동그란 찰흙을 한 손으로 잡고 꽉 힘을 줘서 모양을 뭉그러뜨려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을 꽉 주는 거야."
  - "△△이는 왼손으로 이 신문을 잡아 보자.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두 손가락으로 이 끝을 잡고 좍좍 찢어보면 어떨까? 국수같이 좍좍 길게 찢어 보세요."
- 유아용 철봉에 매달리는 운동을 자주 시킴. 매달려있는 시간을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조금씩 자주 하도록 이끌어 줌.
  - "자, 지금부터 철봉 매달리기 놀이를 할 거에요. 누가 먼저 해볼까요? 우리 △△이부터 해볼까?"
- 조금 무게가 나가는 책이나 물건을 높은 곳에 올려놓는 놀이를 하게 함.

손가락 운동을 자주 시켜주기

-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고 접고 하는 놀이를 많이 하도록 유도함.
- 손가락 접고 펴면서 수세기하기, 노래하면서 손가락 하나씩 접고 펴는 동작을 율동으로 따라하기 등 소근육 정교화를 위한 운동을 매일 하도록 함.
  - "○○아, 선생님이랑 이 노래하면서 율동해보자. ♪♪엄지 어디 있니, ~엄지 어디 있니, 여기 있어, ♬~"

다. 유의사항

시간을 두고 손가락 힘과 정교성을 높이는 연습을 꾸준히 하도록 지도함.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비슷한 놀이를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손가락과 손아귀 힘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의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고 가정에서도 함께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함.

- 교사가 판단할 때 다른 아이에 비해 매우 심하게 소근육발달이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유해도 좋음. 이 경우 다른 아이보다 6~12개월 정도 발달이 느리다고 생각된다면 검진을 받아볼 만한 정도임.

04 숟가락을 사용할 때 많이 흘리는 경우

OO(만 2세)은 숟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 되었으나 급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많이 흘리거나 자주 쏟는다. 숟가락을 쓰는 모습이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

[그림 II-4-1] 정교한 숟가락질을 하지 못하는 영아

가. 원인 분석

- 소근육발달의 미숙
  - 소근육 협응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손가락 근육을 이용하여 숟가락을 잡은 동작이 정확하지 않거나 입으로 가져가는 손 이동 동작이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 연령이 많아지면 당연히 좋아질 것이지만 또래에 비해 숟가락을 잡고 떠먹는 동작이 어색하다면 바로잡아 주는 도움이 필요함.

나. 지도 방법

- 손바닥과 주먹이 아니라 엄지와 다른 손가락들을 이용한 정상적인 숟가락 잡기 방식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함.
  - 숟가락을 고쳐 잡도록 도와주면 처음에는 하기 싫어하고 오히려 더 많이 흘리고 쏟을 수 있음. 교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느린 변화를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함. 손가락 잡는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매일 조금씩 연습 시간을 늘려 줌.
    - "이게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이야. 숟가락은 첫째가 위로 오게 이렇게 (시범보임) 잡아야 한단다. 선생님이 도와줄게, 한 번 해보자."

- 다른 소근육발달 지체 문제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의 힘과 팔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놀이 활동을 하도록 지도함.
  -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 조각을 집고 맞는 위치에 끼워 넣는 (연령에 맞는) 퍼즐 놀이를 자주 하도록 유도함.
  - 블록 쌓기를 하면서 무너뜨리지 않고 조심해서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주의력을 길러 줌.
  - 건반 악기 모형의 장난감을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 각각으로 눌러서 소리가 나도록 놀이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놀아줌.
    - "이건 피아노야. 피아노는 이 건반 하나에 손가락을 하나씩 얹고 쳐야 하는 거란다. 선생님 손가락 볼까?(시범). 이 뚱뚱이, 길쭉이, 홀쭉이(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 이름)로 피아노를 하나씩 눌러야 해. 여기 건반 많으니까 우리 한 손가락으로 하나씩 눌러보자."

[그림 II-4-2] 손가락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놀잇감의 예

- 음식물 담은 숟가락을 입까지 옮겨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환경 만들기. 이러한 환경을 통해 덜 쏟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음.
  - 아이가 식탁에 바짝 붙어 앉도록 자리를 정리해주고 그릇을 몸 가까이로 당겨줌.
  - 식탁의 높이가 앉은키에 비해 너무 낮거나 높은지 확인하고 적절한 높이로 맞추기.
    - "우리 00이~ 조금 밖에 안 흘리고 잘 먹는구나. 계란이 00이 입 속으로 쏙 들어가네~. 00이도 선생님처럼 숟가락질 하는구나. 너무 너무 잘 했어."

다. 유의사항

-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숟가락을 잡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바꿔주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시키는 일이므로 아이가 힘들어 할 수 있음. 억지로 하도록 강요하는 느낌을 주지 말고 더 쉽고 재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며 매일 조금씩 연습하여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함.

05 블록을 3개 이상 쌓지 못하는 경우

OO이(18개월)는 블록 쌓기를 잘 하지 못한다. 또래 영아들은 한 손으로 블록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블록을 쌓아올리는 동작에 재미를 붙이고 잘 하는 반면, OO이는 두 손으로 블록을 잡고 쌓기를 하며 균형을 잘 잡지 못해 3개 이상 쌓지 못하고 무너뜨리고 만다.

가. 원인 분석

- 소근육 및 손과 눈의 협응력 발달 미숙
  - 소근육과 손과 눈의 협응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한 손으로 블록을 잡고 다른 손으로 모양을 맞추어 위에 하나씩 올려놓아야 하는 쌓기 방법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임.

나. 지도 방법

- 블록의 크기가 영아가 잡기에 적절하고, 정육면체 등과 같이 굳이 모양을 맞추지 않아도 쉽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블록으로 쌓기 연습을 하도록 함.

- 이후 직육면체나 오각기둥 등 모양을 맞추는 기술이 필요한 다양한 모양의 블록으로 진행하도록 함.
- 블록 쌓기에 자신감을 가진 후 모양뿐 아니라 크기 또한 다양한 블록을 준비하여 쌓아보도록 격려함.

한 손으로 블록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블록을 쌓아올리는 모습을 시범 보이고 따라하도록 지도하기

- 이 때 블록이 아동의 가까이에 있어 몸을 기울이지 않고도 한 손으로 잡고 있을 수 있는 간격이어야 함. 아이의 편에서 무게 중심을 흩트리지 않고 쉽게 몸의 상체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블록을 팔이 닿는 거리 안쪽에 두고 쌓기를 하도록 지도함.
  - "자, 블록을 ○○이 가까이 놓고 쌓아보자. 너무 멀리 놓고 하면 잡고 있기가 힘들거든."
  - "○○야, 이렇게 왼손으로 이 빨간 블록을 잡고 오른손으로 요기 노란 색 블록을 집어서 빨간 색 위에 올려놓는 거야. 왼손으로 이 빨간 색을 먼저 잡고 있어야 해. 그래야 안 넘어 지거든.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자, 꼭 이 손으로 바닥에 있는 블록을 먼저 잡고 쌓아 올리기다. 그렇지, 잘 했어요."

눈과 손의 협응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놀이들을 해 봄.

- 막대기에 고리를 거는 놀이를 하게 함. 기다란 막대기에 둥근 고리를 걸어 보게 해서 협응 훈련을 할 수 있음.
- 처음에는 가는 막대기에 큰 고리를 걸어 쉽게 걸 수 있게 하고 점차 막대기는 굵어지고 길이도 작아지고 고리의 구멍 또한 작아지도록 하여 막대기를 구멍에 맞출 수 있는 연습이 되도록 함.
  - "자, 이 막대기를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은 이 둥그런 고리를 잡아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대기에 고리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 크레파스를 쥐고 꼬불꼬불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서 떼지 않고 선을 그어가는 연습을 해 봄.
- 선을 따라서 같이 그려보고 마지막에는 원이나 사각형 등 큼지막한 간단한 도형 모양도 같이 따라 덧그려볼 수 있는 놀이판을 준비하여 즐겁게 해보도록 지도함.

다. 유의사항

- 눈과 손의 협응발달 속도는 아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것은 유전적 성향이나 인지발달, 운동능력의 발달 등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발달 속도의 차이이므로 이러한 개인차를 교사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요구됨.

- 앞서 제시된 몇 가지 놀이 외에 교사의 손 움직임을 따라서 그대로 해보기라든지 같은 모양 찾기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지도 방법들을 교사가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아이가 자주 따라해 볼 수 있도록 끈기를 갖고 지도하기

참고자료

▶ 영아의 소근육과 손과 눈의 협응력 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활 동 명 : 길을 따라 드라이브해요
활동자료 : 미니 자동차 장난감, 도로 그림이 그려진 전지(또는 카페트)
활동방법 : 1. 자동차를 손가락으로 잡고 바퀴를 바닥에 대고 굴려본다.
2. 도로 그림을 바닥에 깔고 전체 모습을 탐색한다.
3. 자동차를 잡고 도로를 따라 바퀴를 굴려 앞으로 가도록 한다.
- 꼬불꼬불 도로로 드라이브 해 볼까요?
- 쭉 뻗은 도로에서 신나게 운전해 볼까요?
- 길옆에 집들이나 나무에 자동차를 부딪치면 안돼요. 그럼 다치겠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전하기.
참고사항 : 1. 영아가 자동차 놀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 및 다양한 종류의 도로 그림을 준비한다.
2. 도로 옆선을 건드리지 않고 자동차 움직이는 모습을 선생님이 보여주고 영아 옆에서 정교하게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준다.

06 다리 힘이 약하여 자전거 페달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

00이는 48개월이다. 00이는 혼자서 세 발 자전거 페달을 돌리지 못하고 교사에게 밀어달라고 하거나 다리를 땅에 끌며 자전거를 움직인다.

[그림 II-6-1]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 유아

가. 원인 분석

대근육능력발달 미숙

-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면 능숙하지 못하더라도 혼자서 세 발 자전거를 탈 수 있고, 48개월 정도에는 능숙하게 탈 수 있음.

경험 부족

- 자전거를 타 본 경험 부족으로 연습할 기회가 없는 경우

뇌발달 이상

- 뇌발달 이상으로 대근육운동발달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세 발 자전거의 페달을 돌리기 위해서는 다리 근육의 힘이 있어야 함. 뇌발달 이상의 문제가 아닌 경우 다리 근육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해야 함.

영아의 다리 근육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 다리 근육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으로는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정글짐 오르내리기 등이 있음. 실외놀이터에서 그냥 걷고 달리는 것도 유아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지만 유아의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해 평소 해당 유아가 좋아하는 대상이나 사물, 주제 등을 민감하게 관찰하여 활동에 적용하면 더 좋음.
- 예를 들어, 평소 영웅 만화 캐릭터(슈퍼맨, 파워레인져 등)를 좋아하는 유아라면 슈퍼맨처럼 뛰어보기, 슈퍼맨 되어 훈련하기(릴레이, 점프하기, 복합놀이대 올라가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음.
  - “00이 슈퍼맨처럼 저기 나무까지 뛰어 갔다 와볼까요?”
    “슈퍼맨들! 달리기 시합 할 준비 되었나요? 준비 출발!”
- 일반적인 걷고 달리기 뿐 아니라 선따라 걷기/ 달리기, 옆으로 걷기/달리기, 천천히 걷기/달리기, 빨리 걷기/달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활동 실행하기.
- 혼자서 걷고 달리는 활동 뿐 아니라 친구와 짝지어 걷기/달리기, 친구에게 부딪히지 않게 걷기/달리기 등 또래와 함께 활동할 수 있음.

세 발 자전거 타는 연습하기

- 세 발 자전거를 혼자서 타 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 연습 부족으로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행동이 미숙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평소 실외놀이터에서 세 발 자전거 타기를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기회 마련하기.
- 만약, 실외놀이터에서 자전거 타기가 어렵다면 실내용 자전거를 이용하여 보육실, 강당, 유희실과 같은 장소에서 타 볼 수 있음.

유아가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긍정적인 강화하기

- 또래들은 혼자서 자전거를 잘 타는데 자신만 잘 타지 못 할 경우 좌절감을 느껴 자전거 타기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음. 비록 혼자서 하는 것이 미숙하다하더라도 교사가 유아의 시도와 노력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어야 함. 또래와 비교하여 유아를 비하하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 "00이 자전거 페달이 잘 안돌려지는구나. 선생님이 도와줄까? 한발은 오른쪽, 한발은 왼쪽에 올려 놓고. 다리를 빙글빙글 돌려보자. 와우~ 00이 다리를 열심히 돌리고 있네"
- "00이가 열심히 돌려서 앞으로 자전거가 움직이네.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해볼까?"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 "00이 형아지? 이제 다 컸으니 혼자 타야지..."
- "00아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발을 여기 올려. 그리고 돌려.. 아니~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아유~ 넌 왜 그것도 못하니?"

- 뇌발달의 이상이 있는 경우 대근육발달이 미숙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 타기 뿐 아니라 혼자 걷기, 달리기 등 다리 근육의 힘을 요하는 다른 행동들의 발달도 지연될 것임. 유아의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하여 이상이 느껴질 경우 전문의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다. 유의사항

- 다리 근육의 힘이 부족하여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전거 타기'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자전거 타기 뿐 아니라 멀리뛰기, 달리기 등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다리의 대근육 힘이 부족한 경우 생기는 문제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적용하여 유아를 지도할 수 있음.

- 가정과의 연계
  - 가정에서 자전거 타기 등 대근육 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지에 대해 부모에게 물어보고 만약 그러할 경우 주말 등을 이용하여 부모와 함께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부모가 또래와 비교하여 자전거를 혼자서 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아를 혼내지 않도록 따뜻한 분위기에서 격려해줄 것을 부탁하기

참고자료

▶ 다리 대근육 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활 동 명 : 누워서 자전거를 타요
활동자료 : 낙하산, 자전거를 타는 다양한 모습의 사진(누워서 타는 자전거, 누워서 타는 2인용 자전거, 외발 자전거 등)
활동방법 : 1. 동그랗게 모여앉아 자전거를 타는 다양한 모습을 살펴본다.
2.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본다.
- 자전거 탈 때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지?
- 빠르게/느리게 달릴 때는 어떻게 움직일까?
3. 누워서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본다.
- 누워서 자전거를 타볼까?
- 옆 친구와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다리를 들고 자전거 타는 것처럼 움직여볼까?
- 빨리/느리게 달리는 자전거가 되어 볼까?
4. 낙하산 아래 누워서 낙하산천을 발로 차며 자전거 타기를 해본다.
- 낙하산 끝을 잡고 자전거를 타볼까?
- 자전거를 타는 흉내를 내니 낙하산이 어떻게 움직이니?
5. 자전거 타 본 느낌을 이야기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2013).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07 점핑(jumping)[4] 등과 같은 대근육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 원인 분석

00이는 49개월이다. 00이는 점프할 때 두 발을 번갈아 굴러 위로 뛰거나 착지 할 수 있지만, 두발을 동시에 디뎌 위로 점프 하거나 착지 하지 못한다.

대근육발달 미숙

- 일반적으로 24개월: 두발을 모아 제자리에서 뜀.

4) 위로 높이 뛰기

36개월: 바닥에서 두발을 모아 앞으로 뜀.
48개월: 한발을 들고 뜀.
60개월: 한발을 번갈아들고 뜀.

균형감 부족

- 머리가 큰 영유아의 신체 구조상 몸의 균형 잡기가 어려움. 균형감이 부족할 경우 점프(착지)할 때 두발을 모아 점프(착지)하지 못하고 시간차를 두고 두발을 엇갈려 점프(착지) 하게 됨.

나. 지도 방법

대근육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 실시하기

- 이동 동작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평소 기초적인 대근육 활동 실시하기
  예)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등
- 점핑 등과 같은 대근육 동작을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 해보기.
  예) 제자리에서 두발 모아 깡충 뛰기, 앞으로 전진 하며 깡충 뛰기, 최대한 높이 뛰기, 토끼처럼 뛰기, 트램폴린 위에서 뛰기, 음악에 맞추어 뛰기, 공차기.
  - “00아~ 다리를 붙이고 위로 뛰어볼까? 두발을 동시에 위로 올릴 수 있을까?”

균형감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 실시하기

- 점핑과 같은 대근육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몸의 균형감이 발달하여야 함. 영유아의 경우 머리가 크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잡기 어려워 성인에 비해 균형감이 떨어짐.
- 균형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 해보기.
  예) 다섯 셀 동안 한발로 서있기, 발꿈치로 서기, 목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발과 다리로 균형 잡기, 발을 붙이고 발끝으로 서기 등
- 균형감을 기르기 위해 눈을 감고 신체 동작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됨.
  예) 눈감고 한쪽 발 들기, 눈감고 손 뻗어 만세하기 등
  - “00아~ 선생님이 셋 셀 동안 한발로 서 있을 수 있겠니?”

다. 유의사항

영유아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발달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문제행동으로 간주하긴 어려움.

영유아 개인의 발달 속도를 잘 관찰하여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린 영유아의 대근육발달을 지원하는 교사의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자세가 필요함. 하지만, 평균적인 발달지표에 비해 6개월 ~ 1년 이상 발달이 느린 경우는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함.

- 점핑 뿐 아니라 호핑[5], 갤로핑[6]과 같은 이동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준하여 지도할 수 있음. 호핑, 갤로핑 능력 증진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활동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호핑) 간단한 악기에 맞춰 호핑하기, 음악에 맞추어 호핑하기, 직선·곡선 등 다양한 선을 따라 호핑하기, 다양한 방향으로 호핑하기

갤로핑) 갤로핑 하다가 멈추기, 원 안에서 갤로핑하기, 짝과 함께 갤로핑 하기

참고자료

▶ 유아의 호핑, 갤로핑 발달단계

호핑	3세	편한 발로 3~5번 정도 호핑한다.
	4세	같은 발로 8~10번 호핑한다.
	5세	리듬에 맞추어 발을 바꾸어 가며 호핑한다.
갤로핑	3세	초보적인 수준의 갤로핑을 시작한다.
	5세	자연스럽게 갤로핑을 할 수 있다.

자료: 박영아 (2013). 유아동작교육. 교육과학사.

▶ 유아의 대근육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 점프와 같은 이동 동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리 대근육을 이용하는 기본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실시하는 것이 좋음.

5) 앙감질이라고도 함. 한발로 뛰어 올라 같은 발로 착지하는 동작.
6) 한발은 앞으로 걷고 다른 발은 달리듯 빨리 끌어다 내민 다리에 붙이는 동작(말이 뛰는 것처럼 엇박자로 뛰는 것)

활 동 명 : 쭉쭉 늘어나는 내 몸
활동자료 : 쭉쭉 늘어나는 내 몸 활동 예시 사진, 조용한 음악, 라텍스 밴드
활동방법 : 1.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 밴드를 이용하여 몸을 늘리는 다양한 동작을 해본다.
- 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운동해볼까?
- 팔로 밴드의 양끝을 잡고 발가락에 닿게 할 수 있을까?
- 누워서 밴드를 끼우고 몸을 길게 늘려볼까?
3. 밴드를 이용하여 모양 만들기를 해본다.
- 모양에는 어떤 것들이 있니?
- 세모(네모) 모양을 만들려면 밴드를 어떻게 늘이면 좋을까?
4. 활동을 하고 난 후 느낌, 생각을 이야기해본다.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2013).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08 팔의 힘이 약해 공을 던지지 못하는 경우

00이는 45개월이다. 00이는 공을 잡을 순 있으나 공을 던질 때 팔을 뻗어 일정거리를 던지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치듯이 던져 공이 멀리 나가지 않는다.

[그림 II-8-1] 공을 잘 던지지 못하는 유아

가. 원인 분석

대근육능력발달 미숙

- 일반적으로 20개월 정도에 손을 어깨 뒤로 젖혔다가 공을 던질 수 있고, 만 3세 유아의 경우 발을 고정시키고 몸을 회전하면서 팔을 뻗어 공을 던질 수 있음.

뇌발달 이상

- 뇌발달 이상으로 신체 운동 발달의 지연이 생길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초보 단계의 던지기는 사물을 잡고 있다가 손가락을 펼치면서 바닥을 향해 떨어뜨리는 동작을 함. 점차 익숙해지면 팔을 어깨 위로 올려서 사물을 던질 수 있게 되고 그 후에는 팔을 뒤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멀리 던질 수 있게 됨.

유아의 팔근육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 공을 잡고 던지기 위해서는 팔근육발달이 선행되어야 함. 유아의 팔근육발달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활동 실시하기. 예를 들어, 팔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기, 팔 돌리기, 팔 굽혔다 펴기, 팔 꼬기, 친구와 마주보고 팔 밀기/당기기 등과 같은 맨손 체조도 도움이 됨. 팔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유아 체조를 개발하여 유아와 함께 노래나 구령에 맞춰 실시해보기.
- 음률영역에서 개별 또는 소집단 활동으로, 대집단 활동시간에 모두 함께 또는 실내자유놀이를 정리하고 난 후 규칙적으로 팔 근육 증진 동작을 할 수 있음.
  - “손을 높이~ 손을 높이~ 쭉 쭉 올려볼까요?”
  “00이 손이 선생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네~”

교사가 시범 보이기

- 유아가 공 던지기를 어려워하면 교사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기. 공을 던지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주고 개별적으로 지도하기

유아가 또래와 비교하여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격려하기

- 친구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공을 잘 던지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유아는 열등감을 느낄

수 있음. 자신도 잘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연습하는 유아가 있는 반면, '나는 왜 못하지? 해도 안될 거야...' 라며 포기해 버리는 유아도 있음. 유아가 잘 하지 못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교사는 유아의 도전과 시도를 긍정적이고 따뜻한 태도로 격려 및 지원해주어야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 "00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00이가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은 00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 "왜 이걸 못해. 이렇게 쉬운걸.. 자 선생님 보고 따라해 봐~. 아니~ 그게 아니라~ 팔을 위로 올리고.."
- "너가 못하니까 더 열심히 연습해야지. 다른 애들은 잘 하잖아."

뇌발달의 이상이 있는 경우 대근육발달이 미숙할 수 있으므로 공 던지기 뿐 아니라 공 잡기, 팔 돌리기, 만세하기 등 팔 근육의 힘을 요하는 다른 행동들의 발달도 느릴 것임. 유아의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하여 이상이 느껴질 경우 전문의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다. 유의사항

팔 근육 힘이 부족하여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공 던지기'의 예를 들었는데, 공 던지기 뿐 아니라 공 받기, 높이 있는 물건 잡기, 물건 들어올리기 등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팔 근육 힘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적용하여 유아를 지도할 수 있음.

가정과의 연계

- 부모가 또래와 비교하여 자신의 아이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 유아를 혼내지 않도록 따뜻한 분위기에서 격려해줄 것을 부탁하기
- 결과보다는 아이가 놀이하는 과정, 용기 등을 칭찬해줄 것을 부탁하기

참고자료

▶ 유아의 대근육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 공 던지기와 같은 동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팔의 근육을 이용하는 기본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실시하는 것이 좋음.

활 동 명 : 부채춤을 추세
활동자료 : 부채, 부채춤 동영상
활동방법 : 1. 유아들에게 부채를 보여준다.
2. 부채춤 동영상을 함께 본다.
3. 부채춤 동영상을 본 후 함께 동작을 익혀본다.
- 부채로 어떤 모양을 만들었니?
- 부채로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팔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4. 유아들과 함께 부채춤을 춰본다.
- 너희들이 하고 싶은 동작을 마음껏 표현해보도록 하자.
- 00이는 팔을 둥글게 움직이고 있구나.
- ㅁㅁ이는 팔을 흔들며 뱅글뱅글 도는구나.
5. 부채춤을 춰 본 후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참고사항 : 팔근육의 힘이 약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처음부터 팔을 높이 들거나 어려운 동작으로 부채춤을 추지 않는다. 간단하고 쉬운 동작부터 실시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2013).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09 계단, 정글짐과 같은 기구에 오르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

00이는 만 3세이다. 계단을 올라갈 때 두발을 번갈아 올라가지 않고, 한발을 올리고 다른 발을 그 옆에 놓고, 또 한발을 올리고 다른 발을 그 옆에 놓는 식으로 계단을 올라간다.
ㅁㅁ이는 만 5세이다. 실외놀이터에 있는 사다리나 정글짐에 기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맨 아래 칸에 서서 다리와 팔을 어디에 둘 줄 모르며 위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포기한다.

[그림 II-9-1]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유아

가. 원인 분석

- 대근육능력발달 미숙
  - 만 3세가 지나면 사다리나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음

- 눈, 팔과 다리의 협응력 부족
  - 사다리나 정글짐을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목표로 하는 높이의 봉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팔로 봉을 잡고 다리로 아래나 위에 있는 봉을 밟아야 함. 팔과 다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 사다리나 정글짐에 오르내리기 힘들게 됨

- 겁이 많은 성격
  - 겁이 많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함.

나. 지도 방법

- 일반적으로 15개월에 층계를 기어오를 수 있으며, 18개월에는 서툴게 뛰고, 한 손으로 지지대를 잡고 층계에 오르기가 가능함. 24개월에는 혼자서도 잘 뛰며, 층계도 오르내릴 수 있음.

- 24개월 영아의 경우 성인이 손을 잡아주면 사다리와 같은 오르기 기구에 오르내릴 수 있고, 만 3세 이후의 유아는 오르기 기구를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며 즐기게 됨. 영유아의 대근육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나 평균적인 발달수준에 비해 6개월 ~ 1년 정도 행동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함.

- 오르기 기구를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팔의 힘과 다리의 힘이 있어야 함. 팔의 힘을 기르기 위해 팔 뻗기, 팔 구부리기, 팔 떨기, 팔 회전하기, 팔 흔들기, 팔 꼬기, 팔 당기기, 팔 밀기, 높고 낮은 곳에 있는 물건 내리기/들어올리기와 같은 동작을 평소에 연습하는 것이 좋음.
  - 음악에 맞춰 팔 운동 동작하기, 친구와 함께 하기, 다양한 도구(공, 리본테이프, 상자 등)을 이용하여 동작하기, 팀으로 나누어 게임하기 등의 방법으로 팔 운동을 재미있게 실시하기
  - 다양한 팔 동작이 들어간 간단한 체조를 만들어 일과 시간에 실시하기

- 다리의 운동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엎드려 기기, 기어가기, 걷기, 달리기, 점프하기, 멀리 뛰기, 점프, 호핑[7], 갤로핑[8] 등과 같은 동작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음.
  - 음악에 맞춰 다리 운동 동작하기, 친구와 함께 하기, 다양한 도구(리본테이프, 유니바, 훌라후프 등)을 이용하여 동작하기, 두 팀으로 나누어 게임하기 등의 방법으로 다리 운동을 재미있게 실시하기
  - 다양한 다리 동작이 들어간 간단한 체조를 만들어 일과 시간에 실시하기

- 눈, 팔과 다리의 협응력을 기르기 위해 팔과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동작 연습하기
  - 만세 하며 밧줄 뛰어 넘기, 엎드려 기어가기, 친구와 팔 흔들며 뛰기 등

- 교사가 시범 보이기
  - 계단 또는 오르내리기 기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교사가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면 유아가 함께 해볼 수 있음.

- 대근육발달에는 문제가 없으나 겁이 많은 성격으로 인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유아도 있음. 유아가 어려워하는 상황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자극을 늘려 시도하기
  - 처음부터 정글짐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은 무리임. 처음에는 한 단 → 두 단 → 세 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점차 자극의 수준을 높이기
  - 처음에는 교사가 유아의 손을 잡고 도와주다가 점차 혼자서 하도록 하기

7) 앙감질이라고도 함. 한발로 뛰어 올라 같은 발로 착지하는 동작
8) 한발은 앞으로 걷고 다른 발은 달리듯 빨리 끌어다 내민 다리에 붙이는 동작(말이 뛰는 것처럼 엇박자로 뛰는 것)

▶ **바람직한 상호작용**

- "00아~ 선생님이 손 잡아줄게...괜찮아~~ 00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와~ 00이가 혼자서도 정글짐 2층까지 올라 갔구나~ 00이가 겁이 났지만 용감하게 해냈구나~~"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 "뭐가 무섭다고 그래. 다른 친구들도 다 올라가는데.. 00이도 할 수 있지? 선생님이 보고 있을게. 한번 해봐~"

- 겁이 많은 유아의 성격을 고쳐주기 위해 처음부터 강도 높은 활동을 시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 쉬운 수준부터 시도하여 성공하는 경험이 유아의 자신감을 높여 더 어려운 상황을 도전할 수 있게 함.

다. 유의사항

- 오르내리기 기구는 영유아의 대근육발달에 유익하기도 하지만, 떨어질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특히, 오르내리기가 능숙하지 않은 영유아 혼자서 기구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교사의 관리가 중요함.

참고자료

▶ **영유아의 팔, 다리근육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 오르내리기와 같은 동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 대근육을 이용하는 비이동동작 및 이동 동작, 조작 운동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실시하는 것이 좋음

활 동 명 : 다양한 수영 방법 흉내 내기
활동자료 : 언어영역에서 만든 수영방법 설명서
활동방법 : 1. 언어영역에서 만든 '수영방법 설명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수영 방법을 흉내내본다.
2. 유아들이 여러 가지 수영 방법을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한다.
- 개헤엄/돌고래 헤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 팔과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참고사항: 영유아가 다양한 팔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물들이 수영하는 방법을 흉내 내도록 격려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2012). 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10 가위를 사용해 도형 오리기를 잘 못하는 경우

OO(만 4세)은 선을 따라 자르는 가위질을 잘 하지 못하고 오리기 시간에 짜증을 자주 낸다. 가위날로 종이를 정교하게 자르지 못하고 가위를 종이에 갖다 대고 뭉개듯이 집기 때문에 종이가 모양대로 잘라지지 않고 너덜너덜하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림 II-10-1] 가위질을 하고 있는 유아

가. 원인 분석

소근육과 눈과 손의 협응 발달 미숙

- 소근육과 눈과 손의 협응이 발달하지 못해 시각적인 정보와 손 근육을 이용하는 작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음.

- 뇌 기능 장애 또는 체내 물질 불균형
  - 두뇌발달 지체나 뇌 기능 장애로 인해 또래 아이들보다 소근육 발달이 늦고 체내 물질 불균형으로 집중력 장애가 있을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눈과 손의 협응 훈련을 꾸준히 하도록 함.
  - 연필로 선을 따라 그대로 긋는 연습을 한 페이지씩 규칙적으로 하기. 이 때 심이 가는 색연필을 이용해 선 긋기를 함으로써 정교함은 높이면서 지루함을 덜도록 함.
  - 선생님이 굵은 사인펜이나 보드마커를 활용하여 종이에 일직선을 긋고 아이가 이를 따라 가위질을 하도록 연습시킴. 선이 굵을수록 실수가 덜 드러나고 자르기가 쉬움.
  - 중간에 멈추지 않고 선의 끝까지 자르도록 하여 완성한 것에 대해 칭찬하기.
    - "선생님이 이 빨간 색 보드마커로 선을 그을게. 선생님 손가락 끝을 같이 보자. 자, 여기서 종이 끝까지 그었지? 이제 ○○이가 가위를 들고 이 선을 따라 천천히 잘라 볼까?"
    - "와~, ○○이 잘 했구나. 이번엔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잘라 볼까?"

- 가위질 하는 것에 재미를 붙여 간단한 오리기 과제들을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활동 제공하기
  - 간단한 도형을 가위를 사용해 오려내는 모습을 시범해 줌.
  - 가위로 오리기가 재미있는 활동임을 알게 하고, 오려낸 모양으로 다양하게 놀 수 있는 활동 제공하기(붙이기, 접기, 꾸미기 등)

다. 유의사항

- 오리는 작업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도형의 크기나 모양(단순한 모양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색깔, 종이의 재질 등을 다양하게 하여 오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도록 격려하기

- 가정에서 연습할 수 있는 재료와 가위질을 할 수 있는 놀이를 부모에게 알려주어 가정에서도 재미있게 가위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 가위의 크기가 아이의 손가락에 꼭 맞는 것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가위의 끝부분은 뭉툭하고, 가위 날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 안전 가위를 사용하기

11 동작이 너무 느린 경우

OO이(만 5세)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하는 활동에서 항상 제일 마지막까지 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바깥에 나갈 준비를 위해 외투를 입는 경우에 모든 아이들은 다 준비를 마쳐도 OO이가 옷입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선생님이 결국 다 해주게 된다.

가. 원인 분석

- 신체적발달이 느림
  - 대·소근육발달이 다른 아이보다 늦게 이루어져 손을 이용하여 하는 활동에서 속도가 늦을 수 있음.

- 기질적으로 꼼꼼함이 지나치거나 과도하게 느긋한 성격일 수 있음.
  -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이나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며 일의 속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과업 완성도에만 신경을 쓰는 성향을 가졌을 수 있음.
  - 성격이 느긋하여 매사에 천천히 함.

- 인지발달 지체 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을 수 있음.
  - 인지적 지체가 있으면 다른 아이보다 주의집중력이 떨어지고 문제해결력이 부족하여 어떤 활동도 끝까지 일정 속도로 마무리 할 수 없음. 주변 다른 아이들의 활동과 속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마쳐야 한다는 개념이 없음. 집중력이 부족하여 주변으로 시선이 흩어지는 시간이 많고 대부분의 활동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만두고 싶어 함.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경우도 위의 인지적 지체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중력 부족으로 활동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힘들고 속도가 늦은 특성을 보임.

나. 지도 방법

- 소근육발달이 늦은 아이일 경우, 손가락 움직임과 눈과 손의 협응력 발달을 위한 놀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손의 힘을 키워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즉, 철봉에 매달리기, 건반악기 장난감 손가락 하나씩 눌러서 연주하기, 큰 단추 끼우기 연습, 연령에 맞는 퍼즐 맞추기, 블록 쌓기, 가위로 모양 오리기 등을 자주 하게 함.

- 기질적으로 꼼꼼하거나 느린 성격의 아이인 경우, 작업의 속도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조금씩 빨리하도록 도와주고 속도에 대한 칭찬을 자주 함.
  - 활동의 마무리 부분을 도와주기보다는 과업의 중간 부분에서 교사가 조금씩 개입하여 진행의 속도를 다른 아이와 맞추도록 지원해 줌.
    - (외투를 입으려 할 때 가장 먼저 OO에게 가서) "OO이 코트를 잘 입고 있구나. 선생님이 소매에 팔 넣는 것만 살짝 도와줄게. 옷이 무거워 보이니까."
  - 과업의 마무리는 본인이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 주어 완성에 대한 자신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빼앗지 않도록 함. 적절한 속도로 일을 마친 것에 대해 반드시 칭찬해 줌.
    - (외투 입기를 마친 후) "단추까지 아주 잘 끼웠구나. 오늘은 00이가 혼자 옷을 빨리 입었구나. 우리 OO이 점점 더 잘 하는 것 같구나."

- 인지발달 지체 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의심될 경우 부모에게 알리고 아이의 행동이 유지되도록 계속 주의를 집중시키고 지속하도록 도움을 줌.
  - 우선 부모에게 교사의 의견을 정중하게 전하고 관련 기관이나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아보도록 안내함.
  - 한편 아이에게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행동에도 칭찬을 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대화를 자주함.
  - 가능한 한 선생님 가까이에 아이가 위치해 있도록 유도하며 과업 행동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도와주도록 함.
    - "선생님은 OO이 옆에 앉아야겠다. 이야,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어, 그만하고 싶어? 정말 잘 그렸는데 좀만 더 색칠하면 더 예뻐질 것 같은데. 선생님도 하고 싶어. 같이 해 보자."

다. 유의사항

- 동작이 느린 아이는 동일한 행동임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분석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교사는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 상태인지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많은 경우 위의 세 가지 원인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두가 중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이럴 때에는 지도법 또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교사가 참을성 있게 보고 기다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 그러나 아이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과업을 도와 단체 생활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이끄는 것 또한 신경을 써야 함.

12 걸음걸이나 뛰는 자세가 불안정하여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는 아이

00이는 26개월이다. 걸을 때 뒤뚱뒤뚱 걸으며 자주 넘어져 이마, 얼굴, 무릎 등에 상처가 자주 난다. 특히 얼굴에 상처가 나는 것을 싫어하는 00이 엄마는 00이가 넘어져 다칠 때 마다 교사에게 불편한 심정을 전하는 통에 교사는 00이가 불안하게 걷다가 넘어지는 상황이 매우 힘들게 느껴진다.
△△는 52개월이다. 걸을 때 휘청휘청 넘어질 듯 걷고, 자주 넘어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거나 친구와 자주 부딪혀 분쟁이 생기곤 한다.

[그림 II-12-1] 걷거나 뛸 때 잘 넘어지는 영아 또는 유아

가. 원인 분석

대근육능력발달 미숙

- 생후 15개월경 영아는 거의 넘어지지 않고 혼자 서고 걸을 수 있음.

균형감 부족

- 머리가 큰 영유아의 신체 구조상 몸의 균형 잡기가 어려움.

조절능력 미숙

- 걷거나 뛸 때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앞만 보고 걷거나 뛰는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힐 확률이 높아짐

나. 지도 방법

- 영아의 경우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걷는 시기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특히, 영아들의 신체 구조 상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몸의 균형 잡기가 힘들어 불안정한 자세로 걷는 경우가 많음.

- 유아의 경우 영아에 비해 몸의 무게 중심이 어느 정도 균형 잡히긴 했으나 다리힘이 부족하거나 시야가 좁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걷거나 뛰어 자주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음.

-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아이는 또래가 만든 구조물, 작품 등을 부서트릴 수 있고 친구들을 다치게 하여 또래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대근육발달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신체활동 하기.
  - 다리 힘이 약해 휘청휘청 넘어질 듯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리 근육의 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기.
    예) · 기어다니기 - 빠르게, 느리게, 앞으로, 뒤로, 애벌레처럼, 신호에 따라 등
    · 걷기 - 세게, 약하게, 큰 보폭으로, 작은 보폭으로, 군인아저씨처럼, 신호에 따라, 손뼉을 치며 등
    · 달리기 - 빠르게, 느리게, 무릎을 높이 들고, 호랑이처럼, 원을 돌면서 등
    · 공차기 - 오른발, 왼발, 멀리, 가까이, 친구에게, 축구 선수처럼 등
    · 점프, 호핑[9], 갤로핑[10]과 같은 이동 동작을 활용한 활동
    - 강하게, 약하게, 앞으로, 뒤로, 옆으로, 신호에 따라, 말처럼, 토끼처럼 등
    · 미끄러지기 - 다리를 좁게/넓게 벌리고, 한번, 여러 번, 스케이트 타듯이 등

- 균형감을 기를 수 있는 활동하기
  - 균형감이 부족하여 자주 넘어질 수 있으므로 균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계획하고 실행하기
    예) 다섯 셀 동안 한발로 서있기, 발꿈치로 서기, 목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발과 다리로 균형 잡기, 발을 붙이고 발끝으로 서기, 블록 위 걸어보기, 평균대 걷기 , 징검다리 건너기 등

9) 앙감질이라고도 함. 한발로 뛰어 올라 같은 발로 착지하는 동작
10) 한발은 앞으로 걷고 다른 발은 달리듯 빨리 끌어다 내민 다리에 붙이는 동작(말이 뛰는 것처럼 엇박자로 뛰는 것)

- 균형감을 기르기 위해 눈을 감고 신체 동작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됨
  예) 눈감고 한쪽 발 들기, 눈감고 손 뻗어 만세하기 등
  - "00아~ 선생님이 셋 셀 동안 한발로 서 있을 수 있겠니?"

주변을 살필 수 있도록 도움주기

- 시야가 좁고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걸어가는 습관을 가진 영유아를 도와주기 위해 걸을 때, 뛸 때 지켜야 하는 약속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 걸을 때(뛸 때) 앞/좌/우 상황 살피기, 너무 빠른 속도로 걷거나 뛰지 않기

다. 유의사항

영아의 경우 걷거나 뛸 때 균형을 잡기가 더 어려우므로 교실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교구장 등은 정리하여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걷거나 뛰다가 넘어져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서리 보호대와 같은 안전용품 세팅하기

참고자료

▶ 영유아의 대근육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 걷기(뛰기)와 같은 이동 동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리 대근육을 이용하는 기본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실시하는 것이 좋음.

활동자료 : CD 플레이어, 빠른 음악과 느린 음악이 연결된 CD
활동방법 : 1. 행진하는 것처럼 보육실의 이곳 저곳을 걸어본다.
2. 음악을 들으며 리듬에 맞춰 걸어본다
- 빠른/느린 음악이 나오네. 어떻게 걸어볼까요?
- 00이는 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느릿느릿 걷고 있네.
- ㅁㅁ이는 천천히 기어가는구나.

3. 음악에 맞춰 걷는 것이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걸어본다.
- 큰 걸음으로 걸을 때 팔은 어떻게 하면서 걸어볼까?
- 00이는 나비처럼 양 팔을 벌리고 걷고 있구나.
- 00이는 작은 걸음으로 걸을 때 몸을 웅크리고 걷는구나.

자료: 보건복지부 (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2세 보육프로그램.

▶ 영유아의 균형감 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활동자료 : 색테이프
활동방법 : 1. 교실 바닥에 미리 색테이프로 직선, 곡선 모양의 선을 붙여주고 영아가 관심을 보이면 탐색한다.
- 여기 어떤 길이 있니?
- 빨간색 구불구불 꼬부라진 길이 있구나.
2. 선을 따라 걸어본다.
- 빨간색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나요?
- ○○이가 조심조심 팔을 벌리고 꼬부라진 길을 걸어가고 있네.
- 구불구불한 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참고사항 : 균형감 발달을 위해 눈을 감고 걸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대근육발달 및 균형감 발달이 미숙한 영유아이므로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교사의 감독이 요구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2세 보육프로그램.

13 항상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

00이는 어린이집 일과 시간 중 거의 대부분을 교사나 벽, 쿠션 등에 기대어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 책을 보거나 놀이를 할 때는 물론 간식시간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바르게 허리를 펴고 앉기보다는 무언가에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가. 원인 분석

근육의 힘 부족

-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스스로 앉기가 가능함

생활 습관의 문제

- 평소 가정에서 누워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한 경우 또는 가정에서 부모가 누워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 누워서 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경우

컨디션 조절 실패로 인한 피로감

-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거나 쉬는 날도 없이 어린이집에 매일 등원하는 아이 또는 아픈 경우에도 쉬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의 경우 누적된 피로감으로 인해 누워서 생활하고 싶어 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영유아의 허리 근육 힘을 길러 줄 수 있는 활동 계획하고 실천하기

- 영유아가 관심을 갖는 주제나 놀이, 교구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들과 관련된 신체활동을 실시하여 영유아가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허리 근육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예)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영유아의 경우 실내, 실외에서 붕붕카 타기, 자전거 타기 등을 실시하기/영웅 만화 캐릭터를 좋아하는 영유아의 경우 영웅 캐릭터처럼 뛰어보기, 걸어보기 등의 활동을 실시하기
- 허리근육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신체활동 :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붕붕카타기, 훌라후프, 줄넘기 등

  - "00아~ 자전거 타볼까? 저기 있는 나무 앞까지 가보자~"
  - "00이 캥거루처럼 뛰어 볼 수 있겠니? 하나 둘 셋!"
- 높이 올려져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리는 운동, 쌓여져 있는 물건 내려놓기 등의 운동은 허리근육 강화에 특히 도움이 됨.

영유아가 바르게 앉아 생활하는 경우 격려하기

- 가정에서 평소 누워서 생활하는 등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활동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경우 바르게 앉아 생활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바르게 앉았을 경우 칭찬과 격려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 "00아 벽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기대어 앉아서 그림을 그리면 00이 허리가 삐뚫어져서 키도 크지 않고, 허리가 많이 아프게 된단다. 허리를 쭉 펴고 책상 앞에 앉아서 그림 그려볼까?
- "00아, 00이가 쌓기 영역에 누워있으니까 친구들이 지나가는데 불편하겠구나. 친구들이 00이한테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00이가 친구들한테 밟힐 수도 있으니까 앉아서 놀이하자~"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 "00아, 바르게 앉아야지! 그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친구들이 불편하잖아!"

- 가정에서도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지 않도록 학부모가 신경 써서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 구하기
  - "00이가 바르게 앉아서 밥을 먹는구나. 와우~ 정말 멋지다~"
  - "00아, 누워서 책을 보면 눈이 아프데. 우리 앉아서 책볼까?"

영유아가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조절하기

- 잠이 부족하거나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하루종일 피로감을 느껴 기대어 앉거나 누워있고 싶어 할 수 있음.
- 영유아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낮잠시간의 양, 아침에 잠을 깨는 시간, 하루 일과 중 영유아의 활동량 조절 등을 통해 영유아의 피로감을 조절하도록 하기. 특히, 아침에 잠을 깨는 시간 등은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학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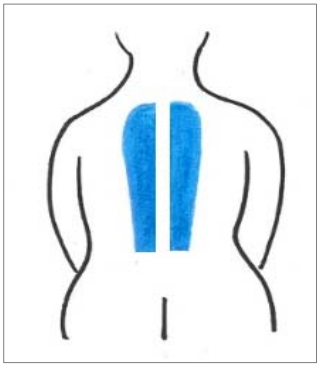
다. 유의사항

가정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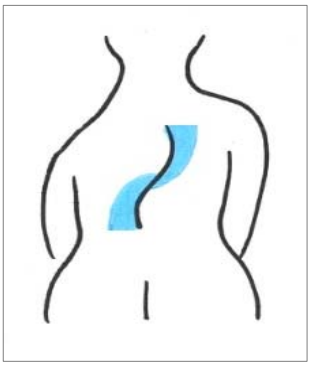
- 기대어 앉거나 눕는 습관은 가정에서 부모를 모방하여 형성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정에서 부모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 구하기
- 영유아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귀가 후 가정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기, 잠들고 깨는 시간 조절하기 등과 같은 점을 부모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거나 면담을 통해 알리기

누워서 생활하거나 바르지 않은 자세로 기대어 앉는 것이 장기간 습관이 될 경우 척추측만증에 걸리게 될 확률이 높아짐. 바르게 앉아 생활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영유아를 지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사가 좋은 자세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함.

정상의 경우 좌우 대칭



척추측만증의 경우 좌우 비대칭



[그림 II-13-1] 정상척추와 척추측만증이 있는 아동의 모습

14 움직이기를 싫어하거나 거의 움직임이 없는 아이

ㅇㅇ이(4세)는 어린이집에 오면 마음에 드는 장난감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하루 종일 그 자리를 거의 떠나지 않는다. 대집단 활동 시간에도 완전히 일어서서 움직이지 않고 엉거주춤 기듯이 조금 자리를 옮길 뿐이다. 바깥놀이 시간에는 나가긴 하지만 한 쪽에 앉아 다른 아이들 놀이를 조용히 보고 있기만 하고 참여하려하지 않는다.

가. 원인 분석

신체적 측면: 허약함이나 비만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 신체적으로 허약하여 쉽게 지친 경험이 쌓였거나 만성적인 수면부족으로 피로감이 누적되어 가능하면 적게 움직이려는 무의식적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음.
- 비만으로 인해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에 쉽게 지치게 되거나 남들 앞에서 비만으로 인한 둔하고 느린 움직임으로 놀림을 받을까봐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성격적 측면: 유난히 겁이 많거나 소심함, 경쟁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

- 성격적으로 소심하여 움직임에 따른 결과, 즉 넘어지거나 긁힐 수 있는 경우를 두려워하여 움직이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이 쌓일수록 점차 동작을 하는

데 자신감을 잃게 되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자 함.

- 과도하게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아이일 경우 경쟁적인 놀이일 때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 이기고는 싶으나 능력에 자신감과 확신이 없으면 아예 피함으로써 지는 상황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함. 즉 경쟁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의 표출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모든 움직임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음.

신체적 이상

- 눈에 띄지 않는 신체적 이상 즉 심장이나 신장, 근육장애 등으로 움직이기를 불편해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신체적으로 허약하여 움직이기 싫어하는 아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 아이를 잘 관찰하여, 식사나 간식은 적절한 양을 잘 먹고 있는지, 기온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 부모님과 상의하여 가정에서의 생활습관, 특히 일찍 잠자리에 들 것과 충분한 양의 식사를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끝까지 하도록 조언함.
  - "천천히 먹어보자. 꼭꼭 씹어서 우리 ○○이, 맛있게 다 먹자.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이 좋은 행동이란다."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가 건강한 어린이야. 밤에 일찍 자기, 약속!"

비만한 아이: 신체적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움직임을 유도하기

-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줌.
  - "선생님이랑 저쪽으로 가서 놀아볼까? 우리 자리를 옮겨서 해보면 더 재미 있을거야."
  - "이것 좀 같이 들어 줄래? ○○이가 같이 들어 주면 참 좋겠다."
- 움직임과 외모에 대해 좋은 점을 발견하여 자주 칭찬함.
  - "○○이 걷는 모습이 참 씩씩하고 예쁘구나!"

성격적으로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아이: 안전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경쟁놀이를 피하기

- 쉬운 신체활동을 여러 가지 계획하여 조금씩 참여하도록 이끌어 줌.
  - "(놀이기구에서) ○○이는 오늘 여기까지만 올라가 볼까? 정말 잘 했어."

- 신체활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고 등수를 매기는 경쟁놀이는 피하도록 함.
  - "○○이도 같이 해보자. 누구든지 다 잘 할 수 있는 게임이야."
- 활동 공간 주변에 안전장치(예. 선생님이 지켜봄)가 있음을 확인시켜 줌.
  - "선생님이 ○○이 잘 지켜볼 테니까 걱정 하지 않아도 돼. 봐, 선생님 여기 서 있지? 선생님이 보고 있을꺼야."
- 부주의한 행동으로 실수를 하더라도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가 줌.
  -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 "다치지 않았니? 다시 해보면 돼. 괜찮아." ("조심해야지"라는 말을 하지 않음.)

과도하게 경쟁심이 강한 성격의 아이: 협동하는 놀이를 통해 칭찬을 경험하게 함.

- 교사의 지속적이고 섬세함 관찰을 통해 아이가 경쟁심 때문에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유형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
- 아이는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지 않으려 딴청을 부리고 움직이지 않는 데 대한 변명을 하려할 수 있음. 아이가 가진 약점을 간파하고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봄.
  -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이는 잘 할 수 있는데 같이 하고 싶어하지 않고 가만히 있구나. 다 같이 재미있게 해보려는 거니까 잘 하지 않아도 돼. 잘하고 못하고 그런걸 정하려고 하는건 아니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이도 같이 하자~."
- 경쟁적인 놀이를 피하고 협동하여 완성하는 놀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이 때 교사가 모든 아이의 역할을 골고루 중요하게 느끼도록 격려하고 과정과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 필요함. 협동 놀이 과정에서 조차도 자신의 분담에 불만을 가지거나 일의 속도에 경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혀 경쟁부담이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 "이 그림 재미있게 생겼지? 우리 ○○이, △△이, ◇◇이 다 같이 색칠해볼까? ○○는 파란색 칠할거야? 이 그림에 잘 어울리네. △△이는 꼼꼼하게 잘 칠하네. ◇◇이 색깔도 이 부분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다 같이 하니까 더 재밌지? 우리 친구들 모두 잘 했어요."

(신체적 이상으로 인해)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아이: 신체적 이상 증후를 관찰·발견하기

-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도 신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아동은 불편한 데가 없는지를 물어보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도록 권유함.
- 아동의 발달 상황에 대해 전문의와 상의해서 향후 건강관리 방안을 세우고 신체발달 현황, 영양 섭취 수준에 대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생활지도를 함.

다. 유의사항

- 신체적으로 허약한 아이는 가능하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 잠을 많이 잘 수 있게 하고 식사를 여유롭게 충분히 하도록 부모에게 조언함.
  - 극도로 허약한 아이가 밥을 먹기 싫어하는 경우,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준비하여 급식할 수 있게 하고, 가정에서는 밥을 떠먹여서라도 충분한 양이 섭취 되도록 지도함.
  - 이런 아이들은 위가 작고 약할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보다는 자주 조금씩 먹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 "몸속에는 ○○가 아까 먹은 음식들이 들어 있는데, 너무 안 움직이고 ○○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음식들도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서 배가 운동을 못한대 - 배가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되어서 약도 먹어야 하고 배가 아파진단다. 그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해요. 많이 움직여서 배 운동 시켜줄까? 그래야 우리 ○○이 건강해지지~."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 "○○아, 다른 친구들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뚱뚱해 진다. 더 살찌게 되고 말거야."

15 쉬지 않고 심하게 많이 움직이는 아이

OO이(만 3세)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기 놀이를 하기도 하지만 금방 싫증을 내고 충동적으로 이것저것 건드려 보거나 대부분의 경우 다른 아이들의 놀이에 끼어들어 훼방을 놓고 별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집단 활동 시간에도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가. 원인 분석

- 주의집중력 부족
  - 주의집중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과업 몰입이 안되고 각 활동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

가 있음.

- 뇌 손상이나 체액 성분의 불균형과 같은 생물학적인 원인에서 주의 집중력 부족이 생김.

인지발달 장애

- 인지발달 장애로 인해 충동성 조절과 신체운동 조절이 잘 안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아이가 가장 흥미 있어 하는 활동을 찾아내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함.

-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아이가 가장 놀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평소에 좋아하는 놀이가 무엇인지 교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대집단 활동에 참여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놀이와 위치를 정해주고 움직임 반경을 줄이도록 지도함. 대집단 활동에서 제외되면 반의 일과에서 소외될 수 있으므로 대집단 시간을 힘들어하는 유아의 상황은 인정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정해주어 간접적으로 대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지금부터 다 같이 둘러 앉아 이야기 듣기를 할텐데.. ○○이는 같이 하고 싶지 않으면 그림 그리기나 책보기 중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할까요? 돌아다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되니까 ○○이는 언어영역 쿠션에 앉아서 책보면서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자.”

“멈춰!” 놀이 또는 신호등 놀이를 개발하여, 아이가 빨간 신호등이나 ‘멈춰’ 구령이 있으면 한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도록 게임처럼 유도함.

- 선생님이 빨간색 신호등을 켜면(또는 ‘멈춰’라는 말이나 호루라기를 불면) 움직이던 것을 멈추고 ‘얼음’처럼 가만히 있기로 함.
- 한 아이에게만 적용한다면 불만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당번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멈춰 또는 신호등 놀이에 참여할 기회를 줌. 그러나 눈의 띄지 않게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는 더 많은 기회를 줘서 자주 놀이에 참여하도록 함.
- 빨간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서(정해진 코너)에 가서 나오지 못하고 잠시 머무르도록 하거나 아끼는 것을 잠시 보관해 두도록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함.
  - “다 같이 우리 신호등 놀이 할까요? 지금 여기는 파란색 신호등입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놀아도 돼요. 가고 싶은 데 마음껏 가도 되고요. 하지만 빨간 신호로 바뀌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하는 거 알죠? 이번 시간 신호등 놀이 주인공은

OO이니까 선생님이 '빨간 신호등'하면 딴 데 가면 안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알겠지 ○○아?"

- 발달 장애의 경우 아이의 흥미와 이해도가 자신보다 낮은 연령의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아이의 반을 실제 연령보다 아이의 발달수준에 맞춰 편성하는 노력도 필요함

- 체액 성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집중력 장애는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 요법 치료로 좋아질 여지가 있는 증상이므로 이를 부모에게 잘 설명하여 병원을 찾아보도록 안내함.

다. 유의사항

- 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줄 때 확언적인 판단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의논하는 입장으로 상담을 함.
  - 부모는 대부분 아이의 문제를 발달이 느린 정도의 정상 범위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음. 이에 대해 선생님의 경험과 전문적 식견으로 볼 때 다른 아이와의 행동 차이가 크다는 의견을 전하고 의학 전문가를 만나볼 것을 권유하기. 이 때 교사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평소 꾸준히 적어온 관찰일지, 발달검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쉬움.
  - 보육실에 관찰경(one-way mirror)[11]이 있다면 부모가 와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안내함. 관찰경이 없다면 IP-TV나 CCTV 또는 3자의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모에게 아이의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는 기회를 줌.

- 아이의 움직임에 대해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크게 화를 내어서 아이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자신의 행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강화효과를 갖고 오지 않도록 주의함.

- 가정에서의 아이의 행동과 기관에서의 행동이 차이가 있는지, 혹 차이가 있다면 기관에서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 찾아보고 가정과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함.

11) 한쪽에서만 보이는 거울. 보육실에서는 관찰실이 보이지 않고, 관찰실에서만 보육실이 보이는 거울

16 눈을 찡그리거나 비비고,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아이

만 4세 남아인 00는 책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려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며, 사물을 볼 때 미간을 찡그려 눈을 가늘게 뜨기도 한다.
만3세 여아인 00는 놀이시간에 눈을 자주 비비며, 눈이 충혈되어 있다. 가끔씩은 눈물을 질금거리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시력 문제

- 눈을 찡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가장 흔한 원인은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임. 특히 책이나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아이의 행동은 시력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매우 크며 근시나 난시, 약시, 사시 등으로 인한 것임
- 시력은 태어나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천천히 완성되는 것인데 갓 태어난 아기의 시력은 매우 낮아서 사물을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이나 6개월이 지나면 0.1정도의 시력을 갖게 되고 두 살 때엔 0.3 정도가 되며 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1.0 정도의 시력을 갖게 됨.

속눈썹 찔림 등 이물질 자극

- 눈을 자주 비비고 충혈되어 있는 경우 원인은 주로 속눈썹이 찔러서 눈을 가렵게 만들거나 이로 인한 각막자극으로 인한 것임.

심리적 문제 및 피곤함의 표현

- 간혹 심리적인 불안감, 피곤함과 졸림 등의 표출 방안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눈을 찡그리거나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행동, 눈을 비비는 등 아이의 외현적 행동은 원인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가장 우선적이임.

- 이러한 행동은 대부분 눈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심리적인 불안감, 피곤함과 졸림 등의 표출 방안일 수 있으므로 행동의 빈도나 발생 시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문제 행동이 지속되면 가정에서의 아이 행동이나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비슷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부모와 면담을 통해 병원에서 안과 진료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아이가 눈을 찡그리거나 비비는 행동이 발견되면 아이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이러한 행동이 자주 나타나는지 주로 언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보도록 함

이러한 행동이 여러 차례 관찰되면 가정에서도 일어나는지 부모에게 알아보고 문제행동 관련 자료 정리함

- 다른 영유아들이 볼 수 있는 그림을 같은 거리에서 식별하지 못하면 시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음

문제행동에 대해 부모와 면담하여 병원에서 진료 받아보기를 권유하도록 함

- 근시나 난시, 약시, 사시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과 검사가 필수적임.
- 만약 시력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의 처방이 내려지게 되고, 교정 치료를 시작해야 함.

진료 결과에 대해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어린이집에서의 지도방향 및 주의사항을 모색함.

- 아이가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안경을 쓰고 등원하게 되면 초기에는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씻기, 낮잠 자기 등 일상생활에서 안경을 잘 못 챙길 우려가 있으므로 안경을 착용하여 시력 교정을 할 경우 교사가 이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해 주도록 함.

눈을 자주 비비고 충혈 되어 있는 경우는 눈에 이물질이 각막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속눈썹 찔림은 아이의 속눈썹이 눈에 닿아서 자극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각막과 결막 부분에 상처를 내게 되며, 이럴 때마다 아이는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을 느끼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눈을 자주 비비게 되는 것임.
- 속눈썹 찔림은 교사나 부모가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아이가 단순히 눈을 비비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간과하거나 방치할 수 있으며, 적기에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각막에 염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시력에 다양한 장애를 일으키기도 함.
- 영유아 얼굴의 측면에서 가까이 영유아 눈을 살펴보면 속눈썹이 안구에 닿는지 관찰할 수 있음.

- 가끔은 졸립거나 지루할 경우 눈을 비비는 경우가 있으므로 눈을 비빌 때 하품을 하거나 피곤한 기색이 있으면 졸린지 물어보고 쉴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함.

다. 유의사항

- 이 시기에 정상적인 시력발달은 매우 중요하므로 약간의 문제라도 느껴진다면 4~5세 이전의 조기 진단과 그에 따른 처치가 이루어져야 함.

- 어려서부터 정기적인 시력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함. 안과검진은 출생 후 3개월, 1살, 3살 때 받는 것이 좋으며, 아이가 세 살이 되면 말로써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므로 숫자나 그림을 이용하여 시력 검사가 가능해짐.

17 코를 자주 파고 킁킁거리는 아이

만 3세 남아 00는 손가락을 콧구멍에 넣어 코를 자주 후비거나 킁킁거려 놀이나 활동 시 산만한 경우가 종종 있으며, 가끔은 또래들에게 지저분하다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 코막힘, 건조, 간지러움 등 코 안의 상태 변화나 자극이 원인이 됨
  - 아이가 수시로 코를 비비거나 손가락으로 코딱지를 파거나 후비는 행동은 대부분은 코가 막혀 답답함을 느낄 때, 코 안이 건조하여 당기는 느낌이 있을 때, 여러가지 자극으로 간지러움을 느낄 때 아이는 반사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됨.

- 코 안에 생긴 염증이 원인이 됨
  - 손으로 코를 자주 후비면 코 점막을 건드리게 되고, 손톱으로 상처를 낼 경우 염증을 유발함.
  - 염증으로 인해 상처와 딱지가 생기면 더욱 코가 답답하게 느껴져 반복적으로 코를 건드려 헐게 만듬. 심하게 후빈 경우 실핏줄이 터져서 코피가 나기도 함.

- 호흡기에 알레르기나 비염으로 인함
- 심리적인 불안이나 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일 수 있음
  - 일종의 '틱'으로 코를 킁킁거리는 행동을 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아이의 코 후비는 행동은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단시간 내에 줄어들지는 않음. 따라서 코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고 자극원을 점진적으로 없애주는 것이 치료방법임
- 코를 후빌 때 아이의 코를 잘 살펴보고 코가 헐었는지, 콧물이 고여 있는지, 코딱지가 가득 들어있는지 등 상태를 파악하도록 함.
- 보육실을 자주 환기하여 먼지를 제거하고 습도 유지에 주력해야 함
- 아이가 주로 손으로 코를 후비므로 손을 잘 씻기고 손톱을 짧게 잘라주어 2차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손 청결 관리에 힘쓰도록 함.
- 코의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코에 대한 불편함과 예민한 반응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이가 코를 후빌 때 재미있는 놀이나 활동에 참여하도록 아이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유도해 주도록 함.
-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아이의 행동을 전달하고, 소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도록 권유함.
- 진단결과 및 치료방안을 부모에게 전해들은 후 어린이집에서의 지도방안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함.
- 킁킁거리는 행동과 관련하여 코에 이상이 아니라 '틱' 행동일 경우 단기간 후 사라질 수도 있음. 그러나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틱' 행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함

다. 유의사항

- 비염이 심한 아이의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 검사해서 원인이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

예를 들면 심한 일교차가 잇는 날씨, 카페트, 꽃가루가 날리는 식물, 애완동물 등이 비염을 일으키는 될 수 있음.

18 소리를 잘 못 듣는 아이

만 3세 여아 00는 최근 교사의 말에 반응이 느려졌다.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말하거나 멀리서 부르면 잘 못 듣는 것 같고, 교사의 말을 들을 때 가끔씩은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려는 행동을 하곤 한다. 낮잠 잘 때 다른 아이들에 비해 코 고는 소리가 크다.

가. 원인 분석

청력 이상

- 소리에 반응이 느리고 작은 소리를 잘 못 듣는 행동 등은 일단 귀에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함.
- 병으로 인한 일시적 청력 이상과 근본적인 청력 이상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원인을 알아볼 수 있음.
- 영유아기 청력 이상은 일시적이던 만성적이던 다른 사람과의 원할한 상호작용에 지장을 주며 언어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 따라서 영유아의 청력 이상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함.
- 아이의 청력이 떨어져 소리를 잘 못 듣는데도 부모나 교사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하면 청력의 문제 뿐 아니라 말하기, 소통하기 등 전반적인 언어발달에 지장을 주기 쉬움.

중이염과 같은 질병 후유증

- 영유아기 귀에 생기는 질병은 대부분 급성 중이염 혹은 만성 중이염 등이며, 중이염의 후유증으로 청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음. 급성중이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리를 잘 못들을 수 있으며, 만성으로 진행될 경우 중이에 물이 차서 청력에 지장을 줄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아이가 소리에 반응이 느리거나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다양한 상황에서 소리에 대한 아이의 반응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함.

- 아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말을 건네고 반응을 관찰해 봄
- 교사가 아이의 얼굴을 보고 말할 때와 보지 않고 말할 때 아이의 반응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봄
- 크고 작은 소리를 들려주고 반응이 어떤지 살펴봄
- 두 가지 이상의 소리를 들려주고 구별할 수 있는지 반응을 살펴봄
- 교사가 귀를 살펴볼 때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다고 못 만지게 하는지 등 아이의 반응을 살펴봄

여러 상황에 대한 아이의 반응에서 작은 소리를 잘 못 듣거나 얼굴을 보고 이야기 할 때와 보지 않고 이야기 할 때 반응에 차이가 있다면 일단 청력에 문제를 의심해 봐야함.

아이에게 귀가 아픈지,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부모에게도 아이의 귀 상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함

- 귀가 아픈 경우 중이염, 외이도염을 앓고 있을 경우가 많음
- 귀에 아픈 증상은 없지만 물이 차는 삼출성 중이염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음

아이의 증상에 대해 부모가 잘 모르고 있을 경우 병원에서 귀에 대한 점검을 받아보도록 권유하기

- 중이염을 앓고 있으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하도록 함

청력 감소 현상이 심한 경우 청력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도록 하며, 치료방향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듣고 참고하도록 함.

- 청력감소로 인해서 인지발달, 언어발달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력 손실이 심할 때, 양쪽이 만성일 때, 고막에 변화와 어지러움, 화농성 호흡기 감염, 재발이 잘 될 때에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함

다. 유의사항

이 시기에 정상적인 청력발달은 매우 중요하므로 약간의 문제라도 느껴진다면 4~5세 이전의 조기 진단과 그에 따른 처치가 이루어져야 함.

19 입에서 구취가 나는 경우

만 5세 남아 00는 부쩍 입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심하게 난다. 어린이집 점심 식사 후 양치질을 하나 그 때 뿐이고 몇 시간이 지나면 말할 때 다시 냄새가 나서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가. 원인 분석

- 구강이 청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됨
  -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깨끗이 제거되지 않아서 불결한 위생 상태가 되면 세균과 결합하여 휘발성의 좋지 않은 냄새를 유발하게 됨

- 입안의 염증 등 질병이 원인이 됨
  - 입안 혹은 편도의 염증이 있는 경우 염증으로 인한 냄새가 원인이 됨

- 입안의 건조 상태 등 컨디션에 따라 구취가 발생됨
  - 감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입안이 건조해 지면서 냄새가 나게 됨

- 잘못된 수유 습관이나 식습관
  - 우유병을 오래 물고 있거나 물고 자는 경우 충치가 생기기 쉽고, 잇몸이 부은 경우도 이로 인해 구취가 나게 됨.

나. 지도 방법

- 구취의 원인이 여러 가지이므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해야 함

- 입에서 냄새가 날 경우 가장 먼저 구강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함. 어린이집에서는 일반적으로 점심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게 되는데 구취가 있는 영유아의 경우 간식 등 음식물 섭취 후에는 양치를 하도록 도와주어야 함. 양치하기 싫어할 경우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마시도록 함

- 양치질을 하는데도 입냄새 제거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양치질을 적절한 방법으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함. 칫솔질을 잘못하여 양치 후에 음식찌꺼기가 입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경

우 입냄새가 여전히 생기게 됨.

- 아이가 음식물을 잘 씹지 않고 입에 물고 있는 시간이 긴 경우도 충치 발생과 구취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유식 시기부터 음식물을 잘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함
- 가정에서도 구강 청결을 위해 양치와 물로 헹구기 등을 자주 하도록 안내하고, 양치 등 관리를 하는데도 구취가 쉽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 치과에 가서 충치나 구강염 등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도록 권유함.
- 감기나 비염, 축농증 등 다른 질병이 구취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원인이 되는 치료를 먼저 하도록 함

다. 유의사항

- 감기나 비염 등으로 인한 구취는 원인 치료를 먼저 하도록 해야 함.
- 영아의 경우 우유병을 빨아야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충치의 원인이 되므로 수면 습관에서 먹으며 자는 습관을 고쳐야 함. 불가피 우유를 먹어야 자는 경우 우유 섭취 후 입안을 헹구는 등 관리에 유념하도록 함

20 두통을 자주 호소하는 경우

만 5세 여아 00는 자유놀이 시간에 가끔씩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다. 열이 있는지 확인하면 대부분 열은 없었고, 양호 침대에서 쉬고 싶은지 물어보면 싫다고 한다. 두통을 매우 심하게 호소하지는 않아서 심심하거나 주의를 받고 싶어서 그런가 생각하게 된다.

가. 원인 분석

- 긴장,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이 원인이 됨.
  - 정밀검사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긴장성 두통, 편두통, 심인성 두통이 나타나기도 함.

- 수면부족, 긴장, 피로 등으로 인해 두통이 생길 수 있음.

감기, 열, 뇌질환 등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두통을 수반함.

- 기질적 뇌질환(뇌수막염, 두부 외상, 뇌종양 등), 감기 등 열을 동반하는 질환, 안과나 치과 질환 후유증 등과 같은 원인이 두통을 유발함.
- 두통은 단단한 밴드가 머리를 둘러싸고 조이는 듯 아프지만, 간혹 한쪽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날 수도 있음.
- 가장 많이 발생하는 두통으로 편두통을 들 수 있으며 가벼운 외상, 질병 등 육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 가능함.

심리적 문제

- 환경 부적응, 또래와의 갈등, 스트레스 등 감정적 문제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
- 교사나 부모의 주의를 받고자 할 때 두통이 생길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아이가 두통을 호소할 경우 일단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두통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함

앞서 설명한 육체적인 문제로 인한 두통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열을 재보기, 외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배탈이나 다른 질병 증세가 있는지 알아보기, 수면 부족 등 피로가 쌓였는지 등을 확인함.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두통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이의 기분이 어떤지, 또래와의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확인함.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두통으로 판단되면 세부적인 원인 파악을 토대로 원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아이를 잘 돌봐 줌으로써 잦은 두통을 줄일 수 있음.
-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한 아이의 두통을 예방할 수 있음.
  - 일정한 수면시간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초코렛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자극적 음식은 가급적 섭취를 줄임.
  -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줌.

- 육체적인 문제로 인한 두통으로 추측될 경우 전문의로부터 진단받을 수 있도록 부모에게 상황을 알려주도록 함.

- 아이가 수일이나 수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할 경우, 구토가 동반되고 구토증상이 점차 심해지는 경우, 팔, 다리에 힘이 없거나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 때, 열이 나고 목이 뻣뻣하며, 전신 무기력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아이의 상태를 전하고 병원에서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도록 권함.

다. 유의사항

- 두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므로 참고하도록 함.
  - 두통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
  - 두통이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발열, 경련, 구토 등)
  - 최근 한 두 달 이내에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 머리둘레가 점차 증가되는 경우
  - 머리를 다친 적이 있거나, 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적이 있을 때

21 심한 변비

만 1세 남아 00는 분유를 떼고 생우유를 먹기 시작했다. 워낙 분유 먹는 양이 많았던 아이라 생우유도 잘 먹는 편이다. 그런데 먹는 양에 비해 변의 횟수가 너무 적고 변 볼 때마다 온 얼굴이 새빨갛게 될 정도로 힘을 주어야 하며, 가끔씩은 이마저도 안 되어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배변 후 휴지로 항문을 닦은 후 살펴보면 항문에 상처가 났는지 약간의 피가 묻어있는 때도 있다.

만 5세 여아 00는 놀이시간에 가끔씩 아랫배가 아프다고 잘 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몸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서있는 등 불안한 기색을 보인다. 교사가 먹은 음식이나 배변 여부에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 화장실은 며칠 째 못간 상태이다. 아이와 화장실에 함께 가서 배변 시도를 해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배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 원인 분석

아이가 주로 섭취한 음식물에 따라 변비가 생길 수 있음.

- 섬유질이 들어 있는 음식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았을 때, 영아의 경우 생우유 섭취가 과다할 경우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잘못된 배변 훈련이나 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아이가 배변 시의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인해 변을 참는 것이 만성변비의 원인이 됨
- 대소변 훈련을 강압적으로 할 경우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질병으로 인해 변비가 생길 수 있음

- 감기나 기타 질환으로 인해 음식섭취를 충분히 못했거나 식욕부진으로 인해 소량의 음식물 섭취가 지속될 때 변비가 생길 수 있음.
- 아플 때 열이 나거나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 일시적인 변비가 생길 수 있음.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대한 부적응 등 심리적 스트레스

- 동생의 출생, 어린이집 입학, 가족 간의 불화, 이사, 장기간 여행 등 아이와 관련된 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겨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때 변비가 생길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아이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점검하고, 변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함.

- 영아가 첫돌이 지나면 생우유 섭취량을 일일 500-700㏄ 정도로 줄이고 밥과 반찬을 주식으로 하는 습관을 들임.
- 아이가 먹는 음식 중 과자류 등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채소나 과일의 섭취량을 늘리도록 함.
- 음식섭취량이 적은 아이의 경우 음식 섭취량을 늘릴 수 있도록 배식 시 양을 늘려주도록 함.

규칙적인 배변 지도

- 배변 시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교사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주도록 함.

- "00야, 놀다가도 배에서 똑똑 신호가 오면 선생님한테 말해주렴. 00가 밥이랑 야채를 잘 먹었기 때문에 아마 똥이 잘 나올 수 있을 거야"

운동과 배변을 도와주는 마사지를 아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실시함

- 매일 규칙적으로 체조나 운동을 하면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를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하루일과 중에 체조나 운동의 기회를 마련함.
- 변비가 있는 영아를 위해 잠깐씩이라도 장운동에 도움이 되는 자세와 마사지를 해주도록 함.
  - 아기를 바로 눕히고 두 다리를 들어 배를 지긋이 눌러주는 마사지를 하루에 몇 회씩 해주면 장운동에 도움이 됨.

부모 상담과 병원 내원

- 변비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음식 제공이나 배변 시 도움 주는 방법을 의논하도록 함
-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였음에도 배변을 오래 못해서 배가 차 있을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도움을 받도록 권할 수 있음.

스트레스 원인 제거

- 변비의 원인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예측된다면 원인을 제거해 주도록 노력하고, 아이가 마음이 편하도록 따뜻하게 대해주도록 함.

다. 유의사항

흔히 매일 변을 누지 않으면 변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매일 변을 보지 않고, 변이 크고 단단하게 보이더라도 아이가 통증 없이 잘 본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음.

영유아가 변비에 걸리면 부모와 영유아 모두 변비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면 영유아의 불안감이 커지므로 변비는 해로운 것이 아니고 곧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 안심하도록 해 주어야 함.

22 잦은 소변(빈뇨)

만 4세 여아 00는 놀이시간 중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5회 이상 간다. 교사와 함께 하는 집단활동 시간에도 소변 마렵다고 하여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적도 있다. 잦은 소변으로 인해 놀이에 몰입하지 못하고, 친구들도 "** 또 화장실 간다고 놀려서 표정이 밝지 않다."

가. 원인 분석

요로감염, 요실금, 야뇨증 등의 질병이 원인이 됨.

- 빈뇨는 소변을 정상보다 자주 보는 것을 말함. 보통 생후 1세에 하루 12회, 7세경은 하루 7회, 12세경에는 4-6회 정도 배뇨함.
- 다만 수분 섭취량에 따라 배뇨 횟수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몇 번이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평소와 다르게 소변을 자주 보면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함.

지나친 수분 섭취

- 지나치게 수분을 많이 자주 섭취한 경우 빈뇨의 원인이 됨.

심리적 문제

-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외로움, 욕구불만 등이 원인이 됨.
- 환경의 변화, 가족내 문제 등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빈뇨가 생기게 됨.

나. 지도 방법

아이가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보면 소변 횟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자유놀이 시간 1시간-1시간 30분 사이에 3회 이상 소변을 보는지 살펴봄.
- 빈뇨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지 살펴봄.

아이의 수분 섭취 상황을 살펴봄.

- 평소보다 물이나 음료 섭취가 많은지 살펴봄.
- 물이나 음료 섭취가 많을 때 왜 그런지 알아봄.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지, 혹은 열이 나서 목이 타서 마시는지, 그 외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함.

- 잦은 소변이 일시적이고 수분의 과다한 섭취로 인한 것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됨.

- 수분 섭취와 상관없이 소변을 자주 볼 경우 불안이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내에서 문제가 있는지, 혹은 집에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함.
  -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또래관계나 교사에게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아이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함.

-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집에서 혹은 아이에게 특별한 변화나 상황이 있었는지 알아봄.

- 스트레스 원인이 파악되면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이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해주도록 함.

- 빈뇨 증상이 지속되고 요도 관련 질환이 의심되면 병원 내원을 권유함.
  - 소변 검사 등 병원 진료를 통해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해 주어야 하는 내용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함.

다. 유의사항

- 빈뇨 현상의 대부분은 주로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생기므로 빈뇨 증상 완화를 위해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부모에게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함.

23 비만인 경우

만 4세 남아 00는 또래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뚱뚱하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 평소 식탐이 많아 간식이나 점심 양이 또래에 비해 많으며, 항상 먹는 것에 관심이 많다.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며, 좋아하는 음식이 간식이나 급식으로 제공될 때 특히 더 많이 먹으며, 양을 조절해 주기 위해 제한을 하면 화를 내거나 울먹거린다.

가. 원인 분석

과다한 열량 섭취

- 비만은 필요한 열량보다 섭취하는 여량이 더 많거나 섭취하는 열량에 비해 소비되는 열량이 더 적어서 지방이 체내에 축척되는 상태를 말함.
- 열량이 높은 음식의 과다 섭취가 비만을 초래할 수 있음.
- 영아 비만은 세포수를 증가시키고, 성인병을 유발하는 등의 신체적인 영향을 줌. 뚱뚱하다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으며, 또래 사이에서도 위축되어 원활한 또래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전적인 요인

- 부모가 모두 비만일 경우 80%가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음.

잘못된 식습관

- 불규칙적인 식사가 비만을 초래할 수 있음.
- 빨리 먹는 식습관이 비만의 원인이 됨.

활동량의 부족

- 활동량이 음식섭취량에 비해 극히 적어 에너지 소비가 안 될 경우 비만이 될 수 있음.

정서적 불안감

- 정서적 불안감이나 욕구불만을 음식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습관으로 인해 비만이 될 수 있음.

질병 및 질병 후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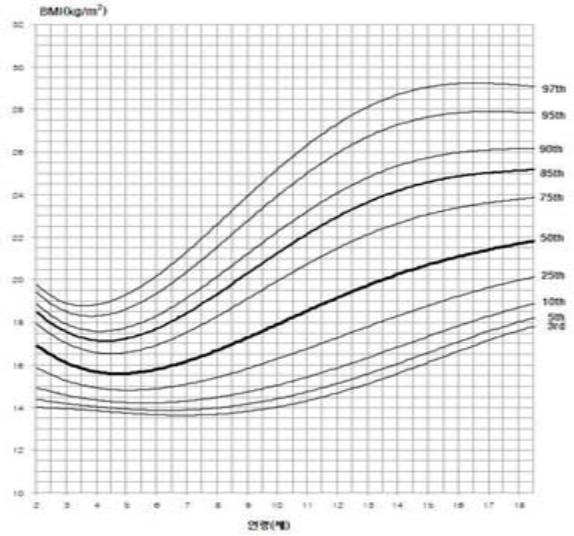
- 원인 질환이 있는 증후성(이차성, 외인성) 비만, 즉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내분비질환, 선천성 증후군, 약물치료 등으로 인해 비만이 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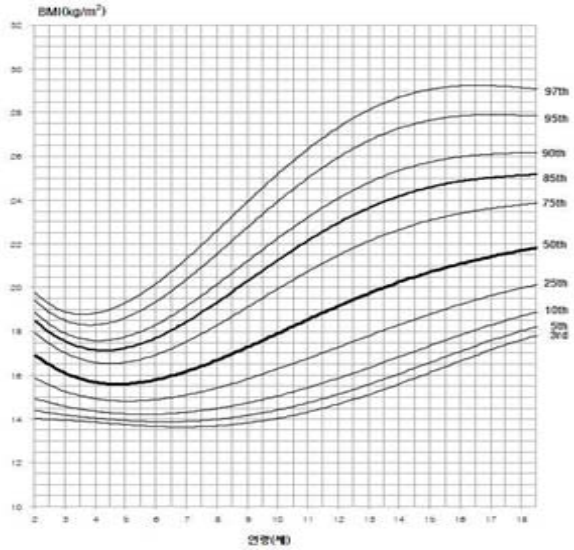
영유아가 현재 비만한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함.

- 표준체중을 이용한 영유아의 비만도 산출방법 1
  - 2세가 지난 후에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가 피하지방과 체지방과의 상관성이 유의하게 좋아 선별검사로 가장 적합함.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며 2세 이상에서 체질량지수 85-95백분위수의 경우 과체중, 95백분위수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함.



[그림 II-23-1] 한국남아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곡선



[그림 II-23-2] 한국여아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곡선

❖ 표준체중을 이용한 영유아의 비만도 산출방법 2

비만도 = 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 × 100

·체중미달: -20% 이하 · 저체중: -10% 이하 · 정상: -10% ~ +10%
·과체중: +10% 이상 · 비만: +20% 이상

자료: 아동건강교육(임미혜 외 공저, 양서원)

- 비만으로 판정받은 영유아에게는 체중을 줄여서 비만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과 비만으로 위축된 정서 상태를 회복하는 것임

- 체중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식이조절, 운동, 행동조절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식이조절을 위해 영유아의 음식의 내용 조절, 배식량 조절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과의 협조가 필수적임
  - ❖ 고칼로리, 당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 인스턴트 음식 등의 섭취를 줄이도록 가정의 협조를 요청함. 비만인 영유아일수록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고, 양을 많이 섭취할 수 있으므로 급간식으로 이러한 음식이 제공될 경우 일정 양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격려함.

- 비만한 영유아의 운동량 증가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를 격려하고 신체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해 주도록 함

- 비만 영유아의 음식에 대한 집착이나 빨리 먹는 습관, TV를 보면서 음식을 먹는 습관 등 잘못된 식습관 등을 고치도록 해 주어야 함
  - ❖ 음식에 대한 집착을 보일 경우 교사가 미리 음식의 양을 조절해 주기보다는 유아 스스로 음식을 조절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점진적으로 양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해 줌.
  - ❖ TV를 보면서 음식을 먹는 등 음식물 먹을 때 다른 일과 함께 하지 않도록 해야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ㅇㅇ가 많이 먹고 싶었구나. 선생님이 보기에도 오늘 간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오늘 우리 반 친구들은 간식을 몇 개씩 먹으면 좋을까?"
"ㅇㅇ가 먹을 만큼 한 번 덜어볼까?

비만으로 위축된 영유아에게 교사의 심리적 지지는 매우 중요함. 아이가 잘 하고, 즐겨하는 것을 발견하여 칭찬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잇도록 격려하여 뚱뚱한 외모에 대한 위축감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필요함.

다. 유의사항

영유아의 비만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기관과 가정이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음식을 보상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기
- 가정의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 가족의 생활습관 개선하기
-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 줄이기

24 체격이 심하게 왜소한 경우

만 5세 남아 00는 또래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키가 작고 체격이 매우 왜소하다. 같은 반 친구들은 00가 동생이라고 놀리곤 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며, 또래들과도 잘 못 어울린다.

가. 원인 분석

유전과 체질적 요인

- 비정상적 저신장은 같은 나이, 같은 성별 어린이 100명 중에서 작은 순서로 3명안에 속할 때를 말함. 성장속도가 1년에 4㎝이하로 자란다면 정밀한 검사가 필요함.
- 가족성 또는 유전성 저신장증과 유전적 골격계 이형성증 등으로 인해 왜소증이 생길 수 있음
- 체격이 너무 왜소한 경우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래 사이에서도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함.

불충분한 영양공급

- 매우 불충분한 영양 공급이 정상적인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호르몬 이상
  - 성장호르몬 결핍, 갑상선 기능저하증, 당뇨병, 쿠싱 증후군 등 호르몬 관련 이상으로 왜소증이 생길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아이의 키와 몸무게 등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 표준발육치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왜소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왜소증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함.

- 적절한 식이습관과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함.
  -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단백질, 칼슘 등은 특히 신체 구성에 중요하며 비타민, 무기질 등 등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며, 인스턴트 식품은 가능한 피하도록 함.

- 좋은 잠습관의 확립 등 건강한 생활습관를 형성하도록 함.
  - 일찍 일정한 시간에 충분히 자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가능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성장호르몬은 성장호르몬 방출호르몬과 성장호르몬 방출 억제 호르몬의 특징적 분비에 의해 파동적으로 분비되며 수면기 중 비렘수면(non-rapid eye movement, NREM : 깊은 수면) 시기에 하루 성장호르몬 분비량의 60%이상이 분비됨.

-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및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함.
  -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임. 어린이집 일과 중에도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 필요함.

- 성장호르몬의 결핍 등 의료적인 문제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전문의를 통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도록 권유할 수 있음.

다. 유의사항

- 영유아의 왜소증은 기관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영양섭취 및 생활 습관에 신경을 써야 함. 왜소증에 대해 부모가 충분히 이해하고 집에서의 영양 섭취, 생활습관, 규칙적 운동 및 스트레칭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주도록 함.

참고문헌

박영아(2013). 아동 동작 교육. 교육과학사.

보건복지부(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1세 영아 프로그램.

보건복지부(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2세 영아 프로그램.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2013).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2013).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안효섭(2012). 홍창의 소아과학, 서울. 미래엔.

이영·이정희·김온기·이미란·조성연·이정림·유영미·이재선·신혜원·나종혜·김수연·정지나 (2009). 영유아발달, 서울: 학지사.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하정훈(2013). 삐뽀삐뽀 119 소아과. 서울: 그린비라이프.

부 록

부록 1. 소아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2007)

남아				연령	여아			
체중 (kg)	신장 (cm)	체질량지수 (kg/m²)	머리둘레 (cm)		체중 (kg)	신장 (cm)	체질량지수 (kg/m²)	머리둘레 (cm)
3.41	50.12		34.70	출생시	3.29	49.35		34.05
5.68	57.70		38.30	1~2개월(1)	5.37	56.65		37.52
6.45	60.90		39.85	2~3개월	6.08	59.76		39.02
7.04	63.47		41.05	3~4개월	6.64	62.28		40.18
7.54	65.65		42.02	4~5개월	7.10	64.42		41.12
7.97	67.56		42.83	5~6개월	7.51	66.31		41.90
8.36	69.27		43.51	6~7개월	7.88	68.01		42.57
8.71	70.83		44.11	7~8개월	8.21	69.56		43.15
9.04	72.26		44.63	8~9개월	8.52	70.99		43.66
9.34	73.60		45.09	9~10개월	8.81	72.33		44.12
9.63	74.85		45.51	10~11개월	9.09	73.58		44.53
9.90	76.03		45.88	11~12개월	9.35	74.76		44.89
10.41	78.22		46.53	12~15개월	9.84	76.96		45.54
11.10	81.15		47.32	15~18개월	10.51	79.91		46.32
11.74	83.77		47.94	18~21개월	11.13	82.55		46.95
12.33	86.15		48.45	21~24개월	11.70	84.97		47.46

(부록 그림 1 계속)

남아				연령	여아			
체중 (kg)	신장 (cm)	체질량지수 (kg/m²)	머리둘레 (cm)		체중 (kg)	신장 (cm)	체질량지수 (kg/m²)	머리둘레 (cm)
13.14	89.38	16.71	49.06	2~2.5세	12.50	88.21	16.34	48.08
14.04	93.13	16.29	49.66	2.5~3세	13.42	91.93	16.01	48.71
14.92	96.70	15.97	50.10	3~3.5세	14.32	95.56	15.76	49.18
15.91	100.30	15.75	50.43	3.5~4세	15.28	99.20	15.59	49.54
16.97	103.80	15.63	50.68	4~4.5세	16.30	102.73	15.48	49.82
18.07	107.20	15.59	50.86	4.5~5세	17.35	106.14	15.43	50.04
19.22	110.47	15.63	51.00	5~5.5세	18.44	109.40	15.44	50.21
20.39	113.62	15.72	51.10	5.5~6세	19.57	112.51	15.50	50.34
21.60	116.64	15.87	51.17	6~6.5세	20.73	115.47	15.61	50.44
22.85	119.54	16.06	51.21	6.5~7세	21.95	118.31	15.75	50.51
24.84	123.71	16.41		7~8세	23.92	122.39	16.04	
27.81	129.05	16.97		8~9세	26.93	127.76	16.51	
31.32	134.21	17.58		9~10세	30.52	133.49	17.06	
35.50	139.43	18.22		10~11세	34.69	139.90	17.65	
40.30	145.26	18.86		11~12세	39.24	146.71	18.27	
45.48	151.81	19.45		12~13세	43.79	152.67	18.88	
50.66	159.03	20.00		13~14세	47.84	156.60	19.45	
55.42	165.48	20.49		14~15세	50.93	158.52	19.97	
59.40	169.69	20.90		15~16세	52.82	159.42	20.42	
62.41	171.81	21.26		16~17세	53.64	159.98	20.77	
64.46	172.80	21.55		17~18세	53.87	160.42	21.01	
65.76	173.35	21.81		18~19세	54.12	160.74	21.13	

주: 1~2개월은 1개월부터 2개월 미만에 해당하며,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부록 그림 1] 소아 발육 표준치(체중, 신장, 체질량지수, 머리둘레)

부록 2. 영유아의 대·소근육 운동발달

〈부록 표 1〉 만 0~1세 영아의 대·소근육 운동발달

이동하기	3개월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을 든다.
	4개월	혼자서 몸을 뒤집는다.
	6개월	혼자서 앉는다.
	8개월	기어 다닌다.
	12개월	혼자서 걷는다.
	16개월	옆이나 뒤로 걸을 수 있다.
균형잡기	15개월	장난감을 밀고 당기면서 걷는다.
	17개월	유모차를 밀고 다닌다.
	24개월	박자에 맞춰 움직일 수 있다.
오르기, 내려오기	13개월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
	15개월	계단을 뒤로 기어 내려온다.
	18개월	도움을 받아서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
	19개월	침대나 의자를 기어오른다.
타기	6개월	보행기를 탄다.
	12개월	붕붕카를 탄다.
	22개월	그네 등 각종 놀이기구를 타는 것을 즐긴다.
차기, 던지기	16개월	공을 차려고 하지만 차지 못하고 공에 발을 얹어 놓는다.
	20개월	공을 던질때 손을 어깨 뒤로 젖혔다가 던진다.
	23개월	아동용 농구 골대에 공을 던져 넣는다.
소근육 통제	4개월	딸랑이를 움켜쥐고 입에 넣는다.
	6개월	한 손으로 장난감을 쥔다.
	9개월	바퀴나 레베 등 움직이는 부분을 조작한다.
	14개월	한 손으로 2~3개의 물체를 쥔다.
	19개월	양말이나 신발을 벗는다.
눈과 손의 협응	7개월	물체를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긴다.
	10개월	크레용을 쥐고 끼적거릴 수 있다.
	11개월	엄지와 검지로 작은 물체를 집을 수 있다.
	21개월	책을 한 페이지씩 넘길 수 있다.

자료: 박영아(2013). 아동동작교육. 교육과학사.

〈부록 표 2〉 만 2세 영아의 대·소근육발달

이동하기	걸으면서 물건을 나를 수 있다. 빨리 걸을 수 있다. 달리기를 할 수 있다. 손을 잡아주면 호핑(hopping)을 할 수 있다. 위로 점프(jump)할 수 있다.
균형잡기	발가락 끝으로 걸을 수 있다. 움직이다가 멈추기, 방향 바꾸기, 장애물 피하기를 할 수 있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걸을 수 있다.
오르기, 내려오기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 성인의 도움을 받아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 손을 잡아주면 뛰어 내릴 수 있다. 오르기를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즐긴다.
타기	세 발 자전거의 발판을 밟아서 움직이지만 조종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차기, 던지기, 잡기	손을 잡아주면 공을 찬다. 발을 고정시키고 팔을 뻗어 던진다. 바닥에 앉은 채로 굴러오는 공을 팔이나 몸 전체를 이용하여 잡는다.
소근육 통제	신발을 정리할 수 있다. 도움을 받아 손을 씻을 수 있다.
눈과 손의 협응	말판 위의 말을 옮길 수 있다. 쌓아올린 블록이 넘어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붙잡으면서 다른 한손으로 블록을 위에 하나씩 올릴 수 있다.

자료: 박영아 (2013). 아동동작교육. 교육과학사.

〈부록 표 3〉 만 3세 유아의 대·소근육발달

이동하기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달리기를 자유롭게 한다. 장애물을 피해서 달릴 수 있다. 앞으로 뛰어 넘기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대게 한 쪽 발을 먼저 뻗는다. 제자리에서 선호하는 발로 3~5회 호핑(hopping)할 수 있다. 계단이나 구조물 위에서 뛰어 내릴 수 있다. 초보적인 수준의 갤로핑(galloping)을 시작한다.
균형잡기	선을 따라 걷기를 시도하지만 종종 선을 벗어나기도 한다. 넘어지지 않고 몸을 구부린다.
오르기, 내려오기	기어오르기를 잘한다. 사다리를 오르내릴 수 있다.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린다.
타기	세 발 자전거의 발판을 밟으며 전진한다. 자전거의 손잡이를 돌릴 때 크게 회전한다.
차기, 던지기, 잡기	발을 고정시키고 몸을 회전하면서 팔을 뻗어 공을 던진다. 서 있는 자세에서 정지되어 있는 공을 찬다. 팔을 앞으로 구부려 농구골대 모양으로 만들어 공을 받을 수 있다.
소근육 통제	단추를 끼운다. 가위를 사용한다. 엄지, 검지, 중지로 크레용을 쥔다.
눈과 손의 협응	줄로 구슬을 꿰어 목걸이를 만들 수 있다. 고무 찰흙을 굴리고 주무를 수 있다.

자료: 박영아 (2013). 아동동작교육. 교육과학사.

〈부록 표 4〉 만 4세 유아의 대·소근육발달

이동하기	팔, 다리를 움직이면서 달릴 수 있다. 달리다가 두 발로 뛰어 넘기를 할 수 있다. 스키핑(skipping)을 시도하지만 종종 갤로핑(galloping)으로 변하기도 한다. 한발로만 스키핑(skipping)을 할 수 있다. 같은 발로 8~10회 호핑(hopping)할 수 있다. 5초 가량 한발로 서 있을 수 있다. 약 30 cm 가량 위로 점프(jump) 할 수 있다.
균형잡기	평균대를 따라 걸을 수 있다. 줄넘기를 할 수 있다.
오르기, 내려오기	사다리,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다.
타기	장애물을 피해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자전거 손잡이를 돌릴 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차기, 던지기, 잡기	어깨 위로 손을 들어 공을 던진다. 튕겨주는 공을 잡을 수 있다. 굴러오는 공 쪽으로 움직여나가 찰 수 있다. 공을 차서 앞쪽으로 보낼 수 있다.
소근육 통제	빨래집게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 모양의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낼 수 있다.
눈과 손의 협응	작은 구슬로 목걸이를 만들 수 있다. 깔대기를 이용하여 물을 따를 수 있다.

자료: 박영아 (2013). 아동동작교육. 교육과학사.

〈부록 표 5〉 만 5세 유아의 대·소근육발달

이동하기	달리다가 재빠르게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다. 갤로핑(galloping)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10초 이상 한발로 서 있을 수 있다. 리듬에 맞추어서 발을 바꾸어가면서 호핑(hopping)을 할 수 있다. 능숙하게 스키핑(skipping)을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점프(jump)할 수 있다.
균형잡기	평균대 위에서 앞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며, 뒤로 걸을 수도 있다. 앞구르기를 할 수 있다.
오르기, 내려오기	경사로, 계단, 사다리, 미끄럼틀을 쉽게 오르내린다.
타기	속도나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하며 세 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차기, 던지기, 잡기	목표점을 향해 던지고 차고 잡는 것이 정확해진다.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공을 어깨 위로 들어 던질수 있다. 공을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찰 수 있다. 크기가 작은 공을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소근육 통제	찰흙을 빚어 어떤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다. 여러 형태의 선이나 모양을 오리기 위해 가위를 사용할 수 있다.
눈과 손의 협응	빨대, 단추 등 작은 사물들을 끈으로 묶을 수 있다. 작은 블록으로 균형 잡힌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자료: 박영아 (2013). 아동동작교육. 교육과학사.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프로그램 개발」
–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

[연구진]

구분	성명	소속/직위
총괄 책임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 1부 총론		
책임연구원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윤지연	육아정책연구소 인턴연구원
	김영란	한국보육진흥원 사원
제 2부 각론: 기본생활영역		
책임연구원	김의향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장
공동연구원	민미희	서경대학교 대우교수
	김수진	한국보육진흥원 대리
간사	김영란	한국보육진흥원 사원
제 3부 각론: 신체운동발달영역		
책임연구원	김온기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상무이사
공동연구원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손승희	대천청사새롬어린이집 원장
간사	김영란	한국보육진흥원 사원
제 4부 각론: 사회성발달영역		
책임연구원	심미경	인제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유주연	CJ키즈빌어린이집 원장
간사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제 5부 각론: 정서발달영역		
책임연구원	강지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장혜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서원경	중앙청사어린이집 원장
간사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제 6부 각론: 언어발달영역		
책임연구원	유희정	광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안현숙	안산삼성어린이집 원장
간사	윤지연	육아정책연구소 인턴연구원
제 7부 각론: 인지발달영역		
책임연구원	최혜영	창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혜원	영등포구보육정보센터 센터장
간사	윤지연	육아정책연구소 인턴연구원

[연구자문진]

구분	성명	소속/직위
제 2부 각론: 기본생활영역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문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 3부 각론: 신체운동발달영역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문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태은	한양사이버대학 아동학과 교수
제 4부 각론: 사회성발달영역		
	최지영	상계백병원 정신과학교실 임상심리실 교수
	김진영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슬기	서울대병원어린이집 원장
제 5부 각론: 정서발달영역		
	정성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최지영	상계백병원 정신과학교실 임상심리실 교수
	김진영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슬기	서울대병원어린이집 원장
제 6부 각론: 언어발달영역		
	박주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손은남	광주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신동주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 7부 각론: 인지발달영역		
	박주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박진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전임강사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1

발행일 2013년 11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전화: 02) 2023-8944
팩스: 02) 2023-8921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132-01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1

· 총 론
· 기본생활영역
· 신체운동발달영역

KICCE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